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추문하세요!!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2월 12일 수요일(주간) 제408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충주 중앙탑돌이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충주시 중원 가금면에 소재한 탑평리 7층 석탑(국보 제6호)은 높이가 14.5m로 통일신라 석탑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이 탑은 통일신라 원성왕(785~799년)이 호국의 상징으로 나라 중앙에 세웠다 하여 '중앙탑'으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신라시대부터 탑돌이가 행해졌고 고려시대에도 성행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재도 부처님오신날과 중추절에 중앙탑에서 충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송봉 · 지장정사 주지)가 탑돌이 행사를 열고 있다.

충주불교사암련은 최근 충청북도에 "중원 탑평리 7층석탑에서 행하고 있는 탑돌이 행사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주불교사암련은 "현재 송봉스님이 중앙탑돌이 전수 경력 12년 기능보유자로 지정돼 있다"며 "중앙탑돌이 의례 또한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로부터 부처님오신날 절 앞마당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밤새 행해진 탑돌이는 민속놀이의 측면이 강한 불교의례이다. 그래선지 불자를 막론하고 지역민들의 자연스런 참여가 이루어져 오래전부터 탑돌이는 지역축제형태로 이어져왔다.

충주 중앙탑돌이도 일반 주민들이 밤새 탑을 돌며 축원하는 민속문화로 발전돼 왔다. 특히 중앙탑돌이는 육바라밀 정진도에 따라 진행되며 포용과 조화, 중심적 발상, 복전(福田)의 확산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충북지역의 대표적 문화행사다.

현재 전국 각지의 탑돌이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사암련의 중앙탑돌이 전통을 보전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 요청은 의미가 크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대불련과 대불청은 올해를 청년 불교 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신입회원 확보와 조직 강화에 나선다.

90년대 이후 이들 단체들의 회원 감소와 지부 활동 둔화가 계속되면서, 청년불교는 사실상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대불련 **본부포교팀 발족 … 3월 한달 학내 포교**

대불청 **고교불교학생회 창립 지원 포교 거점으로**

청년불교단체 조직 강화 나선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다양한 방편으로 올 한해 불교계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본부 조직을 포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한다.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포교팀'을 신설한 대불련은 22일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대로 대학 캠퍼스 내에 불교 붐을 일으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포교팀의 발족은 기존 '새내기 포교팀'이 3, 4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검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터넷 포교팀'을 새롭게 꾸려 인터넷 불교 동아리를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 데도 힘을 쏟는다.

대불련은 3월 한 달을 '학내포교 전진대회' 기간으로 선포해 대학가 포교를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신입생을 위한 초청 강연, 새내기 불자 환영 법회 등을 여는 한편, 포스터와 버튼, 홍보 리플렛, 대자보 등을 제작해 지회 지부 포교를 지원한다. 지회 지부가 법회나 수련회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포교책자도 올해 내에 발간한다.

대불련은 또 신행단체와 연계한 회원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3 불자들을 회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예비대학생에게 편지 보내기, 사랑방 모임 개최 등을 통해 대불련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올해 청년 포교 강화, 회원교육 체계와 지방 조직 정비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대불청 청년분과 1호인 홍익여고 불교학생회를 창립한 데 이어 제2, 제3의 불교학생회를 창립시켜 청년 포교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4월에는 '불청 알림이 운동'을 통해 회원 배가에 나서는 한편, 불교 교리 강좌 중심의 만해대학을 불교문화와 수행법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만해문화대학으로 확대 개편해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5개 권역별의 불청지도자 연수를 실시해 지회 지부 활동 활성화와 조직력을 강화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선우논강, 25일 실상사서 토론

한국불교의 간화선과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를 비교 · 검토하는 토론이 벌어진다.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에서 25일 오후 6시 열리는 제7회 선우논강(대표 철오)이 그 자리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주제로 논강이 진행된다.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의 체험과 보급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의 수행방법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수행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자리다.

기조강연은 혜국스님(제주 남국선원장), 발제는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대표토론은 정화스님 인경스님(보조사상연구원)이 각각 나선다. 문의 063) 636~3031.

김원우기자



◇흥교스님(종하스님 선대위원장 · 오른쪽)과 일면스님(법장스님 선대위원장 · 왼쪽)은 7일 지명스님(선거관리위원장 · 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종하 · 법장 두후보 공명선거 다짐

흥교 · 일면 선대위장, 지명 선관위장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종하, 법장 두 후보 측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두 후보 측은 또 선거운동기간 준수 등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종하스님 선거대책위원장 흥교스님, 법장스님 선거대책위원장 일면스님은 7일 종회사무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스님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두 후보 측은 또 중앙선관위가 요청한 △금품수수나 인신공격 등 비승가적 행위 금지 △후보등록(14~16일) 이후 종책자료집 배포 △후보 등록 후에도 현수막 부착 금지 △종책토론회는 선거기간(14~23일) 중 개최 △입후보자 기호 결정은 후보등록 순서로 결정(동시 접수 때는 제비뽑기로 정함)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원장 지명스님은 이날 "이번 선거를 청정승풍을 진작하고 불교의 사회적 책임수행과 포교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본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관련 보도에 있어 후보자 표기 순서는 기호가 결정될 때까지 세수를 기준, 종하스님(65세) 법장스님(62세) 순으로 합니다.

가야산골프장 백지화

대법원, 2001년 원고 패소판결 확정

10여년간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개발사업이 대법원에서 백지화됐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과 가야산국립공원내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87년 시작된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은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인근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이 반대하자 95년 문화체육부가 사업계획승인 취소결정을 내렸으며, 97년말 대법원의 해인골프장 사업 적법 판결에 따라 개발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1년 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을 불허, 가야개발이 다시 소송을 냈으나 2001년 패소한 바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불교계 첫 다도학교 개설

기본 · 지도자 과정 각 50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이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2년 과정의 불교다도학교를 개설한다.

동산불교대학은 6일 "2년 과정의 불교다도학교를 설립해 불교다인과 다인 포교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2년 과정의 기본 과정과 지도자 과정을 두고 각각 50명 씩 1백명의 신청을 받아 교육시킬 예정이다.

동산불교대는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불교다도 포교사의 자격을 주고 지도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불교다도법사로 품수해 활동하게 할 방침이다. 입학식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02)732-1206

강유신 기자

제8회 신행수기 시상식
2월 22일 (토)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수행의 길을 지켜드리는 두 "건강지킴이"
영양균형 · 유해산소예방에-반야정식 · 반야정명



지사 및 가맹점 모집
▶두 가지 기능의 반야정식, 반야정명을 하루의 포장에 담아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90여종의 비량 영양소를 매일 균형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균형은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유해산소는 지나친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건강자해의 중요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영양균형에 반야정식
▶ 18종류의 동결건조 자연식품과 12종의 기능성 재료를 사용하여 8대 영양소를 균형있게 공급합니다.
▶ 상세정보 공명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양균형을 실현한 신제품의 균형 대차처리(특허출원번호 : 10-2001-0027621)

유해산소 예방에 반야정명
▶ 유해산소를 비롯한 유리기(free radical)에 의해 건강이 손상되는 과정은 잘 밝혀져 있습니다.
▶ 베타카로틴, 소나무껍질 추출물, 효모 추출물, 맥류약엽 등 8종류의 기능성 재료를 사용하여 유해산소 예방효과가 우수한 항산화 베타카로틴 식품입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몸관리만 하시는 수행인 ▶ 시험공부에 몰두하는 수험생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 종사자 ▶ 미래에 도전하는 경영인

문의전화 : 02-547-7056
※ 파마트는 10년 역사의 건강기능성식품 전문제조업체인 (주)한국바이오에너지의 프랜차이즈사업부입니다.

파마트
※ 전화주시면 관련 특허(김현원 연세대 전주의대 교수)를 보내드립니다.

사 설

사찰땅 강제수용 불허 의미

헌법재판소는 1월 30일, 대한주택공사가 부산 선암사 경내지를 강제로 수용한 것에 대해 선암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공용 수용으로 인한 전통사찰 경내지 등의 소유권 변동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은 주택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사찰 경내지를 공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서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것은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라고 밝히고,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용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 여부를 주지가 처분하는 것과 동일하게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절차를 밟게 한 것은 매우 타당한 판단이다. 스님들이 수행하며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전통사찰은 단순히 건물이나, 탑 등의 일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내지와 주변 경관까지 보호될 때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신라시대 창건된 선암사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사찰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 설 때 수행환경의 파괴와 경관의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이며 문화재의 보존에도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불교계는 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인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에 합당한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청년 포교 방안

청년 불자의 수적 감소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적의 차원을 넘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요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입으로 우려하고 마음으로 걱정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 불교의 현실을 바라보기만 했었다.

청년 불교의 핵심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와 대한불교청년회(대불청)가 전방위적인 포교활동을 통한 조직 확대라는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두 단체가 단단하게 맘먹고 내놓은 안들은 불교계에 찬란한 봄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불련의 경우 신입생이 들어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을 학내포교 전진대회 기간으로 선포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작심한 셈이다. 대학 봄 학기의 주인공은 신입생들이다. 신입생들은 이 시기에 각자의 개성과 인생관에 따라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게 되므로 포교에 있어서도 적기다.

대불청 역시 그간 눈길을 주지 못했던 청소년들과의 유대 강화가 돋보인다. 미래의 회원인 청소년 불자들과 일찌감치 끈끈한 정을 맺는 것은 회원의 고령화와 활동의 신선도 팽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불련과 대불청이 내놓은 다양한 포교 방안들은 그들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승승장구하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도록 각 종단과 신도단체 등 '어른'들의 측면 지원이 있어야겠다. 물론 대불련과 대불청도 지나친 의욕보다는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외국인수행자

의식 · 예법 쉽게 배운다

조계종 교육원 행해예경집 · 초발심자경문 이달 발간

전통용어 · 로마자 · 내용 영문 해설

쉽게 옮긴 '화엄경현담' '주해집' 도

앞으로는 외국인 수행자들도 예법과 의식, 초발심자경문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달 안으로 외국인 수행자들을 위한 <행해예경집>과 <초발심자경문>을 출간한다. 각 150여 쪽 분량의 두 책은 한국불교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행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불교의식 등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과 내국인 불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의식 및 예법과 <초발심자경문>이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해예경집>은 행해, 위의소임, 운력, 발우공양 등 사찰 생활에 필요한 각종예법과 삼귀의, 사홍서원,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공양의식, 목탁과 요령 사용법 등 예식을 손모양, 발모양, 자세 등의 그림과 함께 쉽고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특히, 각 의식과 예법의 전통용어를 한글 및 로마자 표기와 함께 영어식 풀이를 해놓고, 그 예법과 의식을 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음으로써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예를 들면, 발우공양의 경우 'The bal woo gong yang'(발우공양)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 ' buddhist meal with traditional bowls'(전통그릇으로 하는 불교도들의 식사)로 영어식 풀이를 달아놓았으며, 발우를 놓는 방법에서부터 공양 예법까지 차례차례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초발심자경문>은 미국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영역한 '계초심학입문', 연등국제선원장 원명스님이 영역한 '발심수행장', 금강선원의 외국인 수좌인 청고스님이 영역한 '자경문'과 '선원규범교본'이 함께 실려 있다. 구성은, 책을 펼칠 경우 왼쪽 편에는 영역한 내용이, 오른쪽 편에는 한글과 한문으로 돼 있어 한글과 한문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이 두 책을 국내의 외국인 행자와 수행자는 물론 외국의 한국 사찰과 외국 대학 및 도서관에도 배포해 한국불교의 예법과 의식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80권 화엄경을 압축해 이를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한 <화엄경 현담> 상 · 하 권과, 그동안 나온 화엄경 현담 주해서를 쉽게 번역한 <주해집> 상 · 하 권 등 네 권(2000여 쪽 분량)도 한 질로 엮어 이달 중 출간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연등축제 거리행사 참여

사찰 · 신행 · 예술단체 모집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인 5월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거리행사 '불교문화마당'에 참가할 사찰 및 신행 ·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참여 프로그램은 놀이마당(각종 공연), 전통문화마당(만들기, 꾸미기 등), 나눔마당(컵등 제작), NGO, 국제불교마당(불교국가별 부스 운영), 먹거리 살거리(사찰음식 판매 등)이며, 3월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봉축위원회는 또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 및 전시, 불교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각종 공모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손길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접수는 24일부터 3월7일까지다. (02)725-6641

한명우 기자

"신명나는 불교 · 갈채받는 종단으로"

종하스님 6일 총무원장후보 추대식

법장스님은 지난 달 27일 가져

종하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추대식이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성오(범어사) 세민(해인사) 지성(동화사) 마근(신흥사) 명섭(화엄사) 원정(쌍계사) 용주(관음사) 지홍(조계사) 스님 등 8개 교구본사 주지와 원택, 영담, 광조, 종훈, 학담, 진만 등 중앙종회의원, 종하스님 선거대책위원장인 흥교스님(대각사 주지) 등을 포함해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종하스님은 후보추대 수락사에서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조계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총무원장이 되면 종단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생동감 넘치고 신명나는 불교, 사회로부터 갈채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하스님과 함께 후보로 나선 법장스님은 지난 1월 27일 추대식을 가진 바 있다. 한명우 기자

국내외 불교여성학 현황조사

불교여성개발원 연구성과 비교검토…월말께 보고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국내외 불교여성학의 연구 성과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외 불교여성학 개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불교여성학을 공부하는 연구모임 '담마딘나(팀장 세등 스님)'가 맡아 진행했으며, 조사결과는 이 달 말 보고서로 발간된다.

세등 스님을 비롯 조순미 · 정미숙 동국대 강사와 이경순 선우도량 간사, 이화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담마딘나는 지난해 12월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3개월 동안 불교여성학관련 연구논문과 서적의 목록을 조사했으며 이를 '고', '집', '멸', '도'를 주제로 정리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불교여성학 연구 성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불교여성학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교여성학을 공부하는 국내 학자들에게 자료 제공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화 사무국장은 "국내 불교여성학은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자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척박하다"며 "앞으로 이번 보고서에 실린 논문과 책의 주요 요지를 담는 등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보고서 100여 부를 전국 강원과 학교, 언론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 (02)722-2101 여수령 기자

법장스님 선거대책위 불교신문 중립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법장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종단기관지인 불교신문 사장 영담스님의 선거중립과 불교신문의 일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불교신문 사장에게 전달했다.

법장스님 선거대책위는 "영담스님이 종하스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중립을 요하는 주요 종무원으로서는 맞지 않고, 6일 종하스님 추대식 관련기사(인터넷판)도 7개 본사(조계사 제외) 주지가 참석한 것을 11개 본사대표가 참석했다고 보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쇄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 불가

제7회 선우논강 안내

선우논강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법을 토론하고 절차탁마하는 공부모임입니다.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불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수행,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의 마당입니다.

이번 제7회 선우논강 주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입니다. 근래 한국불교계는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남방불교의 수행방법인 위빠사나의 체험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말미암은 수행방법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수행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논강에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대한 비교 검토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선우논강의 공부모임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방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2월 25일(화) 저녁 6시 - 9시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 **기조강연** : 혜국스님 (제주 남국선원)
■ **발 제** :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 **대표토론** : 정화스님, 인경스님(보조사상연구원)
■ **일 정** : 오후 4시 접수. 오후 5시30분 공양. 오후 6시30분 예불 및 논강
■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참 가 비** : 2만원
■ **준 비 물** : 대가사
■ **문 의** : 선우논강 사무실 (02-3676-4060), 실상사 (063-636-3031)

※**선우논강 후원계좌 :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장영기)**

선우논강 대중일동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철오 스님

전통사찰 법적 보존 길 열려

헌법재판소 '선암사 경내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판결

주택공사에 의한 토지 강제 수용으로 수행환경과 재산권을 침해당한 부산 선암사(주지 정야)가 전통사찰의 토지수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통사찰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공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선암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1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9인 중 7인의 다수의견으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의 입법목적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소유권 변동 주체나 형식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즉 전통 사찰 주지가 경내 토지를 처분할 때만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가 공용 수용할 때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게 한 것은 민족문화유산 보존이라는 헌법 제9조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은 불가하다는 판례를 남겨 전통사찰의 법적 보존의 길을 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재판소가 위헌결정 또는 단순한 헌법불합치 결정만을 선고할 경우, 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요건에 따라서 전통사찰을 실효성 있게 보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시까지 그 효력은 잠정적으로 존속한다"며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했다.

"민족문화유산 보존은 국가의 의무"
선암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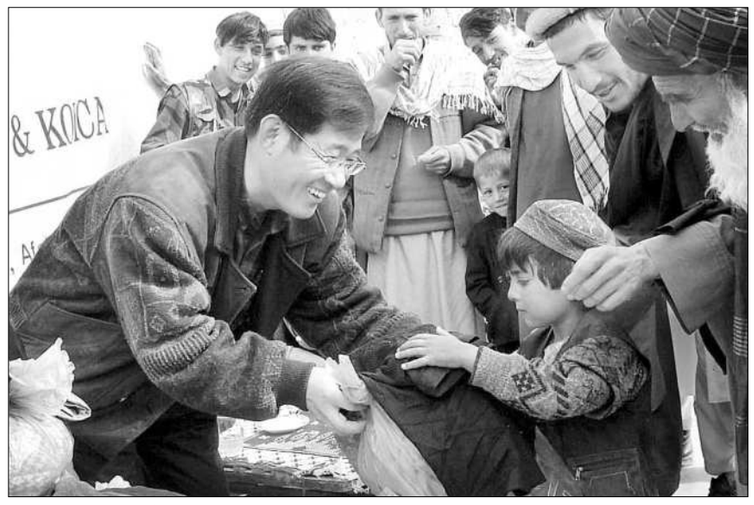
◇주택공사가 강제수용한 선암사 경내지.

94년 6월부터 사찰 토지 강제 수용 불가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벌여오던 선암사는 사찰에서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찰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돼 강제수용이 결정되자 지난 2001년 8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암사 주지 정야스님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암사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한 부당함이 법적으로 입증된 만큼 현재 강제수용된 토지내에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2월 5일 헌법재판소의 부산 선암사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총무원은 논평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 및 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유정길 씨가 아프간 난민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아프간 담요·옷 긴급구호 필요
불자들 연기적 자비사상 펼쳐야

자원봉사하고 돌아온 유정길 씨

유정길 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왔다. 유정길 씨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폐허가 됐으며 난민들은 추위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 씨는 13일 다시 아프간으로 떠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어떤가

—말로만 듣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했다. 수도 카불의 경우 20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산업기반 시설도 완전히 마비되었다. 최근 아프간으로 난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시장에 버려진 빵 부스러기나 아채들을 주워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긴급구호물자로 담요와 옷이 필요하다. 아프간은 현재 겨울이지만 난민들은 텐트에 변변한 보온시설 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에서 가져간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의 담요와 옷도 아직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또 긴급구호는 긴급일 뿐 장기적으로는 아프간 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계획은

—카불 북부인 탑다라 마을에 학교건립과 댐공사를 위해 주 정부로부터 부지까지 기증 받았다. 학교는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5~6월이면 공사가 끝날 것이다. 재료 지원은 정토회에서 하되 공사는 현지인이 무보수로 할 것이다.

200원이면 난민 1인 한끼식사 해결

▲한국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아프간에는 국제 NGO 300여 개, 국내 NGO 5개 정도가 있다. 국내 NGO중 불교계는 정토회 하나뿐 나머지는 모두 개신교계 NGO다. 불자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곧 우리라는 연기적인 자비사상을 펼쳐야 한다. 우리 돈 200원이면 아프간 난민 한 끼 식사가 해결된다. 후원문의 :02)587-8995, 계좌 :국민)086-01-0339-254(예금주 (사)한국제이티에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책선거' 왜 뒷전인가?

선거 10일전 종책제시 검증 시한 촉박
"선거인단 표심만 잡으면 …" 여론 모르쇠

선거법 개정으로 타락선거 막아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일이 확정된 지 보름이 지나면서 후보로 나선 종하, 법장 두 스님은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종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두 후보 측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스님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4일 이후에 종책을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후보 추대식과 불교계 언론과의 인터뷰 등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 10일 전에야 종책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종책선거가 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법규는 종헌과 총무원장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명시된 10여 개 조항이 전부고, 이들 조항조차도 금품수수나 인신공격 등을 금지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불과해 종책선거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종책 제시를 지연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종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시스템 때문이다. 후보들은 교구에서 선출된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321명의 선거인단 '표심'만 잡으면 된다. 따라서 여론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문중이나 계파의 이해관계에 몰두하게 되고, 바로 이런 법규정의 느슨함이 종책선거 요구를 수면 아래로 잠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짚어본다.

●선거기간

총무원장 선거법 제11조에는 선거 기간을 10일로 못 박고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14~23일) 외에 후보자들이 신상명세나 종책공약의 개요를 공식적으로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본다면 후보자들이 자신의 종책을 제시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

이 같은 선거법이 마련된 것은 94년 개혁종단 때로, 장기간의 선거운동으로 야기되는 과열혼탁 양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0일로 종책을 제대로 알리고 검증받기에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한 종회의원은 "선거기간을 20일 정도로 늘려 종책선거를 유도하고, 대신 종법 개정을 통해 타락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

선거인단 선출방식도 '공명·종책' 선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선거인단의 자격기준이 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비구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고, 따라서 법랍 30년 이상의 총무원장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손상좌에게 허리를 굽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위계를 중시하는 승가풍토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종회의원 선출 자격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선거인단 선출 방법도 종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주지의 직권이나 문중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표가 몰릴 수 있고, 따라서 종책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24개 교구가 똑같이 10인의 선거인단을 갖는 것도 공정한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적지않다. 재적승 2천명 이상의 교구나 1백여명에 불과한 교구가 똑같은 선거인단을 갖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선거 관련 법규정 미비

후보등록 후 단 1회에 한해 종책을 교계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종법 조항이 종책선거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금권, 타락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법규정 마련도 필수적이다. 종하, 법장 두 후보 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선거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종헌종법이 94년 개혁회의 때 마련돼 바뀐 시대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실을 감안한 선거법이 마련돼야만 종책선거,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제31대 총무원장선거에 즈음하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21세기 첫 선거인 제31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동안 쌓아온 종단안정과 화합의 기조위에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부대중 모두는 이번 선거가 이천만 불자들을 위한 선거로 기록되기를 서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민족에 회향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산중공의와 원융화합의 전통을 되살리고, 수행과 승풍을 진작하며, 특히 종단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종책과 비전 중심의 여법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는 총무원장 후보자들과 선거운동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승가의 전통과 위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 불교 발전으로 가는 탁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스님들께서는 밝은 혜안으로 후보자들이 제시한 종책과 비전에 따라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이번 제31대 총무원장선거는 저희 종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여법하게 치루는 것은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 종단의 선거 때 쏟아졌던 국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종도 여러분들께서 합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

이번 선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모든 종도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종단의 미래가 제시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호법신장이 되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종도 여러분께서 바라는 공명정대한 선거, 부처님 법에 따른 여법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부동한 자세로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종헌·종법에 따른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맑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도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 청정과 화합의 전통이 진작되는 우리 종단의 진면목을 내외에 보여주실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충정으로 당부 드립니다.

종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7(2003)년 2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 명



제4차 가산포럼 개최
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13일에서 15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한국불교 천년 지성사'를 주제로 제 4차 가산포럼을 개최한다.

일주문



공생선원서 원각경 강의
원의범 전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1월 26일 서울 공생선원에서 200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원각경 강의를 했다.



현대불교와 방법론 세미나
법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18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현대불교와 방법론' 학술세미나를 연다.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15일 만불보전에서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2003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계미년 신년법회 봉행
김중겸 전국경찰불교회장은 8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400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경찰 계미년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불교환경연대 지리산 산행
도법 남원 실상사 주지는 22일부터 23일까지 불교환경연대에서 실시하는 제 31회 산행(지리산)에 함께한다. (02)720-1654



표충사 · 사명대사 생가 참배
장적 평불협 경북대구본부 공동대표는 9일 5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밀양 영산정사, 표충사, 사명대사 생가를 참배했다.



국방부 군종실장 취임
김말환 전 1군 사령부 군종참모(25대 군승회의 의장)는 12일자로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취임한다.



군승후보생 동계교육 실시
성광 군불교위원회장은 18일부터 22일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승후보생 31명의 대상으로 동계교육을 실시한다.



대보름 맞이 국태민안법회
정암 부산 해동용궁사 주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해동용궁사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국태민안 대법회를 봉행한다.



양로원에 위문품 전달
신성자 봉황자원봉사단장은 1월 29일 화성양로원, 중증장애인 정신수양원 등에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노무현 당선자 토론회 참석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은 5일 대전 한국과학재단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종교권력과 사회개혁 토론
진월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는 15~16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종교권력과 사회개혁' 토론회에 참석한다.



노숙자에 월동용품 전달
고경순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회장은 5일 무료급식 5주년을 맞아 동대구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양말, 장갑 등을 전달했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⑤

김현배 (청주불교단체협의회장)

청주불교실업인회 창립에 앞장 부처님오신날 지역 축제화 추진



타종교들이 시민단체들과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며 교세를 확장하는 동안 뚜렷한 행보를 취하지 못했던 청주 불교계가 최근 청주불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23개 단체를 아우르는 청주불교단체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현배(57) 회장은 충북 불교계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김 회장은 그동안 청주불교실업인회 창립과 영규대사 추모사업을 청주시의 공식행사로 정착시키는데 앞장 섰으며, 청주불교실업인회 회장과 14대 국회의원을 거치며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워왔다.

현재 도시개발 주식회사 중부전기통신 대표로 있으면서 청주청원 조계종 영산회 신도회장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올 한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연례행사인 부처님오신날 행사와 무심천 연등제, 청주성 탈환 기념행사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민회 직지찾기운동본부'가 올해 구성하는 '흥덕사지 복원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해 '직지심경'의 인쇄지인 흥덕사지 복원을 추진해 나간다.

또 하나 김 회장에게 맡겨진 중요한 직책은 청주불교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다. 지난 2001년 6월 출범한 청주불교신협은 기존에 용화사가 운영하던 신협을 교계 지도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선학원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5억원의 수신고를 확보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운동 · 흥덕사지 복원 참여

지난해 신협의 존재를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지역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 불자들이 믿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신협으로 발전시켜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1인 1통장 갖기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신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불교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 회장은 "청주지역 불자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월의 문화인물 양주동 선생

동국대 국문과 · 국어국문학회 12일 학술대회



문화관광부 선정 2월의 문화인물인 양주동 선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동국대 국어국문학회(대표 서대석)와 국어국문학과(학과장 정우영)는 양주동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2일 오후 1시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에서 '양주동선생의 학문과 인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임기중(동국대) 교수의 '무애 선생의 생애와 한국 고시가 연구'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시태(한양대)교수가 '양주동 선생의 문학활동과 그 업적', 고영근(서울대)명예교수가 '국어학 연구', 전영우(수원대)교수가 '인간적 면모'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1947년부터 1977년까지 동국대 교수로 봉직했던 양주동 선생은 1977년 2월 4일 타계할 때까지 시인, 평론가, 수필가, 영문학자, 국어국문학자로서 화려한 이력과 방대한 논저를 남겼다. 특히 향가와 고려가요 연구의 결정체인 <조선고가연구>와 <여요전주>는 한국이 일제로부터 문화적 독립을 이룩할 수 있었던 명저로서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한국 고전어문학 연구의 새로운 막이 열렸다는 평이다. 문의 02) 2260-3841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강우방 · 이건무 · 김홍남 · 유홍준 차기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출사표

임기 3년, 중앙인사위서 결정

새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3일 차기 중앙박물관장 공모 마감 결과 모두 4명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19일 시작되는 임기 3년의 차기 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 용산 이전'이라는 대역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강우방(62)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와 이건무(56)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홍남(55)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유홍준(54)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박물관장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명의 후보를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최종 심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차기정부부터 중앙박물관장이 현재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신임회장 성기태 총장 유력
대불련총동문회 정기 총회

19일 오후 7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열리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임동주) 정기총회에서 성기태(국립충주대)총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기총회 안건은 신임회장 선출, 정관 개정, 창립 40주년 기념사업 심의, 2003년도 사업계획 심의 등이다. 문의 02)733-7276.

김원우 기자



생명나눔 기금 지원식 개최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는 1월 29일 2003년 1차 생명나눔 기금 지원식을 개최했다. 전남대학교 행정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원식에는 상임이사 석장스님, 한경순 후원회장, 김현종 전남대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지역본부는 주민아(10개월, 선천성담도폐쇄증), 김명성(10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 3명에게 총 9백만원을 전달했다.



평불협, 대북지원물품 전달식
조국평화불교협회(회장 법타)는 4일 인천항에서 회장 법타스님, 임대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지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대북지원물품은 대구 동구청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해 마련한 의류, 학용품, 생필품 등과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에 지원하는 밀가루 30톤 등이다.



장애인 가정에 명절 후원물품
영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지현)은 설날을 앞둔 1월 29일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명절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사 2명과 자원봉사자 15명은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이 선정한 장애인 가정을 돌며 가래떡, 쌀 20kg, 식용유세트, 음료수, 의료 등을 나누어 주었다. 이날 후원물품을 받은 재가 장애인 가정은 총 40세대였다.

중국구화산 지장보살이신 김교각스님의 득도일대기 DVD 총12편

관세음보살의 전생과 관세음보살이 되기까지 DVD 총20편

귀의 삼보하옵고
세상 모든이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삼가 기원합니다.
불자님!!!
관세음보살님의 전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되기전까지 한 인간으로써에 대한 삶을 통하여 보살의 경지에 이르셨는지를 1400년이라는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육신이 썩지 않고 아직도 보존되어 오는 지장보살님의 화신이신 중국 구화산 김교각 스님의 득도일대기와 삶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은일, 궂은일 있을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지만 우리는 그 두분의 전생과 보살이 되기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불교영상미디어에서는 한국 최초로 모든 불자님들께 두 보살님의 일대기를 영화를 통하여 쉽게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컨데 이 영화를 통하여 일체중생이 다함께 발보리심하여 부처님법 은혜를 받아 성불인연 되

문의 전화 (052) 262-5375~8, (052) 254-3185~6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827-02-278855 (예금주: 최종열) ※카드결제가능

한국불교영상미디어(주)



◇올해 보존처리에 들어가는 무위사 극락전내벽 사면벽화(보물 1315호)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관리 강화

문화재청 사찰·개인·문중소장 725건 실태조사

도난방지시설·훼손문화재 보수 지원

금당사 괘불탱 국고보조로 보존처리

◈소장처별 현황

종별	계	국유	대학박물관	사설박물관	사설미술관	사찰	사유	문중	서원
국보	218	90	13	11	48	29	25	1	1
보물	765	168	48	86	79	166	187	23	8
계	983	258	61	97	127	195	212	24	9

국가지정문화재 중 불상이나 불화, 서적 등 움직일 수 있는 동산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12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983건) 중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725건(국보 128건, 보물 597건)에 대해 종합실태조사를 벌였다. 개인소장 동산문화재의 훼손 여부나 도난방지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 결과 사찰의 성보박물관 등은 현대적 수장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일부 산간 오지에 위치한 사찰이나 개인, 문중 소장 문화재의 경우 도난위험과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문화재과 연웅 연구관은 "훼손돼 보수나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가 20여 건, 화재나 도난경보기 등 안전장치 미비가 2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난방지시설 설치 지원, 훼손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영인본(모사도)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보존관리 방안이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에는 금당사 괘불탱(보물 1266호) 등 14건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보존처리할 예정이며 탑산사 동종(보물 88호)과 무위사 극락전 벽화(보물 1315호) 등 4건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존처리를 의뢰했다.

국고보조를 받지 못한 나머지 문화재는 '문화재 긴급 보수 및 사후관리비' 7억2천여만 원을 긴급 투입해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보물 578호) △파계사 영산회상도(보물 1214호) 등 6건을 보존처리하고, 대구 파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575호) 등 3건은 도난·화재경보장치 설치를 를, 화성 봉림사 목조아이타불좌상(보물 980호)은 보호시설인 대웅전을 보수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새만금갯벌' 간척중단 촉구

생명평화연대, 노당선자에 친환경정책 요구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공동대표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는 7일 충북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새만금 살리기 위한 '대화마당'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에 간척사업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박경리(소설가), 김지하(시인), 문규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이주향(수원대 철학과 교수),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 임진택(연출가), 임옥상(화가) 등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50여명은 새정부가 생명존중과 인간·자연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추곡수매를 인하하고, 쌀 수매량을 줄이는 등의 감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조성목적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다음 주 상세 보도)

불교사회운동연대 추진

불교인권위등 20여단체

불교계 단체들이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발빠른 대응을 위한 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들은 5일 불교인권위 사무실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사회문제에 불교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선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부산 문수사 문수불교 청년회 등 각 사찰 청년회도 지지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20여개 단체가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불교인권위 조혜은 간사는 "17일 열리는 2차 준비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난치병 치료위한 체세포 복제허용

보건복지부, 법안마련

정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6일 확정했다.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이번 법률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난치병 치료 목적에만 체세포 복제를 허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명우 기자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

문화재청, 보물지정 예고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등 삼세불이 표현된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경북 상주시 용흥사의 삼불회 괘불탱을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은 길이가 10m가 넘는 대형 괘불로 1684년경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위시해 좌측에 약사여래불과 우측에 아미타불을 배치하여 삼세불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박원구기자

아프간 바미안석불 25일 걸려 파괴

불상에 구멍뚫고 폭약넣은 후 폭파

AFP통신, 작업에 동원된 포로 증언 공개

2001년 3월 13일, 미국 CNN방송을 시청하던 전 세계인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계 최대 석불인 바미안 대불이 아프가니스탄의 옛 탈레반 정권에 의해 폭파되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최근 바미안 대불 폭파 작업에 동원됐던 한 포로의 생생한 증언을 공개했다.

당시 집권 탈레반 세력에 저항하던 민병대 소속 전투원으로 탈레반에 붙잡혀 포로 신분으로 석불 파괴 작업에 동원됐던 미르자 후세인(40)에 따르면, 바미안 계곡 동·서 양쪽 절벽에 있던 두 대불의 파괴 작업은 무려 25일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서쪽대불(55m, 3~4세기)은 석불 위쪽의 동굴에서 늘어뜨린 밧줄을 타고 석불머리에 큰 드릴로 구멍을 뚫었으며,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 폭파했다. 또 동쪽 대불(36m, 5세기)은 수백개의 모래주머니를 이용, 폭탄을 석불의 몸에 둘러 터뜨려 파괴했다. 권형진 기자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한 아프카니스탄 옛 탈레반 정권에 의해 지난 2001년 3월12일에 파괴되고 있는 바미안 석불.

교과서 종교편향 백서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초중고 교과서의 내용 중 종교편향 부분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가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분석해 밝힌, 국어 교과서 등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백서는 불교 관련 기술상의 오류 및 교정 실수 25항목, 종교편향 7항목 등이 총 32항목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강유신 기자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등

대통령직 인수위에 결단 촉구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와 수락산 불암산 구간 공사 중지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성타)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현스님(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최주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조사위원회 불교측 총괄위원(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은 1월 30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를 방문, △관통노선 백지화 활동경과 △관통노선 문제점 △대안노선 예시안 △건의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중 4, 5, 6 공구 현 실시설계노선 백지화 △5, 6공구 공사 즉각 중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안노선 선정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속도로 공사지역 주민과 공사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5일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공사 백지화 및 중단'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삼국유사 국보보류 유감

권형진 (취재1부 기자)

"사람이 움직여야 하나, 유물을 옮겨야 하나?" 불상이나 불화, 서적 등 움직일 수 있는 동산문화재의 국보·보물 지정 심의를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국보 지정이 예고된 <삼국유사>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권1~5(보물 419-5호)가 운송 문제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규장각의 신경전으로 국보 지정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규장각이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버티자 문화재위원회는 현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 심의를 보류했다.

사실 <삼국유사> 건은 겉으로 불거진 사례일 뿐 이 같은 잡음의 가능성은 늘 있었다. 얼마 전 지방 모 사찰 소장 유물도 지방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현품을 제출하지 못해 심의가 보류됐다.

동산문화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 유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왔다. 문화재청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동산문화재는 위작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갖고 올 수 있는 유물은 직접 갖고 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원칙에는 대부분 동감한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중한 유물을 옮겨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도 있다. 전문가도 없이 소장자가 이송을 맡으면 유물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재위원 열 몇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존의 기본 원칙인데도 최고의 전문가들인 문화재위원들 스스로가 '편의' 때문에 그 '기본'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003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30%
개 호 복 지 사 과	2년	■ 주간 30명 ■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 교 학 과 (승 려 학 과)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 통신 80명		
	4년	■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4년	■ 주간 30명 ■ 야간 30명		
포 교 사 과 정	2년	■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방대) 분교 체결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합격
2002. 11. 종립삼화불교대로 확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의대) 본과 입학 가능
· 중국 남경효장대학(사범대학) 3년 편입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 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 376-1321,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종립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영문) ◇ 대학 졸업자 (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025-6798167 ·팩 스 : 025-6798168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 스 : 02-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 업 연 한	모 집 과 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 화 학 원 삼 화 불 교 대

"포교 확대로 밀교 대중화"

진각종 교학체계 심화 등 종무기조 발표

기획실 신설·중앙행정업무 교구청 이양

밀교 프로그램 개발·유적지 복원등 추진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이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으로 밀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꾀한다.

진각종 통리원은 "올해는 반세기의 종단사를 발판으로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회당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밀교를 중흥하고 민족과 인류의 복전이 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종무기조를 '포교전략 실천의 해'로 정하고, 진각시스템 및 네트워크 재구축, 교학·교법체계 심화, 전문적 포교영역 확대 등 3대 종무지표를 바탕으로 36개 주요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진각종 통리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기획실 설치 등 종무행정 조직 정비 △행정업무 전산화 △중앙행정업무의 교구청 이관을 통한 교구청 활성화 △도제양성 체계 확립 △포교 및 신행 시스템 구축 △종무원 특성화 및 전문화 △신교도 지도자 육성 △신행프로그램 개발 등 11개 사업을 펼쳐 나간다.

또 종조 법어집 발간, 종조 회당조사 사상의 연구를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 밀교대중화 프로그램 개발, 밀교유적지 복원, 밀교 학술활동 지원 등 교학 및 교법체계도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 포교영역 확대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포교 지원 확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포교 활성화, 위덕대 특성화대학 육성, NGO 활동 강화, 복지 기획사업 전개 등의 불사도 펼쳐 나간다. 특히 어린이·청소년·군포교 기반 조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 지원활동 강화, NGO 활동 강화, 위덕대 특성화대학 육성 등 종단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이 밖에도 종립학교와 종단간 네트워크 구성, 밀교신문사 확대, 문화출판사업 활성화, 심인인권위원회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진각종 통리원 호당 기획국장은 "종단 내적으로는 교학체계 확립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닦고, 외적으로는 다가서는 포교로 밀교 홍포와 종단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종조전 3월 착공, 연내 마무리

총지종, 총본산 건립 본격화…부지 마련 나서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종조 탄신 97주년을 맞아 올해 종조전 조성을 결의하는 등 총본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지종은 1월 16일 총지사에서 종조전 건립위원회와 전당 건설위원회를 열고, 종조전 조성은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결의했다. 종조전은 지난해 총본산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 수립된 이후 시작되는 첫 불사로, 서울 총지사내 2층에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조전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검토, 13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확정하는 한편 공개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총지종은 종조전 조성을 시작으로 총본산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 기금 조성 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총지종 종령 록정대정사는 "종조전 건립은 단순히 짓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종조님의 정신과 수행실천을 배우고 따르는 계기가 되도록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선각종 국제불교대 안거 입제

선각종 국제불교대학 학인 70여명은 1월 13일 보성 천봉선원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종단의 수행종풍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결제는 이달말 해제한다.

한편 종정 영담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암스님, 선원장 도륜스님, 국제불교대학 학장 다보스님 등이 참석한 입제식에서 영담스님은 "불철주야 용맹정진하여 종단의 수행종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불교의식에 담긴 원융·청규 조명

불교의식 다비작법편 출간 심상현 교수



"불교의식은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심오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불교의식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발전된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어요."

불교의식에 대한 연구와 집필을 하고 있는 동방불교대학 심상현 교수(52)가 <불교의식각론 Ⅶ·Ⅷ> 다비작법편을 출간했다. 2000년 5월 <불교의식각론 Ⅰ> 공양시의식편을 시작으로 일용의범, 상주권공 등 한국불교의식을 총정리하고 있는 심 교수의 여덟 번째 책이다.

"다비작법은 선과 교, 염불과 진언의 골수가 고루 들어있는 의문(儀文), 이를 장엄하게 실천으로 옮기는 위의(威儀)와 작법을 농축시킨 의식입니다."

심 교수는 의식을 '종교의 꽃'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한국의 불교의식은 교리 사상 문화 예술 역사 등이 내포되어 원융불교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살필 수 있는 요체라는 것이다. 또 의식 안에 청규를 용해시켜 일원화함으로써, 의식을 알면 청규를 익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은 한국불교의식 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의식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미를 모른 채 행해지고, 해설서 조차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심 교수는 지적한다. 불교의식을 제대로 정리해야겠다는 결심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현재 심 교수는 다비작법에 이어 영산재, 생전예수재, 수륙재 의식에 대한 집필을 시작했다. 분량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한국불교의식을 바르게 전하겠다는 각오다.

"의식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언제나 미완성이에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됩니다. 한국불교의식의 진면목을 찾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작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봉영 기자

게 시 판

구인

▲진각종은 교화직 종무원을 모집한다. 고교 이상 학력의 남자 만 20~30세, 여자 만 18~25세. 3월 31일까지. (02)913-0751~4

▲조계종 군불교위원회는 직원을 모집한다.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 inuk@buddhism.or.kr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언어치료사, 주간보호센터 담당자 및 운전기사 각 1명을 모집한다. 마감은 2월 14일. 문의 총무팀장 박근태. (054)633-6415

▲서울 자양동 효지어린이집은 교사 1명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은 보육교사 1급 및 유치원 2급 정교사. (02)2201-0558

▲김해 보현행원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를 구하고 있다. 마감은 20일. (055)3229-1733

모집

▲수원 서호노인복지관은 수영장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영장 개장 시간은 오전 7~오후 9시. (031)291-0911

▲서울 마포 광명의집과 인천 경로의집은 무의탁노인을 돌볼 자원봉사자를 찾고있다. 광명의집 (02)365-3677 경로의집 (032)761-3677

▲연꽃마을 간병인회에서는 간병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의 접수와 간병 봉사를 할 자원활동가를 찾고 있다. (02)363-7884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 지도자과정(3월 11일), 자원봉사 기본교육과정(2월 18일), 발반사요법 자원봉사자 교육과정(2월 26일)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02)734-0612

알림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4일 오전 10시 복지관 강당에서 대보름맞이 행사를 연다. 팀 대항 민속놀이, 퀴즈 등 레크리에이션 등 행사를 한다. (02)385-1351

▲터사랑은 22일 오전 8시 서울 안국역에서 석굴암과 불국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25-1284

인사

▲천태종 총무원은 1월 12일자로 각 말사 주지 인사를 단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호=인제 강화사 주지 △시용=구미 금룡사 주지, 구미장애인복지관 관장 △진강 경산 장업사, 동곡 청수사 주지 △마갈=문경 문장사 주지 △효성=양구 동강사 주지 △성도=철암포교당 주지 △자운=울진 봉화사 주지 △도봉=함백포교당 주지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조계종

신규 국제포교사 대만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신규 국제포교사 대만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대만 불광산사, 불광정사, 타이페이 도량, 자제공덕회, 수선사, 홍법원 등 불교성지 순례와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포교사 합격자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은 22~23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8회 포교사고시 최종합격자와 7회 합격유보자를 대상으로 연수 및 품수식을 갖는다. 이번 연수는 실무 강의 등 포교사로서 지녀야 할 품성과 의무, 팀 활동 안내, 향후 활동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포교사고시 합격자들은 인적사항 보고서와 팀활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2)720-7060

태고종

대전종무원사 건립 추진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종무원장 월해)은 1월 15일 보문불교포교원에서 교구 주지회의를 열고 종무원사 이전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선수금 1억원을 책정하는 한편 연내 착공 등 구체적인 설립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속 사찰에 대한 기부금 권선, 교구 방생법회·천도재 봉행 등 종무원사 설립기금 충당방안도 세워나가기로 했다.

새로 건립될 대전교구 종무원사는 대지 76평에 건평 100평 2층 조립식 패널조 건물로, 1층은 불교용품점과 요사, 2층은 법당과 사무실로 각각 사용된다.

천태종

교원불자 수련법회 열려

천태종 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가 1월 24~26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렸다. 각 사찰의 어린이회 지도교사 모임인 연리회 등 교원불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불교를 통한 행동장애 학생의 이해와 지도'를 주제로 예불, 강의, 주제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천태 교원불자들이 교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각종

종비·회당 장학생 선발

진각종은 위덕대 불교학과 전과정과 타학과 3학년 이상의 종도 가운데 종단 성직자로 활동할 종비 장학생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전과목 비플러스 이상이어야 하며, 각 학과장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비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학비·숙식비·교재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급받게 된다. 수행과 성적의 정도에 따라서는 박사과정까지 종단에서 지원한다.

진각종 회당장학회(이사장 최세정)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진각종 교도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본인이 직접 심인당에 출석하는 등 신행활동도 활발해야 한다. 기간은 19일까지. (02)913-0751~3

등 제작강습회·공모전

진각종은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총인원에서 제2회 등(燈) 제작강습회를 개최한다. 신교도들의 불교문화 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종단 문화영역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강습회에서는 잉어등·죽비등 등 장엄등 전반의 제작과정을 알려준다.

또 진각종은 등을 3월 25일까지 공모, 경연대회를 갖는다. 개인 또는 단체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등은 대량 제작해 연등축제 제등행진 때 단체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2)913-0751~4

총지종

역삼노인복지센터 재수탁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2005년까지 역삼노인복지센터 재위탁 운영자로 최근 선정됐다. 관할 관청인 서울 강남구청은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제출한 복지시설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역삼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평가받은 바 있다.

옥천범음대학 2003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 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50명
2학년	각배과	50명
3학년	영산과	50명
작법반	착복·바라	50명
이 론	불교의식각론	-

승려·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서류 (1)입학원서
(2)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증명사진 3매

2003년 2월 10일 - 3월 5일까지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2003년 3월 7일

2003년 3월 10일 오후2시(봉원사 설법전)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 2 0 - 1 5 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 392-3234
종 무 소 02) 392-3007-8
팩 스 02) 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학장 김 구해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살려주세요" 산과 스님의 절규 들리는가?

금정산·천성산 수호 지율스님 단식기도



◇'자연과 공생'이라는 화두를 든 지율 스님은 지난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금정·천성산 관통 반대일지

2002년 1월 21일	금정산 범어사 경내계곡 고속철도 관통반대 대책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
5월 23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 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1차토론회
7월 22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 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2차토론회
7월 24일	부산시청에서 내원사 선방 수녀, 신부님 등 동참한 삼보일배
7월 26일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천성산 · 금정산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부산 결의대회
9월 10일	국제신문 4층 문화센터에서 고속철도 노선변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시민공청회
10월 14~18일	지율스님과 내원사 스님, 분도수녀회 수녀 8명,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구간 도보순례
10월 21일	부산시청앞에서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길거리 작은음악회
10월 26일	부산시청 앞 대선후보 노선변경 공약촉구 대회 및 민주당 노무현 후보 간담회(여여선원)
11월 3일	양산~부산 간 자전거 투어
11월14일~12월 1일	제8차 람사회의 참가, 천성산 관통반대 및 산지습원 보전 홍보
11월 26일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 결의대회
12월 4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 관통반대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공약 발표
2003년 1월 11일	법기리, 임기리 일부구간 공사 강행, 시민종교대책위,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1월 28일	금정산 · 천성산 관통반대 1000인 서명운동 결산 천인선언 행사
1월 29일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 창립
2월 5일	지율스님 무기한 단식 돌입

"산이 아프면 우리도…공생만이 살길"

"산 살리기 위해 최악의 경우도 각오"

불자연대·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도 동참

"천성산을 수 없이 오르내리며 만났던 늪가의 작은 벌레들, 이름 모를 꽃들, 숲을 지키는 작은 새들과 노루를 향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입춘 다음날인 5일 오전 11시.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지율 스님은 부산시청 앞에 자리를 깔고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 실현을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성산을 오르내리며 직접 찍었던 천성산의 아름다운 꽃, 나무, 풀들이 스님을 지키는 호법신장처럼 스님의 곁을 지켰다. 산고양이에게 물려 죽을 상황에서 구해 냈다는 사진 속 어린 소쩍새의 눈망울이 유난히 초롱하다. 그 눈빛은 산고양이에게서 소쩍새를 구했듯 고속철 관통으로부터 천성산을 구하고 싶은 지율스님의 간절함을 닮았다.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사진전을 겸하고 있는 스님의 단식은, 스님이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천성산의 생명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지키는 데 마음의 에너지를 모아주길 소원하는 기도다.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천성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모일 때까지는 물 이외에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며 단식을 시작했지만 그 자세만큼은 면벽한 선승과 다르지 않다.

"도와달라"는 말. 요즘 스님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말 중의 하나다. 하지만 그것은 스님이 대신 전하는 금정산의 말이고 천성산의 절규다. 스님은 단식을 시작하며 "처음 고속철도가 천성산의 심장부를 관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산이 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산이 도와 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고, 도와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며 그 약속을 지키고자 단식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스님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천성산 구간의 발주 취소를 약속했음에도 한국고속철도공단의 천성산 발주(2월 6일)를 묵과하고 있다"며 "이를 묵과하는 일은 새로운 정부가 불교계와 국민을 향해 공약하고,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불교계와 한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현실을 지켜보면, 화엄성지인 천성산과 선찰대본산인 범어사를 품고 있는 금정산을 지키는 일은 불교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첫날, 시청 앞 광장에는 지율 스님의 뜻을 지지하는 불자들과 금정산 지킴이단 회원, 양산~부산간 자전거 투어에 함께 했던 사이클 동우회 회원들이 방문해 힘을 보탰다. 또한 지나던 시민들도 사진을 둘러보며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6시, 어둠이 짙어지자 스님의 단식은 통도사부산포교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졌다.

둘째 날인 6일. 오전 8시 통도사부산포교원을 출발, 부산시청에 도착한 스님은 부산시청 광장 앞에 도롱뇽, 장수풍뎅이, 소쩍새, 이름 모를 풀, 꽃 등 천성산의 작은 생명이 담긴 사진을 다시 배치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어 아침햇살을 받으며 300배 기도를 시작했다. 이날 기도에는 부산 녹색연합의 김은정 부장도 함께 했다. 출근길을 서두르던 사람들도 야외에서 오체투지를 올리는 스님의 기도와 천성산 사진들에 눈길을 주며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지율 스님의 단식은 단순히 천성산, 금정산 고속철 노선 백지화라는 가시적 목표에 한정된 게 아니다. 자연과의 공생(共生)만이 살길임을 일깨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산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고 밤을 새는 고심 끝에 만든 표어나 플래카드가 이런 스님의 마음을 대변한다. 스님은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반대를 위한 단식은 우리의 염원을 담은 반성과 성찰이며, 말없는 산에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처음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한 기도"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답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혜와 통찰로 풀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단식이라는 절박한 표현 방식을 선택한 스님이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영화제목처럼 천성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최악의 경우도 각오한다"고 털어놨다.

옆에서 스님을 지켜보던 청정화합시민연대 관계자는 "하루하루 야위어 가는 스님의 육신은 곧 천성산의 앞날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에 우리는 스님이 단식을 끝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 스스로 불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천성산, 금정산을 지키고 지율 스님을 지켜야 한다"며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지금 스님은 혼자 단식을 하고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그의 제자들, 전용호 씨를 비롯해 부산, 마산 · 창원, 울산 등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에서 스님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으며 신부님과 스님들도 격려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내원사 비구니 스님들과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연대에서도 날마다 스님을 찾아 2~3명씩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13일에는 지율 스님의 단식 농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병인 교수, 부산대 이성호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대구-부산간 노선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안, 천성산의 현황과 문제점, 지질, 지하수 영향, 생태적 가치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의 염원과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 천성산 관통이 백지화되고, 새로운 노선이 결정되기를 기원하며, 화엄성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나의 일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지율 스님의 눈길은 사진 속의 생명들에게로 향한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내원사 산감… '환경과 자연' 화두 삼아

지율스님은

지율스님은 산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원사 '산감'을 맡았다. 4년 전 천성산을 돌보는 산감 소임을 맡은 이후부터 천성산의 아름다움에 반해 내원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을 산감 소임에 추가시켰다. 그런데 양산시의 임도 개설이 진행되고 고속전철 관통으로 천성산이 몸살을 앓으면서 스님의 산감 역할은 아예 천성산을 지키는 일로 바뀌버렸다.

천성산과 천성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지키는 일은 스님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십 수년 전 내원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전국의 선방을 돌며 10년 가까운 시간을 선방 수좌로 지내왔다. 그런 스님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연'이라는 새로운 화두 참구는 선방 수좌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24시간 천성산만을 생각하며 보낸다. 오로지 산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배고픔도, 추워도 잊고 오늘도 스님은 부산시청앞에 앉아 산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지율스님이 찍은 천성산 생태계 사진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꽃·나무심기… 생태방생 큰 호응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은행나무심기 방생을 통해 생태방생을 실천하고 있다.

방생문화가 바뀌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부터 3월 삼짓날까지 방생법회를 열어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풀어주는 전통을 잇고 있다.

<범망경>에서는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을 행하라. 만약 세상 사람이 중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방편을 써서 구호해 괴로움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방생을 권장하고 있다. 자비와 참회, 윤회사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의례가 방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불교의 방생이 사회적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일이 잦아졌다. 생명을 살리는 방생이 아닌 행사를 위한 방생, 사찰의 재정을 충당하는 방생으로 전락한 데다가 무분별한 방생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방생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본격적인 방생법회 시기를 앞두고 방생문화의 실태와 대안을 살펴본다.

반생명(反生命)적 방생(放生)

근래 불교계 방생은 양식한 물고기를 야생에 풀어줌으로써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토종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외래어종을 무분별하게 풀어주는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2001년 서울시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한강변 방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붉은귀거북, 배스, 중국붕어, 떡붕어, 가물치 등을 놓아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가 붉은귀거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시시피강이 원산지인 붉은귀거북은 다른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고 배설물이 수질을 악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어종이다. 방생 시 선호하는 것은 값이 싸고, 생명력이 질기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 불교의 무분별한 방생은 생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 죽이기라는 비난은 물론 최악의 종교 상업주의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물고기에서 생태 · 인간 방생으로

이같은 비난은 결과적으로 방생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에서 구입한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는 획일적인 방생에서 점차 야생동물, 나무, 봉사활동, 장기기증 운동의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생태방생, 인간방생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변화의 시작은 서울 조계사, 도선사, 길상사, 대구 관음사 등 일부 사찰에서 비롯됐다. 조계사와 도선사는 2001년부터 양식한 물고기를 풀어주는 관행을 버리고, 야생 적응훈련을 마친 야생동물을 놓아주는 방생을 하고 있다. 길상사도 사찰 주변에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생태사찰 가꾸기 운동을 펼쳐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 관음사는 방생법회를 대신해 장기기증, 화장서약, 헌혈 행사를 열고, 복지시설인 연꽃마을에서 일일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방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불교환경단체들은 일부 사찰에서 시작된 모범적인 방생을 꼽으며 생명을 살리는 방생문화 정착을 강조해 왔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와, 은행나무 심기, 나무 보살피기 등 방생법회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람 방생을 실현하기 위한 '어진벗 봉사은행' 제도를 도입,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방생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성덕스님은 "생태적 방생은 모든 생명체의 안온과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 생명종(種)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방생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도 "무분별한 방생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간섭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커 불교계의 방생문화는 생태방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생태적인 방생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방생지침서>를 발간,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방생지침서>는 방생 금지종과 권장종을 지정하고, 방생의 시기, 개체 수, 장소를 고려해 방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바람직한 방생으로 사찰 생태기행, 사형제 폐지운동, 장기기증, 사후 화장서약, 헌혈 등을 꼽았다.

금지종	이 유
블루길(파랑볼우럭)	외래종, 생태계 교란, 고유어종 육식
배스	외래종, 생태계 교란, 고유어종 육식
이스라엘잉어(향어)	외래종, 생태계 교란
떡붕어	외래종, 외래종, 생태계 교란
나일틸라피아	외래종, 생태계 부적합
철갑상어	외래종
무지개송어	외래종, 생태계 교란, 변종 우려
칼납자루	특정지역에서만 서식, 생존율 낮음
버들개	특정하천에서만 서식, 생존율 낮음
자가사리(빠가사리)	2급수 어종, 특정 서식지 벗어나면 생존율 낮음
가시고기	동해안 서식, 남·서해안 생태계 교란
미꾸라지	변종 위험, 생존율 낮음
비단잉어	변종 위험, 생존율 낮음
금붕어	변종 위험, 생존율 낮음
붉은귀거북(청거북)	외래종, 생태계 교란, 고유어종 육식, 천적 없음

구태 여전…의식전환 시급

그러나 기존 방생문화의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사찰이 상당수 남아 있다. 구태의 방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찰에서는 양식 물고기 방생을 고집하고 있다. 사찰 재정 확보를 위해 물고기 방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찰도 많다. 전북의 모 사찰은 '최적의 방생지'를 자처하며 전국 사찰에 홍보문을 발송하는 등 방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맑고향기롭게 김자경 기획실장은 "무분별한 방생의 폐해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방생문화는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방생을 주관하는 스님들의 의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종단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생의 의미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정보 제공 등 친환경적인 생태방생을 권장하는 한편 행자, 승려연수에서의 방생관련 교육과 생태 · 사람 방생으로의 전환에 대한 홍보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화장서약 · 헌혈 · 장기기증 등 추진
인간 방생 '어진벗 봉사은행'도 선뵈
일부 사찰선 아직 물고기 방생 고집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영주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상처받고 소외된 장애아들 그들도 '우리'임을 알아야…

"아가씨, 자리 좀 바꿔 앉으세요."
"네?"
"이 아이랑 아가씨랑 자리 좀 바꿔 앉으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나와 함께 앉은 장애아동 옆에 있던 50대 아저씨의 말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미처 깨닫기 전,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 자리에서 다른 칸으로 가버렸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장애인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을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다만 비장애인은 그것을 모를 뿐이다.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 한 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다. 이 곳에서 청소년복지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꿈자람 교실'(정신지체장애아동 직업 전 재활교육 프로그램) 아동들과 보낸다.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쓰고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지만 수업을 할 때만큼은 정상적인 아동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장애아들과 지내온 지 4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면, 여전히 내가 장애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는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못난 곳 없이 예쁘기만 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첫 발을 딛기 전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상처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저민다. 아이들의 사연, 가족들의 입으로 소개할까 한다.

"어미는 집에 있는 돈 다 갖고 딴 놈이랑 도망갔지, 아비는 딸 죽고 나니까 직장도 안 가고 매일 술만 마시지, 나는 이렇게 아파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데 앞가림도 못하는 것 둘씩이나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었어. 하나는 그렇게 일찍 저 세상 보내고 하나 남았는데 더는 못 키우겠다. 딴 데로 고마 보낼끼다."

정신지체장애 1급 동민이(가명, 12). 2급 장애인인 여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 며칠 뒤 동민이 집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신세한탄을 했다. 작년만 해도 엄마와 여동생도 있었는데…. 결국 동민이는 올해 초 이곳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은 지친 부모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준다.

"소라는 혼자 집에만 있었어요. 말수도 적고 틀어박혀 지내기만 해 늘 걱정이었는데, 요새 들어 전화도 제법 잘 받고, 집에 오는 손님에게도 어눌하게나마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제는 소라가 집밖을 나서도 잘 다닐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았던 소라(가명 · 15). 어머니 오 씨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던 소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고 말한다.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보면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다만 어떤 부분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할 뿐이다. 그 결핍을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것 정도로 여길 수는 없을까? 장애인과 함께 모든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날까지 장애우들과 함께 숨쉴 것을 다짐해 본다.

禪 2003 학년도 禪
불교 茶人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 지도자과정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교 신입생 모집

학 과	요 일	기 간	개 설 과 목	비 고
기본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2시	2년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유럽차문화사 제다학(1), 제다학(2), 제다학(3), 제다학(4) 한국의헌다례, 각국헌다례, 다와정신, 다구학, 차와선 차도문헌, 차식물학, 차성분학, 차품평학, 차시장학	기본과정 50명 지도자 과정 50명
지도자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4시	2년		기본과정 이 수 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다도로 심신수행과 불교포교를 희망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3월 8일(토)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2003년 3월 11일(화) 오후 2시
기본과정, 지도자과정 이수 후 다도포교사, 법사 수여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茶 불교다도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茶道학교 道

2003 학년도
포교현장의 의식 법사양성[1년과정]
동산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개강일시 : 2003년 3월 8일(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 · · · · · 장엄염불	◇백일,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 · · · · · · 일반의식 ◇장례의식(2) · · · · · · 임종, 매장, 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의한 천도의식

모 집 인 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강의일시 및 장소	원서교부 · 접수	비 고
● 정규반 50명(1년) ● 연구반 30명(1년) ● 야간반 30명(1년)	● 한글불교 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3:00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야간반)	2003년 3월 8일(토)	● 연구반은 기본과정 이수자에 한함

2003년 3월 8일(토) 오후 1시 개강
일십만원
수료자는 동산불교의식법사 수여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불교의식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의식교육원



'다르마 법우회' '금강메아리' '풍경소리' 등

"이름만 봐도 단체특성 알죠"

업무 특성 살린 아이디어 각양각색
바라밀 특급 · 달리는 법당 등 애칭도

전국의 직장 · 직능불자회는 5백여 곳.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불자회에서부터 갓 태어난 새내기 불자회까지 다양한 면모를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자회의 이름 또한 평범한 것부터 눈길 끄는 이름, 거기에 더해 자의반 타의반 따라붙는 별명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직장불심'을 담아내기 위해 직장 · 직능불자회는 어떠한 이름을 달고 있는지, 그 유형들을 살펴본다.

●단체의 특징을 백분 살린다= 판 · 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예비법조인들의 마지막 배움터인 사법연수원 '다르마 법우회'. 이 단체는 '붓다의 법과 세속법, 이 두 개의 법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세속법(law)과 불법(Dharma)의 한글이 법(法)인 것에 착안한 절묘한 작명이라 할 만하다. 서울 조계사 및 노인복지센터에서 연 2회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르바법우회는 단체 특징을 담아낸 이름으로 내담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금강메아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서울불교산악회도 마찬가지다. 이름에서부터 산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또 지하철 문서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풍경소리는 철로를 달리는 지하철 소리를 풍경소리로 치환시킨 재치가 돋보인다. 이같이 단체특징을 살린 이름 짓기는 자연스런 단체 홍보는 물론, 신규회원 확보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직장은 소속 기관명으로, 직능은 불교용어로= 이름 짓기 유형은 근무 조건, 직업 특성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직장불자회의 경우, 소속 기관의 이름을 사용해 00시청 불자회, △△구청 불심회, ##은행 불교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능직 불자회의 경우는 일반적인 불교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무료진료활동을 벌이는 선재마을의료회, 무료 투약봉사를 펼치는 불자약사보리회, 불자 법조인 모임인 서초반야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직능직 불자회는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의 이름보다는 단체가 지향하는 이념을 표현한 불교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직장 · 직능불자회에서는 연등, 보련, 다보, 문수, 금강, 법우, 법륜, 법등, 감로 등의 불교용어들을 주로 쓰고 있다.

●따라붙는 별명이 더 유명= '바라밀 특급' 철도청불교단체신행협의회(이하 철불협),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한국운전사불자연합회, '어둠에 광명을' 전력인불자연합회 등은 고유 이름보다 따라붙는 별명이 더 유명하다. 특히 2000년에 창립한 철불협은 정찬연 사무국장이 처음 '바라밀 특급'이라는 애칭을 제안,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불교용어와 철도의 이미지를 합친 이 애칭은 '가장 빠르고 편안한 열차처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철불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운불련 또한 86년 창립 초부터 줄곧 '달리는 법당'이란 애칭으로 불자운전기사의 사명과 긍지를 표현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선재마을의료회

외국노동자 1만1천 · 노숙자 3천명 진료
올해 도솔암 · 청량사 · 불락사서 순회 진료

우리 불자회는 목탁을 치지 않습니다. 정기법회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진기와 주사기를 들고 진료봉사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료봉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봉사를 성불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우리들의 진료가 곧 법회요, 진료소는 수행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훌륭한 도량에서 우리는 오늘도 아픈 이들에게 모든 정성을 바칩니다.

선재마을의료회. 우리 불자회의 이름입니다. 창립은 99년 5월 부처님오신날에 했습니다. 그 해 봄, 온 나라는 IMF의 거센 물결로 깊은 나락으로 가라앉았던 시기였지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자 의료인들의 고민이 시작됐었죠. 긴 고민 끝에 몇몇 의사들이 뭉치게 됐습니다. 초대회장을 맡았던 내과전문의 강경수도 165회나 됩니다. 이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서울역 노숙자 진료소도 3천여 명 가까운 노숙자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전해 드렸지요. 이곳 이외에도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숙자 쉼터 화엄동산을 비롯해 김포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 같은 우리 의료회의 꾸준한 활동은 2000년부터 3년 연속 서울시정참여사업 민간단체로 선정되는가 하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자원봉사 단체상까지 수상했답니다.

하지만 선재마을의료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료회의 원은 원대하기 때문이죠. 전국의 모든 사찰에 무료진료소가



◇선재마을의료회가 지난 2일 서울 봉은사 내 '작은병원'에서 무료진료 접수를 받고 있다.

구 불자님을 비롯해 양재수, 김경현 불자님들이 주축이 돼 선재마을의료회의 문을 열게 됐지요. 지금은 의사 34명, 치과의사 27명, 간호사 44명, 한의사 2명, 일반 자원봉사자 등 총 120여명의 선재보살들이 자비인술을 펼치고 있답니다.

무료진료 봉사 활동은 2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창립부터 줄곧 매주 일요일 오전에 진료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 봉은사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 그리고 2001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울역 노숙자 진료소입니다. 올해 5년차 사업으로 들어간 봉은사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의 경우, 진료 환자 수만 1만 1천여 명이 넘었고, 진료회 들어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쉬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봉은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서울역에서는 노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 순회 진료 활동도 떠납니다. 2월에는 경북 성주 두메산골 도솔암을, 4월엔 경북 청량사를, 11월엔 구례 불락사를 찾아 자비인술을 펼칠 겁니다.

나눈 만큼 사랑도 커진다죠.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깨닫게 되는 말 입니다. 부처님의 이타행을 실천하는 참불자가 되도록 우리 의료회 식구들은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4-01-0085-071 예금주 여오숙)

■여오숙 간호사

상반기중 언론사 불자 파악

언론사 불자련 · 조계종 포교원 · 기획실 간담회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 이하 연합회)는 10일 서울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조계종 포교원과 총무원 기획실과 함께 신년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에 언론인불자 현황 파악 사업을 공동으로 착수하는 등 언론인 포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사 불자들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언론인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창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연합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경향신문 불교연구회 대표자들은 △회원 언론사 확대 △회원사별 간사 중심의 연합회 운영 등 연합회 출범 첫해 2대 사업기조를 설명하고, 종단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연합회의 사업계획과 관련, 언론인불자 현황 파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외에, 연간 또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정례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언론인 연수회의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하게 개발해, 신규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공불련, 22~23일 지회 총무단회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는 22~23일 이틀간 충북 충주 한전 수안보연수원에서 제1차 전국지회 총무단 회의를 개최한다. 공불련은 이날 회의에서 공불련의 사업계획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은행 서울 불자회, 법회 활성화 워크숍

우리은행 서울 불자회(회장 정진호)는 7~8일 1박2일간 경기도 남한강콘도에서 불자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회원 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 불자회는 법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불자교정인련 안양지회, 자광원 방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안양지회 안양교도소 성불회(회장 유성민)는 지난달 25일 성남 무의탁 치매노인 요양시설 자광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30여 명이 동참한 성불회 회원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단체장



이학주교법사 초청 법회

김주효 국립서울병원 불자회장은 10일 별관 소아청소년진료소 2층 종교활동실에서 명성여고 이학주 교법사 초청, 정오법회를 봉행했다.



'초발심자경문' 교리강좌

박우락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18일 오후 6시 서울 노원구 기원사에서 주지 상현 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듣는다.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정기총회

임갑수 대한중석초경 석불회장은 7일 대구 본사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02년도 사업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초심자에 '기초교리' 강좌

김종목 대전 유성구청 불자회장은 15일 오후 2시 유성구 구암사에서 주지 북천 스님으로부터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를 듣는다.

밝은 정성, 맑은 햇살로 빚은 금강경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 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주문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H · P 011-203-6567, 019-820-5587
메주1말 6kg 57,000원
포항 054)261-2231 / 서울 02)742-0172 / 부산 054)514-3566 /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 대전 042)862-8638 / 창원 055)299-5419 /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 광주 062)681-3268 / 강릉 033)642-0987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인도불교 · 중국불교 · 한국불교 · 불교개론 · 불교미술 · 선종사상 · 밀교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화엄사상 등 18과목	
한문학과	선가귀감 · 한문법(1) · 한문법(2) · 장자 · 주역 · 논어 · 금강경 · 법화경 · 화엄경	
불교미술학과	① 불화 1(단청), ② 선화(달마도) ③ 불화 2, ④ 불화 3(이론과 실기)	
우리춤학과	우리춤, 승무, 북과장단	이애주(서울대교수)
팔리어학과	팔리어문법 · 팔리어 강독	최종남(승가대교수)

불교학과

·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팔리어학과 (3월 7일 개강)

부처님 경전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 새로이 팔리어학과 문법 · 강독반을 개설합니다.
[팔리어(2003년도) → 티베트어(2004년도) → 산스크리트어(2005년도)]


최종남교수(승가대)

· 불교한문학과 (3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개강
· 팔리어학과 (3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개강
· 우리춤학과 (3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 개강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불교한문학과 (3월 6일 개강)

과 목	· 한문법(1), 한문법(2) · 장자, 주역, 논어 · 선가귀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교수진	· 김형중교법사, 심재동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 교수(승가대), 무진장 스님, 김병조 교수

불교미술학과 (3월 5일 개강)

이론편	· 불교미술사 · 고려불화, 조선불화 · 불화제작의 이론(단청,변상도)
실기편	· 사왕초, 보살초, 영산회상도, 변상도, 단청

우리춤학과 (3월 5일 개강)

지도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제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③ 작법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놀림) ④ 북과 장단기본(북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불교지도자과정 (3년)

2003 학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1)	박 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 · 팔리원전)	숫타니파타 1	전재성	숫타니파타, 아함경, 팔천송반야경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2시	능엄경 보경소(2)	송찬우	능엄경(1)(2)(3) (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4시	근본불교 (수행론 37조도품)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 금강경, 법화경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3년 2월 1일~ 2003년 2월 28일(금)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2003년 3월 3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3년 3월 6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 2003년 3월 4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특 전 졸업자는 법사자격 수여 [불교교육단체연합회 법사고시를 거쳐]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경전)대학원


◇석주스님


◇고송스님


◇지관스님


◇천운스님


◇성수스님


◇원명스님


◇무비스님

원로 큰스님들 奉恩寺 7일동안 감로설법

석주·고송·지관·천운·성수·원명·무비스님
15일~21일까지 오전 10시30분 법왕루서

불기 2547년을 '신앙회복 원년의 해'로 선포한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가 그 첫 발걸음으로 동안거 해제일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고승 대덕을 초청, 참다운 믿음, 참다운 신행, 참다운 원력의 법문을 듣는 '고승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법왕루에서 열리는 고승초청법회에서 법문하는 석주(봉은사 조실) 고송(파계사 조실)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천운(대흥사 조실) 성수(법수선원 조실) 원명(원로회의 부의장) 무비(교육원장) 큰스님은 수행과 포교에서 한국불교의 표상으로 존경받는 어른들이다. 이번 고승 대덕스님 초청 대법회는 새해 새롭게 신행의 기틀을 잡는 좋은 인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의 복판에 위치한 봉은사에서의 고승초청 대법회는 욕망에 쫓기고 허상에 얽매이는 현대를 사는 중생들에게는 달디 단 법우가 될 것이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올해 사부대중 모두가 청규를 생활화 할 것을 다짐했다"며 "15일 만인염불회를 결성해 기도도량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기간:2월15일~2월21일(7일간)
▣법사: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스님 여섯분, 무비스님(교육원장)

▣날짜별 법사

번호	날짜	요일	법 사	비 고
1	2.15	토	석주 큰스님(봉은사 조실)	10시 30분
2	2.16	일	고송 큰스님(파계사 조실)	10시 30분
3	2.17	월	지관 큰스님(가산불교문화원장)	10시 30분
4	2.18	화	천운 큰스님(대흥사 조실)	10시 30분
5	2.19	수	성수 큰스님(법수선원장)	10시 30분
6	3.20	목	원명 큰스님(원로회의 부의장)	10시 30분
7	2.21	금	무비 큰스님(교육원장)	10시 30분

어린이포교 선구적 실천

석주스님 2월15일(토요일)

"나고 죽음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입니다. 깨달음의 도리를 알려면 삼독심을 버려야 합니다."

소를 찾아 길을 들이고 난 뒤 저잣거리로 나와 역경 및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1923년에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6년동안 선학원에서 행자생활을 했고 범어사 강원에서 이력을 마쳤다. 상원사 한암스님 회상에서 안거를 든 이후 금강산 마하연, 금정선원 등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불국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2회) 은해사주지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동국역경원 이사장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등의 많은 소임을 거쳤다. 행정이면 행정, 수행이면 수행, 포교면 포교 다방면에서 조용히 그리고 빈틈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석주스님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은 어린이 포교와 역경사업이다. 그 분야에 대해선 선구적 역할을 했다.

망월사 30년 결사 동참

고송스님 2월16일(일요일)

"서두르지 말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망월사 30년 결사에 동참한 고송스님은 만나는 인연마다 공부길의 핵심을 짚어 준다. 1906년 10월 경북 영천에서 나신 스님은 1920년에 팔공산 파계사에서 상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이어서 1923년에 용성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25세가 되던 1930년부터는 15년 동안 금강산 일대에서 수행했고 망월사 30년 결사에도 동참했다. 1954년부터는 팔공산 파계사에 주석한다. 현존 최고령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기도 한 스님은 망월사 결사시, 장판 한 장에 두 명씩 앉고, 저녁을 먹지 않는 하루 두끼 중 아침은 죽, 점심만 밥을 먹는 가운데서도 정진을 느슨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불교 잡지를 만들던 만해 스님을 돕기도 했다. 지금껏 스님은 한번도 종단의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현재 스님은 파계사의 조실이다.

경·율·논 3장 달통

지관스님 2월17일(월요일)

"계율 지키는 삶이 부처님과의 약속이며, 불제자의 의무입니다.

지관스님은 항상 불자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좌표를 삼고 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지관스님은 15세에 해인사에서 율사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63년 마산대에서 종교학을 공부했으며, 76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강원 졸업이후 70년까지 해인사 강원 강주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70~72년, 93~96년 해인사 주지를 맡았다. 75~98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86~90년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이다. 지난 1월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불교대사림> 등의 간행외에도 <남북전육부율장비교연구> <비구니계율연구> <계율론> 등과 같은 율학관련 교재를 발간해, 율풍진작에도 힘썼다. 또한 1974년 펴낸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는 한국불교학 자료의 서지적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지 밝은 대강백

무비스님 2월21일(금요일)

"불교를 공부하는 일이나, 화엄경을 공부하는 일은 바닷 속에서 모래알을 세는 것처럼 늦지만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10여년간에 걸쳐 80권 화엄경을 완역, 민족사에서 전12권으로 펴낸 무비스님은 특유의 선적견지와 해박한 교리해설로 정평이 나있다. 스님은 항상 불자들에게 "사람이 부처님"이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부처와 부처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갈 때 일상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해소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1958년 덕진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5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월정사 탄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범어사 강원을 비롯해 제방 강원에서 강사와 강주를 지냈다. 1981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1997년 조계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과 1999년 조계종 승가고시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장이다.

호남불교 중흥의 기틀

천운스님 2월18일(화요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남의 고통 나몰라라 하니 세상 더 각박하지요. 있는대로 다 베풀면 또 채워지는 법입니다"

천운스님은 불교의 불모지인 호남지역에서 중흥의 기틀을 다져왔다. 스님은 호남에서 '처음'이란 단어와 익숙하다. '알고 가는 길' 이란 포교지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나누어준 것도 처음이고 찬불가를 보급하고 어린이 중고등학생법회, 수련회를 만든 것도 호남에서는 선두주자에 속한다. 그만큼 스님은 남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끄는 수행자다. 47년 월정사서 지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58년 선운사서 지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0년 선운사 도솔암 대교과를 수료하고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구례 화엄사, 해남 대둔사 주지를 역임했고, 지난 97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대흥사 조실이다.

대중 이끌며 선풍진작

성수스님 2월19일(수요일)

"생사관 알고 수행에 몰입해야 합니다. 밝음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철저한 믿음은 장애 없애줍니다"

'깨달음 향한 수행은 하심에서 시작된다'며 30~40명의 대중들과 함께 가행정진하는 성수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납자로 이름이 높다. 19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조계사 해인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세계불교도 대회에도 한국대표로 참석 세계불교 교류에도 공헌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경남 안의 황석산 황대선원의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도 겨우 냉기가 가실 정도의 서늘한 방에서 정진하는 성수스님. 스님이 선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절약이다.

대구불교 활성화 견인

원명스님 2월20일(목요일)

"집착 놓아버리면 절로 행복해집니다. 불법은 실천입니다. 내 마음의 깨끗함 그것이 진리의 고향입니다"

원명스님은 대구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왔다.

원명스님은 책상에 송곳을 꽂고 수행하던 은사 구산스님과 절구통 수좌로 유명한 효봉스님을 모셨다. 그런 만큼 수행에 있어서는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1943년 금릉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2년 대구 보현사 주지 1978년 중앙종회의원 1979년 순천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스님은 1981년 9교구 동화사 말사이외의 조계종 사찰들의 모임인 대구사원주지연합회를 창립하고,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을 설립, 1989년 불교대구교육원, 수성구청소년회관, 대구불교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광주사암연합회와 매년 지역화합법회를 열어 지역감정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2003학년도 상반기

봉은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요강

■강 좌 명 : 제39기 봉은불교대학, 제20기 봉은야간불교대학
■대 상 : 초심자 및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불자
■모집기간 : 2547년 1월 20일~3월 13일까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 강 : 불기 2547년 3월 5일 수요일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주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야간)
■수 강 료 : 120,000원(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 봉은사 포교실 (전화 516-5652)

봉 은 불 교 기 초 학 당

불교를 처음 접한 이나, 오랫동안 신행활동을 하였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강남제일도량 봉은사에서는 봉은불교기초학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봉은불교기초학당은 총 12회에 걸쳐 사찰예절, 불교기본교리, 불교의 가치관, 기도와 불공의식, 제사의식, 참선 및 수행론, 수계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2회 교육 / 로테이션 교육
■장 소 : 보우당
■대 상 : 새신자 및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
■문 의 : 봉은사 새신자상담실 (전화 516-5651)

大韓佛敎 曹溪宗 修道山 奉恩寺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b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지장사 법회안내
철야정진 : 매주토요일
밤 9시 ~ 새벽 4시까지
자장재일 : 매월(월)18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 매월 첫째일요일 오전 10시
인생상담 : 조금이나마 밝고 윤택한 삶에 보탬을 가져보자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2)981-8418
02)907-1643

동두천 흥륜사 법회안내
(오전10시30분)
매월 음력 초하루 초삼일까지 신중기도
매월 음력 16일 산신기도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
매월 음력 24일 관음 인등기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번지
031)862-8229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구담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무료소개
- 비구 · 비구니 부전스님
- 40~50대의 공양주 보살
- 남 · 여 출가 희망자 행자학습
-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무 량 사
02)537-9933
011)354-84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이천
031)641-6311

공부하면서 기도하실 비구 ·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2)408-1368

오래 계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마천동
02)408-1368

열심히 기도하시는 부전(비구)스님 모십니다.
▷ 경남 창원시 봉림동 대한불교 조계종 봉림산 봉림사
055)237-226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경북 경주
054)748-3530
011-744-16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의정부 원효사
02)873-6083
011)334-6083

사찰종무소 (女) 사무원 구함
▷ 운전면허 소지자 및 숙식가능자
대한불교 조계종 철마산 보각사
032)521-81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월 보시 80만원
052)245-5863

학승입니다.
기도 및 조용한 공부 할 수 있는 사찰 연락부탁드립니다.
011)9253-9119

(女) 종무원 구합니다
▷ 컴퓨터 업무 가능자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평생 함께 사실 비구 스님을 모십니다 행자도 모십니다.
▷ 천안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복지 불사에 뜻이있는 불자님이나 인연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에 경관 수려한 800평 터 있음
수련원 실버요양원
방생기도 도량 법회 최적
건축허가 유, 즉시 건축 가능함
017)692-09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5세미만, 월 80만원
054)533-2133
016-9245-115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절에서 평생 사실분 모십니다
연령 60-70세 사이
건강하신분을 모십니다.
02)577-0007
011-9864-1095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토굴입니다.
인연있으신 스님 모십니다. 보시에 대해서는 만나서 상의 드립니다.
019-552-84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상계동 불암산 정암사
011-254-30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60세 미만
041)856-7170
041)857-0621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신심돈독하고 오래 계실분
▷ 50세 이후
011-483-5639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용 암 사
▷ 서울 은평구 진과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부산 바닷가근교
011-860-4322

스님 모십니다.
수행과 사찰을 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 지역 : 충남 아산온천지역
011-701-0140

부전스님 모십니다
055)286-1779
기본 보시는 월80만원
능력에 따라 급여가 오를 수 있음.
1년 동안 부전으로 서로 뜻이 맞으면 사찰운영권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 50세 이하, 사찰규모가 큼. 창원오봉사

가족처럼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사무겸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서울 성북동 여래사
011-732-6933

한가족 같이 생활하며 기도하실노보살님 모십니다
▷ 충주 무량사
043)851-4879
017-766-8513

행 자 모 심
고졸이상, 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진학 보장
타종단 스님도 환영
02)917-3363

초하루 **관음재일**
천도재 · 염불스님
필요한 사찰을
연락주십시요
054)433-631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 45세 이상
011-517-6099

부전스님 모십니다
불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52-7905



부처님 삼존불 계십니다
인연있는 스님께 시주드립니다
055)973-7388

스님과 함께 하는 동양사상 2기생 모집
주역을 통한 한방역학 및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학대비 사상체질, 오행침법, 식이요법
(뜸, 부항, 침술, 민의학 강의)
길 없는 길의 비밀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던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 상승법"을 통해 열어 드립니다.
문의 031-256-5605 / 016-433-5605
심우선원 선불장

우울증 치료가능
031)765-0584
011-445-9126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일심사 甲寅山神大祭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납이 백두대간을 다스리는 서른세분 산신님을 봉안하고 癸未年 正月十日甲寅月甲寅日맞이 산신대제를 봉행하오니 산신님과 인연불자는 일심사 甲寅산신제에 동참하시어 새해에는 국운발전, 업장소멸, 만사형통 하시고 소원성취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2월 10일 (음 正月十日) 오전 10시
- 장소 :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1구 일심사 산신각
- 동참금 10만원을 입금하시고 016)289-1187로 연락주시면 기도동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466802-04-007694 / 예금주 : 정문식)

일심사 주지 설호 합장 Tel. 041)356-1187

공 고

· 이 름 : 박종한 · 법 명 : 보 덕
· 승적번호 : 99-021 · 주민등록번호 : 550126-1056316
상기자는 승려의 자질을 잃고 불가의 법통을 어지럽히어 본종 종법 제4장 제15조에 의거 체탈도첩되어 산문 출송된자로 공고함
2003년 1월 10일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현왕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041)541-3545, 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www.bongen.pe.kr / www.bongen.com.n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300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 모 오 재 택

육효강의
3개월 완성
051)638-0257
016-673-4345



군 포교 불사 후원
호국 법해사
지도법사 송정스님
파주시 문산읍 문산1리 10-33
031)445-0573
011-748-6452

산소법당에서 기도하세요
도심법당
산소피아가
山寺의 법당을 만들어 드립니다.
JM GLOBAL 홍보이사 김광현
02-771-1095 / 011-704-5195



승복가게 인수할 분 찾습니다
부산시내 최고요지
▷ 전세권리비품合5000만원
051)818-8063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2년 합본집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불교시사정보,
불교상식과 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행케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또한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 내 용 : 2002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1년치 (350호 ~ 401호)
- ◆ 판 형 : 신문 실제 판형 그대로 (40cm×55cm)
- ◆ 구입방법 : 전화 주문 / 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 가 격 : 60,000원 (정기독자 발송비 무료)
- ◆ 입금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245-25-0001-461
  우 리 082-03951-01-201
  농 협 053-01-236053
  우체국 010041-01-010042



■ 구입 및 문의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가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40평
- 부 지 : 1800평
- 가 액 : 13억

- 위치 : 서울
- 법 당 : 15평
- 요 사 : 20평
- 단독주택 (포교당)
- 가 액 : 1억1천(전세)

- 납골당 사업안내 -

서울근교사찰부지(3,500평)에 납골당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읍니다. (대리상담 거절)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중고차 · 가전품 기증 요망

새로 시작하는 강원도 원주 인근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중고차나 가전제품을 보시해주시면 포교와 불사를 위하여 큰 힘이 되겠습니다.

◎ 보시희망품목 : 승합차, 짚차, 소형트럭, 경운기, 대형냉장고, 세탁기, 기타

대한불교 조계종 반 야 사 서울연락처 02)971-2308

『신비의 경옥고』

▶ 수락산 암자에 정진중인 승려입니다.
스승께서 전수해 주신 경옥고를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경옥고의 효능 ※

★원기회복 ★수족저림완화 ★비염에 효능
★심한변비 효능 ★중풍예방 ★수명익수

● 중량 : ☞ 석달 분(용기포함 7.5kg) ● 가격 : ☞ 500,000만원
● H·P : ☞ 011-669-5708 / ☎ : ☞ 031)874-5700

구분	사 찰	암자 요양지	포 교 원	철 학 관
위치	충북 보은	용인 백암	안양시(구시청옆)	강남구 일원동
건물	대지 186평(실사용 1500),법당50평, 산신각 15평,요사 37평 창고 20평,밭,과수 多	대지 180평(실사용 240) 단층 슬라이브 30평(법당가능), 요사채 30평	안양시내중심상권으로 주상복합건물 18층 중 2층 코너임. 40평	일원동 최요지 중심상가 1층, 사무실 창고, 온돌방, 주방, 살림가
지형	대청호가 한눈에 보이는 빼어난 절경	정남향 배산임수 빼어난 경관	상업지역	APT, 주택밀집지
가액	2억 7천만원	1억 2천만원	9천 8백만원	1억 7천만원
특징	매매가의 70%까지 융자가능. 타부동산과 교환가			

좋은인연 대교(선릉역 4번출구) ☎02)555-0806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운명철학 · 건강상담

신경통, 중풍, 심장이 약하신 분, 고혈압, 당뇨, 몸이 매우 불편하신 불자님들을 위해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력으로 약손건강 비법 봉사해드립니다.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지원빌딩 202호
보 현 02)723-0384
약사암 016)246-0384

매월 18일 약사재일. 장애자, 불우이웃 대중 공양 손수합니다. 동참하실 분

절에서 평생 사실분 모십니다

- 시주금 오천만원(부부)
- 개인은 삼천만원
- 사망시 장사, 49제, 납골봉안
- 연중 제사(4번)등 일체 무료 봉행

031)989-7515
011)795-8576

포교당(급)안내

- 서울 장안평 압구정동 10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약 60평 생활하시기 매우 편리
- 보증금 : 1500만원 월110만원 권리금 : 1500만원
- 본인 사찰 완공 이사

02)2247-1416
017)253-6892

심야전기 온돌

▶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남 지리산소재
- 부지 : 5000평
- 토굴 : 3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청정지역의 토굴로 사찰허가가능 아주 좋은절터임

- 위치 : 경북 상주군소재
- 부지 : 10,000평
- 법당 : 30평(임법당)
- 가액 : 3억5천만원
- 특징 : 토목,조경공사가 완료된 절토로써대작불사 및 불교돕기 재단 설립을 원하시는 스님께좋습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 진 불 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105번 종점(바닷가)
- 대지 507평
- 요사채 36평
- 대웅전 28평
- 가액 : 2억 8천

011)795-1420
011)609-1106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
- 법당 20평
- 요사 20평
- 대지 120평
- 가액 5300만원

054)534-786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직동 운동장옆
- 4층건물 4층 기존시설 장엄함
- 전세 3천 월 15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 주지스님 급한사정으로 양도함

051)502-5950

사찰 안내

- 위치 : 김포
- 법당 : 32평
- 요사 : 20평
- 부지 : 4200평
- 가액 : 12억 5천

018)244-8238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 480-4848, 031) 417-4848
팩 스 : 031) 480-854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 약 4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2억
- ※ 금정산 500m지점
- ※ 기도처 수행처 적격

- 위치 : 사천
- 대지 : 약 6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6평
- 가액 : 3억 2천
- ※ 사천읍에서 5분
- ※ 마음 앞산에 위치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춘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 시설 : 삼존불 (용신, 산신, 독성불)
- 부대시설(현장방문)
- 가액 : 5천만원

011)541-998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시청 정문 앞 4층
- 법당 : 총 42평(방2,주방,다용도실)
- 청동,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인등단 모셔져 있음)
- 가액 :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349-1586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부근
- 2층건문 45평, 법당20평, 방2개, 거실, 주방, 샤워실
- 화장실은 별도로 있음
- 도로변 근접한 최적지
- 가액 : 전세 5000만원 시설비2000만원

032)517-3001
011)9020-6037

역학 수강생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영남대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 신입생 모집 -
정규반, 통신반(TAPE), 인터넷반
누구나, 선착순 5천명(역사와 전통)
주 · 야 4개반 - 3월 11일 개강,
주 1회 강의(053-474-8228)
▶ 행자모집 -
3월초까지 입방해야 가을 수계함

1. 행자교육 전문도량 -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시내 또는 김포분원의 산중 사찰에서 기거할 수 있음
2. 엘리트 스님 양성 목표 - 현재 20명 배출, 수행 중
3.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4. 수계 후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행자원 문의 : 011-9852-0075(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군위면 효령면 소재지 부근
- 부지 : 570평, 법당 : 25평 요사채 : 25평
- 특징 : 국도에서 도보 15분거리 대구서 차로 40분거리
- 가액 : 1억원(답사 후 절충가능) 토지나 주택 부동산과 교환가능

011)9370-4969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부항면 마을종점
- 대지 : 370평 목조 인법당
- 건물 : 2동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훤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렸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1억은 1년뒤에 지급해도됨)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포교원(특혜)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중심지역 포교원 법당 최고 시설
- 본 사찰에서 수개월 수행하면서 인수하실 참신한 스님을 원합니다.
- 대구시내 포교에 자신있는 스님을 원합니다.

011)9343-0780

사 찰 안 내

- 대지 470평
- 대웅전 42평(목조기와)
- 칠성각 20평(목조기와)
- 산신각15평(목조기와)
- 요사채(슬라브) 25평 큰방 3개(거실) 주방
- 가액 3억 5천(절충가능)

※ 여수시내로 2차선 도로 절입구까지 연결

- 전남 여수시 동산동 553-1 보광사

011)254-3037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깨끗하게
法輪大法(파룬궁)무료전수 안내

- 물질적 삶에는 풍요롭고 충족한 것 같지만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날로 타락과 지쳐가고 있습니다.
- 온갖 공해와 오염된 물질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당신에게 파룬궁은 아무런 댓가없이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문의 019-201-9532 http://www.falundafa.or.kr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 평수 : 700평, 대웅전 : 15평
- 요사채 : 30평, 산신각
- 특징 : 연못, 바로 앞에 있고 주차 마당 앞까지 진입가능
- 가액 : 전세 3000만원

011)687-403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마산에서 통영중간 지점
- 부지 : 600평, 법당 : 30평 삼포 목재 단청된 30년 전통사찰 산신, 용왕각
- 부대시설 : 요사채 50평
- 특징 : 노송이 어울려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 인접하며, 절 뒤에서 보면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2억 3천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011)9384-78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 법당 : 10평
- 요사 : 20평
- 특징 : 마을뒤에 위치한 도량. 포교당으로 적합 교통, 주차편리
- 가액 : 1억

011)879-4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시장입구
- 구조 : 1층 사무실, 2층 법당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 500만원(절충가능)

※ 신축사찰에서 출가나 수행할 사부대중 모십니다.

0505)242-2404

역학 수강생모집

수강과목 1. 역 학 : 사주, 신수, 궁합, 택일, 건강
2. 성명학 : (작명, 성명감정)

◆ 기 간 : 수시모집
◆ 강 사 : D대학 교수가 직접 친절하게지도 합니다.
◆ 교통편 : 서울 영등포로타리(지하철 1,5호선 3분거리)

성일철학 02-2637-6483 / 02-2637-5266
연구학회 011-9093-5206

개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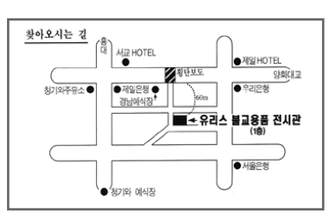
◈ 유리스에는 불사에 관련된 일체 모든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귀의삼보 하옵고
제방의 대덕 스님과 선연 신도님께 삼가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시방제국토의 장엄과 무진정법의 외호에 일신의 원력을 세우고 불사일념 해 온 소생이 금번 홍대전철역 인근에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을 개원했습니다. 각종 불사의 상담에서 회향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고자 하오니 두루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2003년 2월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대표 이 효 실



불사 탱화
법당조성 유기
서적 조상
테이프 무용도구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전화 : 02-336-2165 팩스 : 02-336-216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 삼정빌딩 1층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전철역에서 3분거리, 최요지
- 건평 : 약 25평
- 법당, 방, 주방, 세면실, 화장실
- 가액 : 모두 천만원 월 30만원(선착순)

011)866-7372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사찰 안내

- 산신각 5평, 법당 26평 요사채 28평 삼존불, 조립식 건물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부근
- 가액 : 5천 5백만원 전세 3천 5백만원 월세 보증금 700만원 35만원
- 시설비포함, 몸만오시면 됨 바로 법회 가능

019)335-0821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하동읍 근교 지리산 정기를 받아 물 전망 및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260평 건평 32평
- 가액 : 1억 5천 (절충가능)

011)9535-4811

사주명리학 배우실 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기타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개 강 2월 17일부터 수료후 자신있게 감명할 수있는 충분한 자료 제공
수강료 수강료 월 15만원

한국명리교육원 02)336-8484

암자 토굴 별장

- 위치 : 대구 포항간 산업도로 영천 IC에서 신령 안동방면 900m (영천시내 인접)
- 산수수려, 주차공간 넓어 투자가치 최고임
- 건물 : 철골 조적1,2층(2층 원룸) 양옥 68평
- 가액 : 1억 3천 (가격절충)

054)337-3996
011)529-3996

포교당(급)안내

- 부산 모든 공공기관 밀집지역이며 도심 속 포교당으로 최고 위치
- 10년간 운영, 역학 철학에도 적지
- 스님급한 사정상 양도하오니 하실 분만 연락 바람
- 평수 : 25평(배란다 옥상 사용 가능)
- 가액 : 전세 + 권리금 1300만원

055)883-1484
011)550-4425

사 찰 안 내

- 위 치 : 가평
- 부 지 : 1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 8천
- 위 치 : 포천
- 부 지 : 300평
- 법 당 : 7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억 1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목어 주머니가 필요없는 옷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

고종목이란 시인이 있다. 평생 옷 짓는 것을 업으로 했던 시인이다. 바느질을 하다 시 한 수를 읊었다. 배냇 저고리와 수의란 시인데 이렇다.

"배냇 저고리엔 주머니가 없다/수의에도 주머니가 없다/주머니가 왜 있어야 하는지…/그 쓰임새도 모른다/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부끄러움도 모른다/배냇 저고리는 제 손으로 입을 줄 모른다/수의도 제 손으로 입을 수가 없다/양쪽 손들이 다 비어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머니가 없다는 뜻인데, 태어남과 죽음 또한 자의적인 소망이나 욕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과 일치한다. 이에 비해 살아서 자의적으로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스님네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속세의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 챙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쳐서 패가망신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의 삶이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목숨을 걸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속세의 일은 속인들의 일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더러는 스님네들의 주머니도 심심찮게 말썽을 일으키니 안쓰럽다. 스님들은 청빈한 수도자의 자세로 속인들을 교화해야 한다. 스님들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부처님과 만난다는 사실을 통찰한다면 주머니가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하는 해답은 명료해진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좀 넓게 살피고 깊게 살펴 주머니가 없거나 투명한 주머니를 차는 스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욕망을 채우는 주머니는 승과 속을 가릴 것 없이 추한 것이다.

통허 스님의 이웃돕기 '사경전'

세계불교미술대전에서 특선까지 했던 대구 보현사의 통허 스님이 12일까지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사경전'을 연다. 홈페이지(sunnyum.or.kr)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쓸 예정이다. 스님은 맹인들을 11년간 보살펴 왔고 뇌성마비 장애인 40여 명을 돌보기도 했다. 3년 동안 보현사에서 매일 점심때 400여 명이나 되는 노숙자들에게 끼니를 제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장군죽비

군불교위원회 비정규직 일방적 해고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해 말 포교사단 직원 4명을 권고사직 시킨 데 이어 이번엔 군불교위원회 실무자에게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씁쓰레하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도 '신심' 하나로 일해 온 이들이다.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불교계에서조차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불자 세상보기



구승회 교수
동국대 · 윤리학

술에 찔어 병든 사회

얼마 전 친구 둘과 유럽 여행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친구들은 보세구역으로 들어서자마자 면세점으로 가서 조니 워커 블루 세병을 샀다.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술 박스에 큰 병 하나와 작은 병 하나가 들어 있어서 모두 여섯 병이 되었다.

독일 공항에서는 1인당 한 병씩만 소지할 수 있다는 나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속아, '뱃속에 넣어가지고 가는데 시비 걸지는 않겠지!'라며 우리는 기내에서 작은 3병을 모두 마셔 버렸다. 술을 싫어하고 많이 못 마시는 나로서는 짧은 시간에 독한 술을 세 병씩이나 마셔야 하는 강제된 행운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술꾼이 아닐지라도 위스키가 취하도록 마시거나 벌컥벌컥 마시는 술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귀국길에 인천공항 세관에서 발생했다. 조니워커 블루 2병을 들고 나가던 친구가 세관원에게 호출되어 수십만 원의 세금을 물었던 것이다. 물론 술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고급 물건을 많이 사온 탓이 컸지만 즐거워야 할 여행이 그 일 때문에 아주 불쾌하게 끝나고 말았다.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건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계산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근까지 술 소비량 세계 2위라는 통계가 유력하다. 작년 한해 우리 나라에서 500ml짜리 위스키 약 5400만병이 팔렸으며, '발렌타인' 17년산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35.7%를 한국 사람들이 마셔버렸다고 한다. 어린애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일년에 위스키 한 병 이상 마신 셈이다. 소주, 맥주 등을 포함시킬 경우 국민 한사람이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신 꼴이라는 국세청 통계가 있다. 어린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술을 못 마시는 노약자를 제외하면 건강한 한국인은 일년 내내 술에 절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MF 금융위기 같은 국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은 약한 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서'가 아니라, 독한 술 위스키에 취해서 저지른 일인지도 모른다.

작년 말에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한국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세계 위스키 시장 새로운 희망"이라는 기사를 내 보낸 적이 있다. 기사는 한국 사람들이 위스키를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위스키 시장의 봉'이라는 뉘앙스로 일관했다. 관광 시장에서도 한국 관광객은 봉이다. 해외의 명품 시장은 언제나 한국인들로 붐빈다.

학문 시장도 마찬가지다. 구미의 학자들 사이에는 한국이 물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을이면 이런 저런 학회와 단체들이, 학문적 명성에 상관없이 아무나 불러들이고 엄청난 강연료를 지불한다. 그리고는 본전을 뽑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주최자나 초청기관의 홍보성 과시용으로 전용된다. 주최측의 권력이 클수록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위스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시기 위해 위스키를 사지 않는다. 인사하고 과시하고 김광규의 시 구절처럼 "적잖은 술과 안주를 남긴 채, 서로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지"는, 그냥 얼굴 한번 보는 자리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스키를 산다. 권력이 큰 집단의 모임일수록 비싼 위스키가 많이 남는다.

조니워커 블루가 그렇게 좋은 술 인줄도 모르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그 술 두 병을 조카에게 그냥 줘 버렸다. 그 피 같은 술을 말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문화유산 관리 정책 토론 지상중계

"'광의의 문화유산'으로 개념 확대해야"

문화 NGO 단체인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문화유산위원회(위원장 강찬석)는 7일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개혁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김정동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문화재 전문가 11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문화연대 측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가 박물관,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두드러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밝혔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통합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가 전체의 문화유산 정책 차원에서 포괄적,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화재에 대한 정책의 흐름이 발견에서 활용까지 연속되며 상호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장호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역시 "중앙정부 조직을 국가유산 총괄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의 계승, 창조, 활용이 문화부의 예술, 문화산업, 관광정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데 이러한 연계가 약화된 측면은 없는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최종호 한국박물관학회 사무국장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정체성은 문화재청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는 안 된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데, 박물관은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조직을 개편하고 정부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며 통합을 반대했다.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도 "한 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은 독립기관화, 위상강화가 국제적 추세"라며 이를 거들었다.

정종수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은 "문화재청은 보존 ·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정책 행정기관이고 자체 사업보다 보조금 · 지원금 위주의 문화재 보호 정책이 강하다"며 "보조금 · 지원금 위주의 문화재 보호 정책 경향 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박물관 고유 기능은 물론 생산력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황기원 국제기념물및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각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 개념의 재정립 기조 발제를 맡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라는 용어는 단순히 재산가치가 있는 재물을 말하는 편협한 용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토론에서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문화팀장 역시 "고고 미술사적 측면의 협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인류학, 환경학, 인문사회적 접근으로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통합문제 이견대립
전문인력 확보 · 공조 네트워크 구축 필요

이춘근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장은 "일본에서 전래된 그대로 '선조들이 남긴 유 · 무형의 유산'을 '문화재'라 명명함으로써 용어상으로 재화적 가치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며 "정신적 · 전승적 가치까지도 포괄하는 '유산' 개념을 도입해 '광의의 문화유산'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임승빈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네트워킹을 통한 각급 문화재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하나의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보다는 각각의 조직의 장점을 살린 네트워킹 구조 형태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근 문화재기획과장은 "정부 각 기관은 물론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공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건 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과 관련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전문인력에 의한 문화재 정책이 수립, 진행되는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호수 문화재전문위원은 "공무원 직제에 '문화재직' 신설을 검토하는 등 문화재 행정 전문가 양성과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문화 NGO단체인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는 7일 '국가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활인천역자(活人天役者)의 오행(五行) 능력을 단번에 고차원으로 인도하는 육임서(六壬書)안내

- 사주(四柱) 10년을 공부해도 육임(六壬)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값2,500,000원 부록 · 비디오 全12권

활인천역자의 필수서! 귀신 · 산소탈 · 부정빌미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그 해소 법이 구체적으로 체출되어 있는 비기서! 이 책은 3년간 정확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책은 공부않고 볼 수있고 시간만봐서 말하는 책입니다. 넉넉한 살림이 들어있습니다.

육임신수비결 값250,000원 全753페이지

아주 쉽게보아, 큰행사에나 참례하는 잠자는 많은 신도들을 1년내내 깨어있게 할 수 있는 정확한 비서! 정초에 보아, 신도카드에 붙여두고 개개인의 월별 길흉에 따라 직분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서! 이책에도 살림살이가 들어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값300,000원 全1663페이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각 주요도시에 설치한 「육임학당」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육임공부의 정통서! 쉽고, 체계적으로 되어있어 독학할 수 있도록 된 보고장서! 특히 「형이상법(形而上法)」편이 백미입니다.

육임비디오강의 값900,000원 全28개

「육임학당효사숙」 제1기 강의가 편집없이 그대로 수록된 육임 이정표! 「육임강의록」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희귀품!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CD 값2,000,000원 全1개

이 책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효사육임인터넷강의 값1,500,000원 총112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육임 공부가 될수있게 하였습니다. 활인천역자의 가장 값진 투자가 될것입니다.

「육임학당 효사숙」강의안내

3개월 52시간 수강으로 육임비술을 자신있게 펼칠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1백5십만원이며 「효사육임강의록」 교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기적으로 강의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주문,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도서출판 복문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2004

경주시, 산불전문진화대 조직

남산 불교문화재 등 훼손 방지

경주시는 최근 경주 남산 등지에 산재한 문화재가 산불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불전문진화대를 조직했다.

경주시는 11일부터 5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농촌 유휴인력을 활용한 산불진화대원 2개팀 24명을 선발, 운영에 들어갔다. 진화대원들에게는 시가 일정액의 경비를 지급한다.

산불전문진화대는 평상시에는 시청에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초동진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재 및 산림피해를 막는 산불 진화활동과 예방 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지역의 산지 대부분에는 수많은 불교사찰이나 유적 등이 산재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산불전문 진화대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울산 정토사, 선지식 설법회 열어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4~5일 정토사 삼천불전에서 법륜스님, 묘허스님 초청 선지식 설법회를 봉행했다.

4일 '올바른 기도법'이란 주제로 사단법인 좋은 벗들 이사장인 법륜스님의 설법회에 이어 5일에는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과 김해 원명사 회주 묘허스님 설법회가 열렸다.

선지식 설법회를 마련한 덕진스님은 "선지식들의 법문을 듣고 불법을 공부하는 일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얻어 그 은혜를 세상을 위해 두루 쓰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며 법회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울산 유일의 조계종신도전문교육기관인 정토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 정토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삼천불전 3천배 참회기도 법회를 봉행하며, 21일 정토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한다. 천미희 기자

비슬산 관통도로 불교계 등 반발

대구 달성군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슬산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과 함께 유가사와 용연사 일대 공원집단시설지구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의 불교계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달성군은 최근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내세워 화원면 본리리에 80핵타르 규모의 자연휴양림 조성, 가창 정대리에서 옥포 용연사간 6.5km 왕복 2차로 도로개설, 유가사와 용연사 일대 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 등 비슬산 개발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구 불교계 한 관계자는 "비슬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는 등 각종 무분별한 개발로 결국에는 비슬산이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라며 "일선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좀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입안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중학생이 만든 불교연극 '님의 침묵' 무대 오른다

부산 금정중 연극영상반 '해오름' 작품



◇금정중 연극영상반 학생들이 27일 공연을 앞두고 한용운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님의 침묵'을 연습하고 있다.

만해스님의 구도과정 · 항일 내용
남녀학생 20명 출연 … 2시간 공연

"진정한 보살의 길은 무엇입니까?"

"보살의 되려거든 중생을 자식같이 여겨라. 크게 사랑하고 크게 버릴지어다."

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에서 조계종립 금정중학교(교장 유기윤) 연극영상반 '해오름'(지도교사 이석언 교법사) 학생들이 마치 법문 같은 대사를 외며 연극 연습에 한창이었다. 불교연극 '님의 침묵'은 해오름 제2회 정기공연작으로 이석언(42) 교법사가 뮤지컬 '님의 침묵'을 토대로 대본을 썼다.

한용운 스님의 일대기를 구도여정과 3.1운동 중심으로 그린 이 작품은 파라미타, 불교 보이스카웃인 범어수효반 등의 학생 18명과 여자 역할을 위해 이지륜 과학 교사, 대진정보통신고 이주연 학생 등 모두 20명이 출연하며 공연시간만 2시간을 넘는 대작이다.

12월부터 방과후를 이용해 시작된 연극 연습은 방학인 요즘은 하루종일 이어진다. 6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까지 난방도 안 되는 소극장에서 연습이 계속됐다. 대사 외우기가 끝나 지금은 감정과 인물 성격 표현에 주력하고 있다.

만해 스님역의 태호는 "친구들과 함께 1919년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만해스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 너무 뜻깊은 시간이다."며 연극의 즐거움을 말했다. 또한 연곡대사를 맡은 오모택 학생은 "법문을 주고받는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사도 많지만 민족을 위해 살다 가신 만해스님의 삶을 몸으로 느끼고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택이는 이번에 국제영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기쁨도 누렸다. 옆에 있던 영하와 영철이도 말을 거든다. "연극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모르고 있던 불교나 바르게 사는 법, 나라를 위하는 큰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 창단한 '해오름'은 교육청 주최의 각종 연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지난해 제작된 영화 <몽정기>에 출연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경주불교학생회 출신으로 이미 고등학교 때 <감로수>라는 불교연극 연출했고, 교사 극단 '조명이 있는 교실' 창단 멤버이기도 한 이석언 교법사의 오랜 연극 경륜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이 밖에도 일체의 무대 장치를 제작해 주는 신도현 거사와 김성득 미술교사를 비롯 범어사, 맑고 향기롭게 등의 재정지원이 한데 어우러져 탄생한 '님의 침묵'은 27일 오후 3시는 학생들에게, 6시 30분은 일반에게 무료로 공연된다.

이석언 교법사는 "앞으로 성철스님, 동산스님 등 고승 대덕의 삶과 가르침을 소재로 한 청소년 불교연극 대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첫 사찰 교향악단 탄생

영남불교대 18일 창단식 … 합창단과 협연

불교계에서 최초로 사찰 교향악단이 창단한다.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18일 대법당에서 불교교향악단을 창단한다. 이날 창단식을 겸한 공연에서는 영남불교대합창단과 '관세음보살 찬가'를 협연한다.

영남불교대학은 교향악단 창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지역의 불자 음악인들을 섭외하는 등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현재 35명의 단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지역 불교계 음악인들로 구성된 교향악단 임원에는 영남불교대 학장 우학스님이 이사장을, 단장에는 찬불가 작곡가 이달철씨, 감독에는 이상대 경북도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실무책임에는 강주현 황해사 불교합창단 지휘자가 선임됐다.

영남불교대 복지관 지하공간에 사무실겸 연습실을 마련한 교향악단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연습을 통해, 각종 불교계 행사 등 연 10여회 이상의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이달철 교향악단 단장은 "교향악단이 만들어진 만큼 완성도 높은 장작곡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적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향악단이 필수적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 교향악단은 첫 공연으로 4월 9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영남불교대학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협연하는 교성곡(cantata)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노래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이달철 작사/우학스님 작곡)을 노래로 표현한 작품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시간만 50분 정도 소요되는 대곡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범어사 · 불국사 문화관광 중심지로

문화재 복원 · 대형주차장 확보

금정산성과 범어사 일대의 문화재가 복원되고 시민 편의시설도 대폭 정비될 예정이어서 부산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정구청은 올해 '금정산과 범어사 일대 종합 정비 · 복원 계획'을 수립해 문화재를 복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민편의시설을 대폭 정비한다. 구청은 효율적인 성곽 관리와 보수유지를 위해 90% 이상이 사유지인 금정산성 주변 땅을 매입키로 했다. 범어사 말사인 정수암 요사채와 국청사 일주문 등도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개축되고, 경내 화장실과 하수시설, 주차장 등도 7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 대폭 정비된다.

이 밖에도 구는 범어사와 '불교문화축제'를 신설, 승무와 미술전 다도시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편 경주 불국사 주변 주차장 공사도 상반기 중 착공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150억 원의 민자를 유치, 차량 12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 건립공사를 오는 2004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천미희 · 박원구 기자

부처님오신날 연꽃 볼수 있게 된다

경북농업기술원, 조기개화기술 개발나서

앞으로 여름에만 피는 것으로 알려진 연꽃을 초봄인 부처님오신날에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부처님오신날 전후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연꽃 조기개화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의 연꽃은 7~9월에 피어나고, 분화가 3일 정도로 매우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부처님 오신날 등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상품으로 선보일 수가 없어 연꽃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은 2005년까지 3년여에 걸쳐 연꽃의 계통, 재배조건, 생리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꽃 조기개화 기술개발과 연꽃 분화생산 재배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영남불교대 교향악단 단원들이 5일 영남불교복지관 연습실에서 첫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고교 · 대학생에 장학금

불교TV 염불공양 모임

불교TV 염불공양모임(회장 하성심행)은 6일 사무실에서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 불교TV 회장 태응스님, 하성심행 회장을 비롯 회원 1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하효련(부산대 재학) 학생을 비롯, 8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총 4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태응스님은 '참 불자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바른 법을 사회에 널리 펼치기 위한 것이니 보시를 행하며 진정한 불제자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가시오가피하면, 함박재

함박재를 꼭 확인하세요!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함박재농장에서 20년간 재배한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 사용!

▶10만평의 대규모 직영 농장
▶충남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한국표준 협회 으뜸상품으로 선정



■ 국제 생약학계의 권위자 독일 바그너(H.Wagner)박사도 격찬한
"함박재 가시오가피"
(2002.7.24 함박재농장방문)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자료신청 : (02)2272-4900

기적의 솔잎기름(송엽유)

송엽유 97% / 천연토코페롤 3%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솔잎기름!
건강의 역사를 바꿔보자

赤松송적원

특허출원 40-2000-0059718
상품출원 4-2000-043911-1
가격 : 275,000(2개월분) 카드할부 가능

기적의 솔잎

옛부터 민간식이요법 차원에서 식용되어 왔고 또한 학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연구 검토된 바 솔잎은 피를 맑게 하고 젊음을 유지시켜주며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녹여 노폐물을 제거시키므로 몸이 가볍게 되고 인체의 기를 충만하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고 혈색이 좋아지며 혈을 다스리기에 오장육부의 순환을 도와 젊음을 유지시켜 연년익수의 신험이 있다고 한다.

◆ MBC 뉴스데스크
2000년 11월 21일(목)방송내용
◆ KBS뉴스
2001년 1월 25(목) 방송내용

적송원을 드셔야 할 분

(동의보감), (신농본초경), (본초강목)등 30,40여 의서에 저술되어 있는 솔잎에 관한 건강법을 인용하면
고혈압, 비만, 신경통, 동맥경화, 고혈압(혈압강하), 변비,치질, 관절염, 당뇨병, 뇌졸중, 하퉁증 간경화증, 심장병, 위장장애, 뇌일혈, 치매증, 체질개선, 체지방분해 외 170여가지 예방 및 치유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45-10 경민 B/D 4층
TEL (032)545-6730 FAX (032)551-2449

※ 구매하시는 모든 불자분들께 호암석 108염주목걸이를 증정품으로 드립니다.

기문 둔갑 강의 안내

◎ 교육 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문의 : 961-0870 ~ 2)
◎ 개강 일시 : 2003년 3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 기초반 (오후 7시 - 9시)
매주 수요일 : 고급반 (오후 7시 - 9시)
◎ 수 강 료 : 학기당 16만원(16주)
※ 60세이상은 50%할인 혜택으로 8만원
◎ 원서접수 : 2003년 2월 3일 부터 - 2월 28일까지
◎ 접수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체육대학 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인터넷 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cce.khu.ac.kr)
◎ 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 사진 2매
◎ 수강과목 : 기문역회 (기문둔갑 : 사주, 작명, 택일)



◎ 담당 교수 : 손 혜림
(민강 기문역학원장
TEL 02-3476-3433, 3430)
http://www.gimun.net

※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기문역학원 창업시 관리 지원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둔갑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 시대부터 전해내려오는 정통의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드립니다.
특히 사찰운영이나 포교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시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께는 참으로 필요한 학문입니다.

장흥 대원정사 혜련스님

"걱정마세요"… 독거노인돕기 20년

"보살님, 걱정 말아요. 이제 좋은 곳에 가려는 거니까 마음 편히 먹어요." 경기도 장흥 대원정사 해련 스님이 몸져 누운 아흔다섯 김문명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아준다. 김 할머니도 스님을 바라보며 담담히 웃는다.

치매 노인이 방에 똥을 싸면 열 일을 제치고 치다꺼리를 하던 해련 스님. 30대의 곱던 비구니 스님도 이제는 초로의 나이가 됐건만, 스님의 보시행은 그제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10평 남짓 천막법당서 시작
장례식·제사까지 도맡아 모셔

같이 지내던 일곱 노인도 모두 불귀의 객이 된지 오래다. 김 할머니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십년이 넘는 세월을 변함없이 찾아와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스님이 곁에 있어 주기에 든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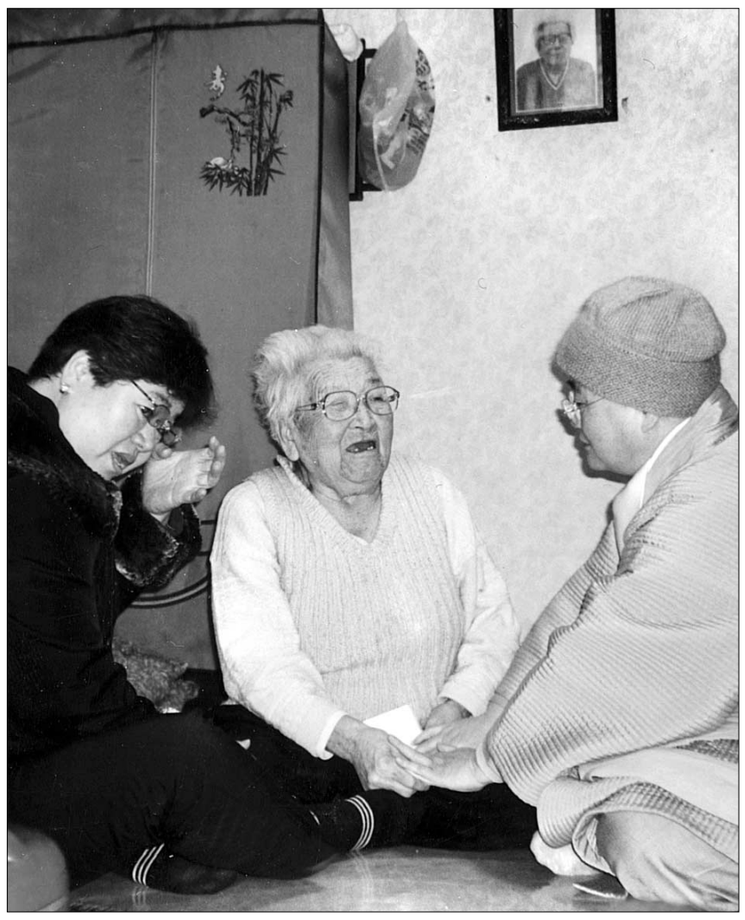
해련 스님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은 10평짜리 비닐하우스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던 20년 전 천막법당 시절부터다. 어려운 절 살림을 꾸리면서도 한 명씩 가족 없는 노인들을 데리고 왔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 주고, 갈 데가 없으면 머물러 살게 했고 어려운 처지의 독학생이 있으면 슬그머니 학비를 보태 주었다.

스님은 기도가 끝나서 과일과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독거노인들 몫을 남겼다가 보내주고 쌀과 밑반찬 난방비까지 꼬박꼬박 챙겨준다.

20년간 매달 빠지지 않고 독거노인들을 찾는 이런 스님의 행동은 대원정사 신도들을 감동시켰다. 한 명씩 스님을 본받아 불우노인 돕기를 자청했다. 스님과 함께 찾아가 청소며 빨래를 해 주고 목욕도 시켜준다. 노인들이 죽으면 장례식과 49재, 제사를 거든다.

다른 할머니를 찾아가기 위해 자리를 뜨는 해련 스님을 보며 김 할머니는 "백살 늙은이가 스님께 해드릴 게 없지만 갚을 수만 있다면 죽어서라도 스님의 은혜를 갚고 싶다"고 눈물을 흘린다. 스님이 있기에 김 할머니는 외롭지 않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혜련스님이 독거노인 집을 방문, 생활비를 전달하며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이웃아픔 외면하면 불자 아니죠"

능인정사 성동포교당 관음회 성정숙 회장

서울 성동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능인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난 1985년 문을 연 이래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철마다 쌀과 생활비를 전해주는 것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성동구민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능인정사의 자비행에 내심 놀라기도 한다.

이러한 능인정사의 활동 뒤에는 늘 든든한 신도들이 있다. 신도들의 집안 대소사를 돌보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관음회'를 이끌고 있는 성정숙(51, 법명 성불화) 회장. 변변치 못한 절 살림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 주지 법경 스님의 활동을 묵묵히 뒷바라지 하는 것이 성 회장의 몫이다. 성 회장이 능인정사와 인연을 맺은 지는 올해로 10년째. 처음 지역에서 포교와 봉사에 앞장서던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좋은 일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한 성 회장은 신도회장인 강춘자(법명 대원행) 보살과 함께 그동안 1백회가 넘는 고아원, 양로원 방문과 '자비의 쌀' 전달,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등을 치러냈고, 지금도 매달 첫째 일요일이면 군법당을 찾아가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불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성 회장은 매일 108배와 천수경 독송으로 아침을 연다. 벌써 12년째 해 오고 있는 일이지만 날마다 발심하는 마음으로 아침 예불을 진행한다. 덕분에 성 회장은 올 한해를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그동안 해오던 봉사활동과 더불어 관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를 찾아 법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일일찻집도 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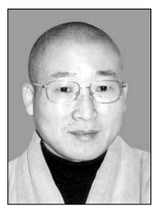
"도심 포교당이 겉으로 보기에는 절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여 이끌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저희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실 분은 언제든 능인정사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수령 기자

고아원등 1백여회 방문 자비의 쌀
군법당·경찰서 찾아 부처님 말씀



◇능인정사 성정숙회장(왼쪽)이 불단을 정리하고 있다.



추천의 말

법경스님 능인정사

1985년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연 능인정사는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할 뿐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심 포교당입니다. 능인정사의 활동 뒤에는 늘 절의 살림을 도맡아 주는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강대원행 신도회장님과 성성불화 관음회장님은 신도들의 대소사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 수행에도 뒤지지 않아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는 분들입니다. 능인정사는 이러한 신도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더욱 포교와 봉사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절살림 묵묵히 뒷바라지

실천승가회 캄보디아 지원키로

고아보육·청년교육시설 운영

실천불교전국승가회(승가회, 의장 성관)는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 한-캄보디아간 교류와 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을 벌였다.

승가회에 따르면 의장 성관스님 등은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해외구호사업 첫 지역인 캄보디아를 방문, 종교부와 국방부 합참, 국무조정실 등 정부 각 부처 장관 및 관계자와의 환담을 통해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교류와 지원관계 조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캄보디아 내 평화운동단체인 ACT를 방문해 한-캄보디아간 NGO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가회는 캄보디아에서 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청년교육을 위한 시설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화엄사 화엄석경
전산화 2008년 완료

전남 구례군은 17일 2008년 완료를 목표로 화엄사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의 전산화 작업 완료와 보존각 건립 기초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군비 등 34억원을 들여 6월부터 화엄사 삼층 사자석탑(국보 제35호)과 천은사 화장실, 사도리 석불좌상 비각(지방유형문화재 제 133호)등을 보수·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선암사 승선교 해체·복원
6월 중순까지 통행금지

전남 순천시 선암사 아치모양의 다리인 승선교(보물 제400호)가 15일부터 6월 중순까지 관람객의 통행 및 접근이 금지된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선암사 입구 승선교의 홍예석(아치) 서쪽 하단부 일부가 침하·이완으로 붕괴위험이 높아 4억3천여만원을 들여 이를 해체.복원한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갑사 '괴목대신제' 봉행
1천여 신도·주민 참석

공주 갑사(주지 장곡)는 3일 사찰 입구에 위치한 1천600여년 된 괴목(느티나무)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괴목대신제'를 봉행했다.

이날 괴목대신제는 괴목제, 토신제, 장승제 등 다양한 제사와 어린이및 청소년을 위한 길놀이 사물놀이 같은 문화공연과 민속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갑사 괴목대신제는 마을에 번진 역병을 퇴치하고자 스님과 주민들이 300여년전부터 괴목에 제례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원우기자

제주 선덕사 '묘법연화경'
유형문화재 지정 요청

제주 서귀포시 선덕사 소장〈묘법연화경〉목판본이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5일 제주도에 선덕사〈묘법연화경〉목판본의 도유형문화재 지정을 요청했다. 선덕사 <묘법연화경>은 권7에 "1443년(세종 25년) 태조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개판했다"는 효령대군과 영흥대군의 발문이 적혀 있으며, 1980년대 초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이 증정한 것이다. 현존하는 <묘법연화경>의 판본은 고려시대 3종, 조선조 34종이다.

김원우기자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또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매일 새벽 법당에서 금강경 독송을 하는 김용숙 씨는 '금강경 메주'를 팔아 여기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사찰 불사를 지원하고 결식아동들을 돕는다.

'금강경 메주 수행'

김 용 숙 보살

금강경과 메주. 언뜻 생각하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다. '금강경 메주'와 밤낮으로 같이 살면서, 금강경 가르침대로, 메주처럼 구수하고 진솔하게 살고자 하는 가족이 있다. 김용숙(대전 서구 둔산동 · 42) 씨 가족이 그 주인공.



◇"우리는 수행 가족입니다" 딸 윤옥의 찬불가 연주를 듣는 김용숙 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생각하면 힘 솟죠"

가족 이름에 '부처님' 붙여 불러

"엄마! 엄마는 메주가 좋아, 내가 더 좋아?"

3일 기자가 김 씨 집을 방문한 날, 이 집의 막내 준호(10)가 엄마에게 묻는다. 하루 종일 메주 배달을 다니는 엄마. 준호는 왜 갑자기 그 이유가 궁금해진 것일까?

"우리 '아들 부처님'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부셨나요?"

늘 가족 이름에 '부처님'이란 말을 붙여 부르는 엄마. 이렇게 자녀의 이름에 부처님을 붙여 부르는 것은 자식들이 부처님 가르침 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김 씨는 아들 준호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잘 안다. 집안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메주의 독특한 곰팡내(?)를 하루종일 맡아야 하니 아이로서는 기분 좋을 리 없다. 아침 식탁에서 엄마를 본 기억마저 까마득할 거라 생각하니 은근히 미안하다. 준호도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막내로서 괜히 해본 투정이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이라도 다녀옵시다. 윤옥이가 눈꽃축제를 보고 싶다는군." 남편 공인복(대전 과학기술원 근무 · 46) 씨의 말에 김 씨는 대답이 없다. 역시 '괜한' 소리 했다는 생각이 드는 공 씨. 남편 공 씨도 매일 아침 아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다. 4년 전부터 금강경독송회 대전포교당에서 신행을 시작한 이래 한번도 거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병인 당뇨병 때문에 체력이 뚝뚝 떨어져 못 일어날 것 같은 날에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법당에서 장궤를 하고 금강경을 읽는 김씨를 볼 수 있다.

김 씨도 남편의 마음을 잘 안다. 딸 핑계를 대지만 구경을 가고 싶은 건 정작 남편이다. 유난히 눈을 좋아하는 남편은 서울 개운사 불교학생회의 '금산사 겨울 수련회'에서 김 씨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눈이 펄펄 내리는 절에서 1080배를 마치고 나오는 김 씨의 모습에 반했던 것이다.

"엄마, 나도 천일기도를 하고 싶어요." 올 3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딸 윤옥이(16)는 매일 금강경 독송을 하는 엄마를 따라 백일기도를 시작해 거뜬히 백일을 채웠다. 또래보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듣는 것도 매일 기도수행을 하는 윤옥이로서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제는 천일기도를 원(願)으로 할 만큼 불교를 좋아한다.

김용숙 씨는 딸과 함께 매일 아침 독경과 참선을 한다는 게 너무 든든하다. 김 씨가 시간나는 틈틈이 전국 선방을 찾아다니며 참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가족들의 신심 돈독한 격려와 배려 때문이다.

매일 아침 법당서 금강경 독송

김용숙 씨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주 파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다.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만들어지는 '금강경 메주'. 이 메주는 각 가정의 식탁에서 보글보글 맛있는 찌개가 되고 국이 된다. 특히 김 씨는 메주 파는 일에 남다른 정성을 보이고 있다. 포항 금강정사 수행자들이 만든 메주를 받아다가 아파트 알뜰 시장, 백화점 판매 행사장, 가정집을 돌아가며 판다.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 보시를 한다. 이 기금은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들에게 전달 된다.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메주로 인해 삶의 희망을 얻고 있다.

김용숙 씨가 메주 장사를 시작한 것은 3년 전, 초등학교 1학년 준호네 반 공개수업에 나간 때부터다.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 하는 음식을 적어보세요." 준호가 반 아이들 중 유일하게 '된장국'이라고 썼다.

이를 본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준호가 된장국을 좋아하네. 된장국을 많이 먹어서 준호가 이렇게 큰가 보다. 여러분도 피자나 치킨만 좋아하지 말고 된장국을 많이 드세요"했다. 요즘 아이들은 김치나 된장국 등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데 비해 된장국을 가장 좋아하는 준호가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은 것.

직장다닐때 월급 50% 남 돕는 일에

애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신세대 엄마들이 김용숙 씨에게 어떻게 된장국을 끓이기에 아이들이 잘 먹느냐는 등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우리나라 음식을 대표하는 된장, 항암효과도 큰 된장을 먹는 것은 우리 음식 문화의 전통을 잇는 길이기도 하기에 '준호 엄마'는 된장의 효능,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시간 나는 대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에따라 아들 친구 엄마와 이웃 보살들이 '금강경 메주'를 찾게 되었고 김 씨는 금강경독송회 된장을 구해다 한 집 두 집 갖다 주다보니 어느새 '금강경 메주' 배달부가 되었다.

'금강경 메주'를 위해 7개월 전부터는 직장도 그만 두었다. '금강경 메주 수행'에만 매진하고 싶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할때도 김씨는 월급을 타면 그중 50%를 법당 불사에 보시하거나 남을 돕는 일에 써 왔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독경과 참선을 하고 사찰 참선 수련회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메주를 직접 갖다 주는 일은 힘들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지요. 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성심껏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메주로 인해 소년소녀 가장들이 밝게 웃을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김용숙 씨는 오늘도 메주 배달을 부탁한 집 초인종을 누른다. "딩동! '금강경 메주' 왔어요."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ypark@buddhapia.com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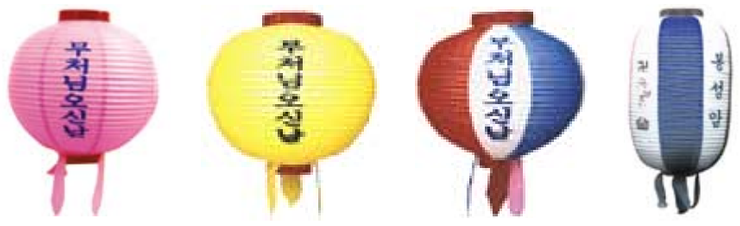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릴레이 수행일기 〈下〉



박주천
(주)삼현 회장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

생로병사의 무상한 도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드는 것은 나무나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

교회를 다니며 불교를 비방하고 고생스럽게 살던 옛 추억을 되새기며 부산 금강공원의 오솔길을 걷다보면, 할 일 없는 노인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점심시간도 잊은 채 허공만 쳐다보고 탄식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늙은 부모들의 점심을 챙겨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곳 저곳 자리를 바꿔가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한 두 분이 아니다. 어떤 노인들은 가족끼리 소풍와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주위를 기웃거리기도 한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심정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1999년 11월 4일부터 금강공원에서 매주 수요일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복지원 설립위해 100원 모금운동 펴
노인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원력

양정재가복지원에서 부산불교교육대학 재학생들이 매주 수요일, 졸업한 동문들이 금요일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나의 월급은 세금을 공제하고 270만원인데, 이 돈은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길흉사 부의금, 단체가입 월회비, 기부금, 기타 품위유지와 무료급식비로 사용한다. 담배 역시 피우지 않는다. 20세에서 70세까지 하루에 1,800원짜리 담배 1 갑을 피울 때 드는 돈이 총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착안해서 '적은 보시와 정성으로 큰 공덕을 이루소서'란 제목으로 하루에 100원씩 저축해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설 환희지복지원 사업기금으로 모금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천12만원을 모았다. 앞으로 1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다.

필자가 복지원 이름을 '환희지(歡喜地)'로 짓게 된 것은 '환희지'가 보살십지(菩薩十地) 가운데 초지(初地)로서, 깨달음을 향한 10가지 큰 서원을 세우는 단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희심으로 깨달음과 나눔을 실천하는 보살행자인 부산불교교육대학 가족 전체의 이상이기도 하다.

현재 인류의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인데, 10년이 지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정년 후 35~40년의 긴 공백기간이 생긴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겠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특히 노스님과 노인들의 복지에 아직 무관심한 불교계는 황혼을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도록 승가 및 재가 노인복지에 심혈을 쏟아야 하리라고 본다.

오늘날 물질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정신세계는 퇴폐하여 도덕관념, 더불어 사는 협동정신은 날로 메말라 가고 있다. 하루 빨리 환희지복지원을 설립, 노인들의 자원을 유익하게 활용하여 노인이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와 취미생활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다음 호 필자인 주영배 보안기획 사장은 바쁜 회사 업무 틈틈이 불교공부와 수행으로 '깨달음의 사회화'를 추구하고 있는 불자다.

"부처님 그리면 부처 됩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사불수행연구원 '사불'

호흡조절로 과감, 정확하게 표현해야
대상과 하나돼 '자성불' 친견하는 수행

"참선과 부처님 그리기가 하나된 사불(寫佛)은 단순히 불상을 그리는 형상에 머물지않고 참선을 통하여 '내안의 부처(佛性)'를 확인하고 그 자성불(自性佛)을 밖으로 그려내서 자신의 눈으로 보며 부처와 하나되는 수행법입니다."

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동산불교회관 법당. 보광선원 원장 법인 스님이 10여명의 사불수행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며 사불수행의 의미를 거듭 확인시키고 있다.

법인 스님은 3~4개월 정도 사불수행을 해보면 사경(寫經)과 염불, 절 수행을 합한 장점을 깨닫고 더욱 신심을 느낄 것이라며 사불수행의 준비단계인 관상법(觀想法)을 지도하기 시작한다.

"좌선하는 자세에서 단전으로 숨을 들이 쉴 때 불 · 보살님이 함께 들어오는 기분으로 정신을 집중하세요. 단전에서 잠시 숨을 멈춘 후 다시 가늘게 숨을 내쉬세요. 내쉴 때는 8만4천 숨구멍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처럼 관(觀)하세요."

15분 정도의 호흡법을 통해 수강생들의 마음이 안정되자, 법인 스님은 단전에서 호흡을 멈춘 순간 한 획씩 선을 세로로 그려나가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아직 숙달되지 않은 불자들은 선이 흐트러지기 일쑤다. 법인 스님이 일일이 시범을 해가며 자상하게 지도한다.

가로, 세로 선 그리기가 숙달되면 입정(入定) 상태에서 관한 마음 그대로 손이 움직이며 부처님의 형체가 나투도록 한다. 각 형상에 맞는 호흡으로 완급을 조절하며 물 흐르듯 유려하지만 과감하고 정확하게 표현토록 한다. 물론 한 호흡에 긴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몇 달간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불이 끝나면 3배 또는 그 이상을 행한 후 묵상으로 발원을 염하고 가볍게 합장하여 사불수행을 마친다. 3배가 끝나고 천수경이나, 금강경 등을 독송하거나 참선을 해도 좋다. 사불로 모셔진 불 · 보살님들은 사불탑을 세워 봉안하거나 불상의 복장물로 모셔져, 각자의 기원과 부처님의 원력이 하나되어 회향하게 된다.

사불수행연구회 박정자(62 ·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 후보) 회장은 "내가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될 수 있는 관상법은 참선을 통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관하여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관법"이라고 설명했다. 참선따로 그림따로가 아니라 깊은 명상 속에서 그 호흡을 최대한 깨지 않으며 '내 안의 부처(自性佛)'를 밖으로 끌어 내는 수행법이다.

동산불교대학의 사불수행 강좌를 듣기 위해 속초에서 매달 두 번씩 상경하는 법련 스님은 "이렇듯 한분 한분을 그려 모시다보면 내안의 불성을 보게 되며 그 힘은 모든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된다. 그래서 사불수행은 내 안의 부처를 친견하는 수행법"이라며 체험담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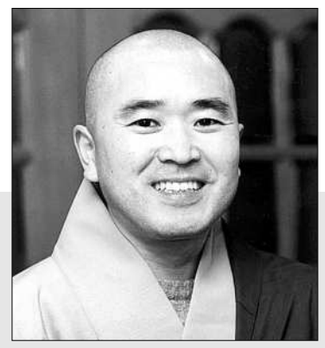
사불수행연구회는 아직 회원이 60여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10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조계사 신도회, 봉은사 신도회, 길상사 청년회 등이 사불수행을 시연하는 등 대중화가 시작되고 있다. 불화가 박정자 회장을 비롯, 사불수행 전문 도량을 2005년 개원할 예정인 법인 스님과 3개의 사불탑을 세운 도림 스님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홍보도 시작됐다.

박정자 회장은 지난 해 다섯 권의 <사불 교본>(도서출판 석란)을 출간했으며, 도림 스님은 전국에 사불탑을 세우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법인 스님은 서울 동산불교대학(둘 · 넷째 수요일 오후 2시)과 만해불교대학(매달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창원 금강불교대학(매달 셋째 수요일 오후 7시)에서 사경수행 강좌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다. (011)744-806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불수행은 단순한 형상을 그리는 일이 아닌, 자성불을 친견하는 수행법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불' 지도하는 법인 스님

경전 다루듯 마음자세중요

"사불수행은 단순히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살아있는 부처를 확인하는 수행법입니다. 관상법(觀想法)과 정확한 호흡법으로 무아(無我)의 상태에서 오직 부처님의 모습만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서울 보광선장 법인 스님(사불수행연구회 부회장)은 사불은 이미 고려시대에 사경(寫經)과 함께 매우 발달한 수행의 한 방법이라며, '자신의 불성(自性佛)'과 만날 수 있는 길의 하나가 입정 속에서 부처를 그리며 하나가 되는 사불수행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불을 하거나 다룰 때는 항상 법신 부처님과 경전을 다루듯이 마음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사불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새벽이나 저녁의 조용한 시간을 택해 안정된 마음과 자세로 한다. 가정에 불단이 있는 불자들은 불단 앞에서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깨끗한 상을 놓고 정갈한 곳에서 하면 된다. 개인불단이 있을 경우 천천히 3배 또는 그 이상을 행하고 상황에 따라 석가모니 정근이나 관음 정근, 지장 정근 등을 할 수 있다.

법인 스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불수행을 통해 모든 불자들이 환희심을 갖고 자성불을 만나게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수행 캘린더

■정신세계원 마음여행=정신세계원은 2~3월 명상과 심신수련, 치유,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해 내안으로, 세상 속으로 떠나는 '마인드 투어'를 갖는다. △2월 8~9일 맹물 체험 캠프(이지은) △2월 21-23일 깨달음의 마음여행(김병채) △3월 7~9일 마음닦기 남도여행(무산본각) △3월 15~16일 산사 수행체험 및 티베트 문화여행(김규현) △3월 29~30일 남해 금산 약초여행(최진규) (02)747-7033

■선어록 입문 및 불교 중국어 강좌=서울 선어록연구소는 3~4월 두 달간 송인성 전 영산대 교수의 강의로 선어록 입문 및 불교 중국어 강좌를 개설한다. 선어록 입문 강좌는 매주 토 오전 10~12시에 선종 어록 소개 및 원문 선독으로 진행하며, 불교 중국어는 매주 화/목 오전 10~12시 중국어 발음 및 기초 회화로 진행한다. (02)597-0787

■보리수선원 2월 집중수행=서울 보리수선원은 2월 16~22일 (1주일), 2월 9~22일(보름) 집중수련회를 연다. (02)517-2841

■구도 철야정진=서울 불광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구도 철야정진'을 갖는다. (02)413-6060

■주말 선수련회=서울 길상사는 2월 22~23일 주말 선수련회를 연다. 선착순 40명. (02)3672-5945

■법륭사 '마음 비우기'=경기 시흥 법륭사는 '마음 비우기'를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기법회를 연다. 매달 1, 3, 5주 일요일은 장년층 위주의 진각회 법회이며, 2, 4주 일요일은 청년회 법회다. (031)317-1155

■해인사 주말수련=합천 해인사(www.haein-sa.org)는 매월 넷째 주 토~일 주말수련회를 연다. (055)932-7430

■위빠싸나 집중수련=홍원사는 2월 16~22일(6박 7일) 천안 호두마을에서 집중수련회를 연다. 반야로까 성오 스님의 지도로 40명이 수행하게 된다. (051)632-8488

■천수경강의 및 참선=서울 정혜사는 주지 남전 스님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천수경 강의 및 참선정진 법회를 연다. 천수경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및 오후 7시, 참선정진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02)903-8019

〔출강 · 통신〕 2003학년도 제 12기 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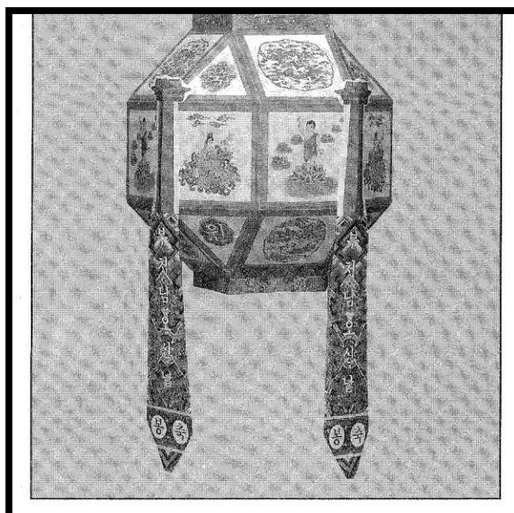
법사 학인으로 입학하여
불교 사회적 책무성을 갖는
직분의 법사가 되도록
지도 교수합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3학년도 제1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6. 교육장소: ① 서울 본 대학 ② 부산 학습도량
7. 원서교부 및 접수: 2003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귀특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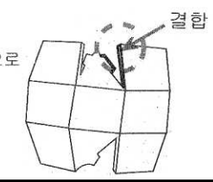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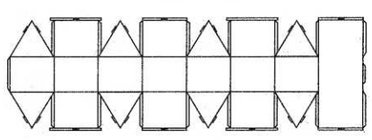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목욕봉사는 마음 맑히는 공부”

바라밀현장

천수천안자원봉사단 ‘간병’

“할머니, 시원하시죠?”

“응, 이 쪽도 긁어줘.”

1월 29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에덴노인요양센터 2층 목욕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 무량사팀 봉사자들이 설날을 앞두고 치매 노인들의 목욕봉사에 분주하다.

무량사 신도인 조미이(39 · 남양주시 수동면), 고연숙(43 · 남양주시 수동면), 박숙향(39 · 남양주시 마석) 보살이 노인들을 부축해 옷을 벗겨 주고, 비누칠을 하고 때를 민 후 샤워기로 씻어주면 요양센터 직원들은 서둘러 몸을 닦아주고 말려준다. 욕실 밖 복도에는 10여명의 노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줄을 서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내내 목욕을 시켜드린 노인들은 모두 60명, 명절이라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인원이다.

무량사 자원봉사팀이 이 곳에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고양시사암연합회(회장 홍선, 무량사 주지) 부설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이 창단되면서 부터다. 무량사 봉사팀들은 남양주시 관내에 불교복지시설이 전무해 개신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에덴노인요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것. 처음에는 이웃 종교를 믿는 노인들이 절에서 온 불자들임을 알고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은은한 정성으로 간병하니 저절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는 스님과 사찰에 대해 호감을 갖는 노인들도 생겨나, 오히려 수요처를 잘 택했다는 게 봉사자들의 말이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 무량사팀이 1월 29일 경기 남양주시 에덴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 노인들을 목욕시켜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론 · 실천 겸비한 탄탄한 조직력 갖춰

타 종교서 인정, 지역 포교에 성과 있어

20여 팀원과 함께 매주 수요일 4~5명씩 조를 짜 치매 노인들을 돌봐 온 고연숙 보살은 “처음 종교 문제로 갈등도 있었고 치매 노인들의 변을 치우다 토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인욕공부를 하다보니 이제는 내 부모님 보시는 일처럼 기쁘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무량사 등 30여 사찰의 신도로 구성된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의 단원은 모두 300여명. 지난해 5월 11일 봉사단이 창단되기 전에는 내 절만 챙기던 불자들이, 이제는 사찰 구별 없이 서로 돕고 선의의 경쟁심을 발휘하고 있다. 절에서 배운 교리공부를 보살행으로 회향하면서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겸한 불교의 참뜻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이 불과 8개월만에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탄탄한 조직으로 자리잡은 것은 체계적인 교육 때문에 가능했다. 3회에 걸쳐 전문간병자원봉사자 초급교육을 수료한 단원은 221명. 이들이 국립암센터, 한국경진(장애인)학교, 일산노인복지관, 인덕원,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홀트일산복지타운 등에서 간병 및 특기(생활체조, 수지침, 지압, 발맛사지 등), 가사(청소, 도시락 배달, 주방일 등) 봉사 등을 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의료분야의 다양한 자원봉사를 시도하고 있는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은 호스피스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는 한편, 일산 동국대불교병원 호스피스 활동에 나설 대책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봉사단은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문간병자원봉사자 중급교육을 실시해 보다 원숙한 봉사자들을 배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을 설립, 자생적인 봉사단체로 거듭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031)969-0108 남양주=김재경 기자



조미이 무량사 팀장

“동체대비 진리 체험”

“수요처에서 이웃 종교인들과의 갈등이나,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힘든 일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모두 생생한 마음공부예요.”

전문간병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서 남양주시 무량사 신도들의 에덴노인요양센터 자원봉사를 이끌고 있는 천수천안자원봉사단 조미이(39 · 남양주시 수동면) 무량사팀장. 그녀는 자원봉사를 통해 대승불교의 사상자체가 복지불사임을 알게 됐다고 강조한다.

“종교가 달라도, 내 부모가 아니어도 마음이 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이 발하는 원리를 알게 됐다는 조 보살은 “모든 불자들이 배워서 아는 것 만큼 실천하는 참불자가 될 것을 발원한다”고 덧붙였다.

心 마음비추기

법 향한 올바른 믿음 가져야

도심에서 포교하는 스님이 찾아오셨다. 근황을 묻다가 스님의 한탄조 섞인 말씀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동네에 사는 어느 노보살님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딸이 있어 제발 잘 좀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작 딸 문제는 그만두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노보살님은 부처님을 원망하며 길에서 스님을 보면 외면하고 돌아선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왜 자신의 불행을 부처님께 전가하고 탓하는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면 포교에 정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은 현재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가 수도원으로 돌아가시는 부처님을 마을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음을 당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잠자코 계셨으나 제자 아난존자는 매우 언짢아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는 세존이 아니었더라면 저런 불행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그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셨더라면, 또 그가 마을 밖까지 배웅하러 나왔을 때 그를 말리셨거나 혹은 그의 죽음을 미리 예견해 주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난을 훈계하셨다.

“그대는 무엇을 불행한 죽음이라 하느냐. 그는 불행한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니라. 아난아, 세상에서 죽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죽는 방법은 그 수효도 셀 수 없느니라. 행복한 죽음과 불행한 죽음은 그 시기나 방법에 있지 않고 그 죽음을 당하는 자신과 그 죽음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여래는 그 젊은이에게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설했고, 그는 그 가르침을 듣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행복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불행한 임종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임종을 맞이한 것이니라.”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닥칠 육체적 죽음이나 돌발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사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다. 앞의 노보살님이 좀 더 지혜로운 불자였다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부처님을 원망하기 보다는 그 죽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법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부처님을 믿다가 망했어도 부처님이 옳고 흥했어도 부처님이 옳다는 믿음이 서지 않고서는 세상의 길흉화복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케마 스님 (下)

짧고 굵은 수행, 놓아버리는 과정

열정적인 전법여행을 펼치던 케마 스님은 어느날 ‘유방암 선고’란 은산철벽(銀山鐵壁)에 부딪쳤다. 그러나 스님은 수행 지도를 쉬지 않은 것은 물론, 남은 생을 약물 투여와 치료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입원도 거부한 채 목숨을 건 마지막 용맹정진에 나섰다.

발병 후 9년째가 되자 케마 스님의 육체적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수술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스님은 입원해서도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법을 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5주 동안의 입원기간은 동분서주하며 전법에 나섰던 육신을 모처럼 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을 정도이니, 스님의 큰 원력을 짐작할 수 있다.

케마 스님은 입원기간에 두 번이나 임사(臨死) 체험을 하며 극적인 수행의 전기를 맞이 한다.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말조차 나오지 않는,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케마 스님은 이 때 죽음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나 저항도 없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지극한 정성을 생각할 때 조금이나마 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죽음과 유사한 체험을 통해 수자상(壽者相; 목숨이 있다는 생각으로 몸에 애착을 갖는 것)을 놓아 버릴 수 있었다는 케마 스님은 병고(病苦)가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든 집착을 놓아버렸기에 아무런 부족함도, 원하는 것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얻게 된 것이다.

케마 스님은 아잔 차 스님(1992년 입적한 태국의 고승)이 언젠가 ‘방에 왜 그렇게 물질문명의 소산인 물건이 많으냐?’는 일반인의 질문에 대해 답했던 설법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리가 탁자 위에 잔의 형상을 갖추고 존재할 때 이 유리는 아름다운 색채를 드러내기도 하고 경쾌한 소리도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이것이 유리잔으로 보이겠지만, 내게는 이미 부서진 유리일 뿐입니다.”

자신도 이미 ‘유리(相)가 깨진 것’과 같은 마음 상태에 놓여있음을 암시한 말이다. 케마 스님이 1999년 독일 붓다하우스에서 입적하기에 앞서, 자신의 짧고 굵은 수행여정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법문이다.

1923년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난 스님은 미국에서 결혼하여 1남1녀를 둔 후 60년대에 남편과 함께 히말라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 명상여행을 떠나면서 출가인연의 싹을 틔웠다.

이후 오스트리아에 머물던 케마 스님은 73년 영국의 칸티팔로 스님을 만나 비로소, 가슴으로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발견했다. 케마 스님은 79년, 55세의 늦은 나이에 출가해 스리랑카에서 니안포니카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출가’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회고한 케마 스님은 많은 비구니 제자를 양성하고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1987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국제대회를 주관, 불교여성운동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여세를 몰아 국제 불교여성단체인 사키야디타(Sakyadhita)를 창설하는 업적을 이뤘다.

임사 체험 통해 ‘수자상’ 떨쳐

‘출가’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

김재경 기자



◇케마 스님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2263-0551 서울시 중구 쌍림동 146-2 국제빌딩 3F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DWS2000 램프용 • DWS1000 LED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구입문의 (032) 582-6235~6 (02)2263-2638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사자빈신삼매의 경지와 체득

그 때에 보현보살이 보살들을 위하여 방편을 써서 사자빈신삼매의 경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내용으로써 설명한다.

(1)모든 법계의 티끌속에 부처님과 그 국토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양 (2)허공계와 같은 모든 불국토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여래의 공덕을 찬탄하는 모양 (3)모든 불국토에서 여래가 출현하여 한량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는 모양 (4)모든 불국토에서 여래가 설법하는 곳에 보살들이 모여있는 모양 (5)모든 털구멍에서 삼세 제불의 몸과 같은 변화한 몸을 나타내어 한순간의 마음에 법계를 가득 채우는 모양 (6)위신력에 의해 한 몸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나타나는 모양 (7)모든 경계 가운데 삼세 제불의 신통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모양 (8)모든 국토의 티끌 속에 삼세 제불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갖가지 신통변화를 한량없는 세월 동안 나타내는 모양 (9)모든 털구멍에서 삼세 제불의 큰 서원의 음성이 울리도록 해서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보살이 출생하도록 하는 모양 (10)부처님의 사자좌의 크기는 법계와 같고 깨달음의 도량[菩提道場]의 장엄은 보살들의 설법회와 같아서 차별이 없는데, 그러한 사자좌에서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여러 가지 미묘한 법륜을 굴리는 모양.

열가지의 설명을 통해서 우선 느끼게 되는 것은 일체의 세계가 서로 융통무애해서 공간적인 넓고(廣) 좁음(狹)의 세계가 그대로 융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원융무애한 사사무애(事事無碍)의 세계요, 일즉일체 일체즉일(一卽一切 一切卽一)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가지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체의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고, 일체의 시간과 장소에서 끊임없이 신통변화를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항상 보살들이 모여 있는 점이다. 부처님은 항상 자비의 서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실한 법을 설하여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세계가 부처님 세계이고, 항상 자비로운 부처님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과거나 미래의

차별속에 장애없이 통하는 세계

자비로운 삶에 대한 염원으로 충만

모든 세계가 그대로 하나의 진실한 세계[一眞法界]라고 하는 점이다. 물론 법계에는 한량없는 세계가 있어서 차별이 있지만, 다양한 차별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이 서로 두루 널리 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고 또한 그 세계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그대로 보살들의 세계이기도 하다. 많고(多) 적음(少)의 세계, 크고(大) 작음(小)의 세계, 시간적인 길고(長) 짧음(短)의 세계와 어느 때가 아닌 지금, 환경적으로는 다른 곳이 아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 몸을 가지고 부처님의 생명을 발휘하여 부처님 모습을 짓고 부처님 행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자빈신삼매는 부처님의 마음[정신]의 경지이다. 그 경계는 일체의 진실을 밝히는 밝은 지혜의 경계이면서 또한 일체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자비의 경계이지만,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삼매는 대자비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삼는다. 그렇기 에 대승정신을 선양하려고 하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보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서 나아가야 할 부처님 깨달음의 마음의 경지를 이 삼매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자빈신삼매의 원어는 '사자가 포효하면서 기운뻗음이라고 이름하는 삼매'인데, 이것은 오로지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를 나타내는 정신통일의 경지이다. 어디에도 두려워하거나 구애됨이 없이 백수의 왕인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성문의 전통에 구애되어 출가주의를 고집하여 현실세계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고요한 경계만을 좋아하고 진리연구에만 머무르면서 개인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자들을 일깨워서 세상을 구원하는 보살의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충만한 경지이다. 부처님이란 바로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실세계 속에서 자비의 생명을 실현하는 분이며, 이러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불교라고 하는 자각 아래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사자빈신삼매라고 하는 용어로써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입법계품에서 '세존이 모든 보살들을 여래의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게 하려고 미간백호로부터 큰 광명을 놓는다'고 한 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자기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사자빈신삼매를 느끼고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경계를 단순히 지식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체득(體得)하게 하는 요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②

저술동기-선교통합의 문제

보조지눌이 <간화결의론>을 저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먼저 지눌의 제자인 혜심(慧諶)의 견해가 있는데, 그는 지눌이 입적한 5년이 지난 1215년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과 <간화결의론>을 상자에서 발견해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슬프다. 근래에 불법의 쇠퇴가 심하다. 선을 종으로 삼는 이는 교를 배척하고, 교를 숭상하는 이는 선을 비방한다. 선과 교는 서로 원수와 같이 견해를 지어서 법(法)과 의(義)가 서로 모순이 되어 다툼만 일삼는다. 끝내는 하나의 실다운 도를 밟지 못한다. 이 점을 선사는 애석하게 생각하여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을 저술하였다."

혜심의 이런 서평을 보면 13세기 초엽의 고려 불교계는 선과 교의 대립이 심각했음을 잘 보여준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다.' 또한 선은 사물의 의미이고, 교는 펼쳐진 사물의 다양한 모습이다. 교가 있는 그곳엔 선이 존재하고, 선이 있으면 곧 그 자리에 교가 존재한다. 양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님에도 서로 비방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혜심의 해석에 따르면,

해석하는 시대·사람 따라 차이

<간화결의론>은 선과 교의 대립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저술동기에 관한 해석에서 현대 학자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르다. <간화결의론>은 간화선의 입장에서 당시 강성했던 화엄교학을 비판하고, 왜 간화선이 요청되는지를 해명하는 저술이라고 보는가 하면, 혹은 <간화결의론>은 교외별전의 입장에서, 교보다는 선의 입장에서 저술되어 오히려 선교대립을 더욱 조장시키는 내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간화결의론>은 결코 선교대립을 화해시키려는 내용도 아니라, 오히려 선의 우위를 주창하는 논서이며, 선교 대립을 격화시키는 역사적인 단초를 제공한 저술로 평가한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는 매우 당혹스러우면서도 흥미롭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선교의 대립문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방에서는 교학적인 입장을 배척한지 오래며, 대학에서는 이론적이고 관료적 체계에 갇혀있다. 교학을 하는 이들은 선이 고원한 선정주의에 빠져있다고 보고, 반대로 선을 닦는 이들은 교학을 실천 없는 관념에만 만족한다고 비판한다.

아마도 13세기 불교계도 이런 갈등상황에 놓여 있음에 분명하다. 만약 <간화결의론>을 간화선의 입장에서 선학과 교학을 새롭게 해석하여 양자간의 통합을 모색하였다고 해석한다면, 간화선 중심에 있는 선방의 교학에 대한 일방적 배척 분위기는 비판적인 수용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 된다. 그러나 <간화결의론>의 방향이 오히려 간화선을 중시하면서 교학의 도움이 없이 곧장 선에 들어갈 수가 있고, 현실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교학의 산실로서 대학은 비판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간화결의론>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필자는 이 두 가지 경우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점은 텍스트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헌학은 텍스트 자체를 매우 중요시하고, 텍스트는 그 자체로 객관적인 어떤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석학은 텍스트보다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의 권한을 더욱 중요시한다. 그래서 같은 텍스트라도 해석하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필자는 후자 입장에 서 있다. 과거의 텍스트는 반드시 현재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자체보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석자의 사회적 입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태아도 스트레스 받는다

불교의 삼합(三合)의 원리와 12 연기 법칙에 의해 태아도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뱃속 태아 역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사실이다. 태아에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가를 한 번 살펴보자. 다음은 최근 외국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다.

영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임신 직전 혹은 임신 4개월까지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3,500명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대조군 2만명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여기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란, 임신중 남편에 의한 학대, 또는 자녀가 암진단을 받았거나,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아기의 기형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임신중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에서는 태아기형의 발생률이 1.18%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그룹 0.65%에 비해 80%나 증가했다. 따라서 산모의 만성적인 슬픔, 공포 및 분노 등은 태아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태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신중 스트레스 기형 발생률 1.18%

산모의 슬픔 공포 분노 태아에 전달돼

평생동안 태아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산부인과 의사 데이비드 칙에 의하면 임신중 태아가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하면 태아는 스스로 조산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했고, 만약 조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아는 체중이 늘지 않아 저체중아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WHO의 연구기금을 받고 실시한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 3개국 공동 연구 결과는 태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 주고 있다. 즉,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 내내 태아가 엄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태어난 아기를 출생 후 25년까지 추적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고 태어난 아기는 △출생 시 저체중아가 많았고, △생후 1년까지 사망률이 높았으며, △뇌성마비가 많았고, △초등학교 성적이 떨어졌으며, △14세에 실시한 IQ가 평균 86밖에 되지 않았고, △학교 성적이 저조하고 자퇴율이 높았으며, △병의 이환율이 높았고, △23세의 범죄율이 높았으며, △이성과의 관계가 파탄적이었고, △담배와 술을 많이 한다 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분만하는 도중의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난산을 경험하게 되면 아기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정신분열증, 정신이상, 폭력, 범죄자가 되기 쉽다. 반대로 분만 당시 산모의 감정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넘치며, 아기의 탄생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경우, 태아는 성인이 되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임신중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 따라서 산모는 임신중에도 태아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 · 문병성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
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 주차장 100m 전방
감나무식당 아래 (선화정사)
053)614-7935, 011-808-8880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팔공산(관봉) 약사암 대웅전 건립 대작불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도 영험이 널리 알려진 약사성지 팔공산(관봉) 약사암에서는 석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사 원만회향을 위해 3년째 10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약사암 대웅전 건립불사에 불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수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복덕과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웅전 불사 동참 안내

대들보	1,000만원	기 둥	300만원	청 룡	300만원
황 룡	300만원	현 판	300만원	주 련	100만원
주춧돌	50만원	서가래	20만원	축대석	10만원
문 (앞)	200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01-0600-052
주택은행 810702-01-035169
대구은행 200-08-007118-4
예금주 : 장영순

※ 시주금을 입금하신 불자님은 반드시 약사암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관봉) 약사암 주지 일여 장영순 합장

☎ 053)852-0803, 851-4632 / Fax 053)852-9453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번지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6화)

"사람을 믿지말고 법을 믿어라"

〈출전 : 잡아함경 30: 837경: 2-214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전쟁의 축

승·패 버리면 고요한 즐거움 있어

선재는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설을 보냈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 지역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달 28일 '당장이라도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동맹국들의 지원이나 유엔 결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예전 석유파동 때를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다.

왜 꼭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하면 전 세계를 전쟁으로 떨게 하는지 선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에게 겨누던 보복의 칼날을 이라크로, 북한으로 옮기며 전쟁의 기회를 엿보고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악의 축'이라는 듣기에도 섬뜩한 별명이 붙여졌다.

미국이 결심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 상황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공화당인 레이건 대통령 때인 1986년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 이후 다시 콜럼비아호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테러 가능성을 운운하는 성급한 보도를 보며 선재는 별 걸 다 전쟁과 연결시키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혹시 전쟁의 기운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사고가 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재가 들은 이야기.

싸워 이기면 원수가 많아지고, 패하면 누워도 편치 않다. 이기고 지는 일 이 두 가지를 함께 버리면 자나 깨나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 〈잡아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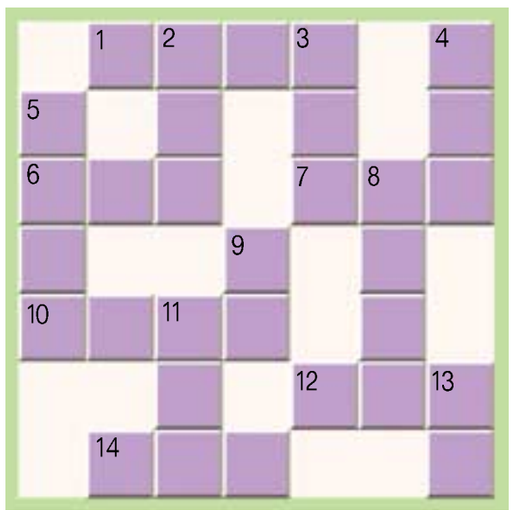
싸움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기면 다시 이겨야 하고 항복받으면 다시 항복받아야 하며, 해치면 다시 해쳐야 한다. 〈중아함경〉

싸움터에 나가 천번 싸우고 천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전사이다. 〈법구경〉

새해에는 진정한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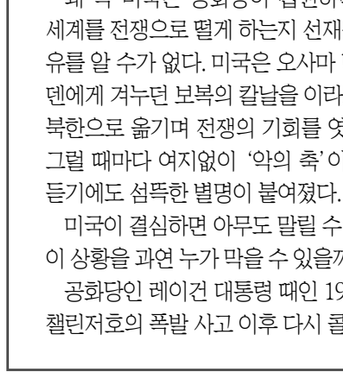
교리퍼즐



가로 1.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 보살. 비구형으로 왼손에 구슬 보석, 오른손에는 석장(錫杖)을 쥔 모습으로 형상화 됨. 6. 부처님의 크고 원만한 지혜. 광대하고 완전한 깨달음. 7. 부처님에게 바치는 재물의 목록을 기록한 것. 혹은 부처님에게 바치는 재물이라는 뜻. 10.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보살. 금강산에 있다고 함. 12. 중국 호북성 기주에 있는 산이름. 동산이라고도 함. 14. 번뇌의 지멸이라고 하는 결과, 즉 열반을 말하는 것으로 오과(五果)의 하나.

세로 2. 한국의 사원에서 대장경을 안치하고 있는 당사(堂舍). 3. 불살생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의 하나. 부모를 죽이는 것. 4. 화장실을 일컫는 말. 5. 광대하고 오묘한 법. 곧 불법이 넓고 크고 지극함을 형용한 말. 8.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연화로 상징되는 최고 경지의 삼매에 든 것을 의미. 법화삼매와 동일한 뜻. 9.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지난 반달 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행사. 11. 대승계, 불성계라고도 함. 대승의 보살이 받아 지키는 계. 13. 산군(山君), 산신령(山神靈)이라고도 함. 모든 산을 수호하는 신령들의 다른 이름.

〈407호 「교리퍼즐」 정답〉



mahamall.co.kr
마하몰이 추천하는 신상품
희담석 稀潭石
"보살님, 처사님
생명의 돌, 희담석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 연키키색, 살구색
〈희담석 돌침대〉
■ 권장소비자가격 : 38,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 권장소비자가격 : 80,000원
〈희담석 보료〉
● 고급형 보료 : 4,000,000원
● 1인용 보급형 보료 :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 A형 13,000,000원
B형 15,000,000원
〈희담석 체험사례〉
작업적인 이유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데 수 개월 동안 항문 부분이 몹시 아팠다. 잘못하면 치질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병원이나 약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넘기고 있던 중 〈희담석 방석〉을 만나게 되었다. 그냥 의자에 깔고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몇 개월 동안 아팠던 항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석을 사용한 지 불과 보름이나 지났을까? 〈희담석 방석〉이 치료 효과가 있다더니 희안한 일이다. 수량이 한정된 제품이라니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하나 더 구해 둬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성원(43세/남, 작가)
나는 하루종일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데 밤샘 작업 후나 이른 후에는 어깨와 팔이 수시로 쑤시곤 했다. 그러던 중 마하몰에서 판매되는 〈희담석 방석〉을 보고 처음에는 무슨 방석이 그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과 함께 비싼만큼 무언가 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여 직장에서는 방석으로, 집에서는 팔과 어깨 부위 등에 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파곤할 때는 베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제는 항상 〈희담석 방석〉을 항상 지니고 생활하는 희담석 매니아가 되어 버렸다.
최정근(33세/남, 컴퓨터 디자이너)
여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그나마 졸기 일수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 추석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앉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 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더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이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 반 32명 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의 딸에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 중동)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경안 스님(선남, 덕흥사)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소설 '부자 1 · 2'

이재운 지음

바움 / 각 9천원

진짜 부자는 누구?
부처님 일생 패러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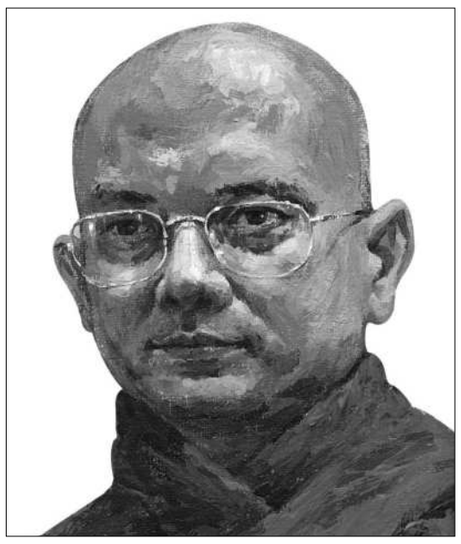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유행가 가사 같은 이 한마디가 요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소설 <토정비결>의 작가 이재운 씨가 펴낸 소설 <부자(富子)>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과 좌절을 너무나 생생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다. 부처님의 일생을 패러디한 풍자소설로, 새로운 성인의 탄생을 소설화했다. 그 성인이란 다름아닌, '부자(富子)'. 부자 자식이란 말이 아니고 공자(孔子), 맹자(孟子) 할 때의 아들 자, 그러니까 성인이란 뜻이다. 돈의 가치를 제대하고 알고, 돈 버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성자인 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기담이다. 재벌2세로 태어난 주인공이 돈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부자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재벌2세인 기담이 부자가 되기 위해 출가하고, 온갖 고초와 망상들을 헤치고 수련과정을 거친 이후 결국 돈을 새롭게 이해할 때만 피어난다는 '황금꽃'과 부자(富子) 칭호를 얻게 된다. 그리고 돈 때문에 고통받는 대중에게 돈에서 해탈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같은 전개를 통해 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잠시나마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자가 되는 길은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열정을 깨우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이은자 기자



◇화가 조재익 씨가 그린 우 조티카 사야도.

진정한 평화 · 행복에 이르는 길

끊임없는 '마음 챙김'

'붓다의 무릎에 앉아'

우 조티카 사야도 지음 / 최순용 옮김

한언 / 8천9백원

"매순간 · 모든 곳이 명상의 시간 · 장소"
세편의 법문 통해 구체적 방법 소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마음을 챙기면서 살라고 하셨다. 부처님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챙김으로 선(禪)적 희열 상태에서 지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마음을 챙겨야 한다. 부처님을 존경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음챙김으로써 경의를 표해야 한다.

<붓다의 무릎에 앉아>는 바로 마음챙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 한다. 미얀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큰 스님인 우 조티카 사야도(U jotika Sayadaw)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챙기라고 말한다.

이 책은 '마음챙김의 거처' '가장 행복한 사람' '붓다의 무릎에 앉아' 등 세 편의 법문으로 구성됐다. 제목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마음챙김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다다르라는 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매 순간이 명상의 시간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모든 장소가 명상의 장소이다.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스님의 법문은 단순한 단어와 간단한 문장으로 이뤄져있지만,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오래 기억되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준다.

"인생은 어려움과 불행으로 가득 차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행한 환경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산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원만한 조건에서만 행복하고 평화롭다면, 결코 인생에서 행복과 평화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고난과 불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지라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우 조티카 사야도는 1947년 8월 5일 미얀마 물메인에서 태어나 가톨릭 미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젊은 시절에는 심리학과 철학 등에 심취했으며,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스물여섯살 되던 해에 출가해, 탕푸루 사야도와 한타빈 타우야 사야도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 · 정진했다. 그의 담마에 관한 설법과 저서들은 미얀마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금까지 13권의 책을 출판하였는데, <붓다의 무릎에 앉아>는 그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스님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올바른 수행법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정진을 계속해 온 최순용 변호사(동국대 법대 겸임교수)가 번역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출판가 소식



법정스님의 '말과 침묵' 개정판

지난 82년 발간됐던 <말과 침묵>(샘터) 개정판이 나왔다.

"너희는 모여 앉으면 마땅히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는 법(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중아함 라마경 中에서)

길상사 회주인 법정 스님이 경전과 조사 어록 가운데 가려 뽑은 말과 침묵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책은, 온갖 소음에 매몰되어 시들어가는 우리 내면을 다시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하다.



'불교와 문화 1 · 2월호'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격월간 <불교와 문화1 · 2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특별기획시리즈-생명'을 통해 생명복제 문제에 대한 불교적 시각을 다루고 있으며, '근대 불서 출판이야기'에서 개항 이후 근대까지 불교서적을 간행했던 출판사와 불교 출판인의 삶과 그림자를 총 정리했다.

또한 경전과 일상에서 사용되는 불교용어를 소개하는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 불교용어'를 비롯해 우리 산천의 풍광과 사찰, 불교문화재를 판화작품으로 만나는 '홍선웅의 판각기행', 고전 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고승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고전산책' 등을 신설했다.



각광스님 '부처님 얼굴을…' 펴내

10여년간 수행 · 포교 포교에 매진해 온 보문포교원 각광스님이 '광명 실상'성취 기도법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꿉시다>(법보시용)를 펴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참회하고 수행 정진하면서, 생명의 진리를 터득해 가자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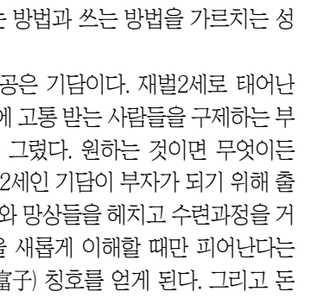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 시 아 문
2	지허스님의 차	지허 스님	김 영 사
3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4	서장공부	김 태 완	여 시 아 문
5	화엄경	법정 스님	동 쪽 나 라
6	참회 ·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7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8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 행 나 무
9	아비담마 길라잡이	대림 ·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환자를 위한 불교기도집	능인 스님	불광출판부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해외불서

불교적 삶의 풍경들



<불교적 삶의 풍경들(Visions of Buddhist Life)>은 돈 파버(Don Farber)의 탁월한 사진들이 세계 곳곳의 다양한 불교적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그려놓은 사진집이다. 저자의 뛰어난 구도와 민감한 색감,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놀랄만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불교인의 삶을 날짜별로 기록한 이 사진작품들은 현대문명이 갖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동정심과 치유, 이해심 등 불교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사진들은 우리를 로스엔젤레스, 교토, 방콕의 거리로부터 중국, 인도, 네팔, 한국, 대만의 절과 불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인도한다. 이 책은 홀로이거나 군중속에 있는 불제자들, 부유하고 가난한 도시들, 수행 중이거나 대화 중인 스님과 불자들을 기록화 형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삶 속에서 고뇌하며 수행하는 구도자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세상 살아가는 지혜 담아

'경전에서 찾은 지혜'

감성 엮음 / 중명출판사 / 8천원



종교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은 진리가 담긴 그릇과도 같다. 그 속에는 종교를 떠나 세상을 사는 지혜가 담겨있다. 열린 마음으로 그 경전의 공통적 가르침 또는 세상사는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경전에서 찾은 지혜>이다. 이 책은 탈무드와 불경, 성경, 코란 등 각 종교의 경전을 통해 교리의 탄생 배경이나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지면 갈등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메일 · 편지 글 모음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운 스님 지음 / 다할미디어 / 8천원



니련선하원에서 수행하며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운 스님이 에세이집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를 펴냈다. 재(財) 보시 스님은 수년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전자메일과 편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는데 이를 책으로 묶어 내놓게 된 것이다. 이 책에는 스님들의 일상적 삶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 법문 준비 중에 요약한 경전의 핵심 내용, 책이나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 불적 순례의 여정을 기록한 것 등 다양한 이야기 들이 담겨 있다.

새로나온 책 3권

시화집처럼 펼치는 시인의 삶

'시인의 편지-유혹'

정일근 글 · 사진 / 새로운 눈 / 1만원



<시인의 편지-유혹>은 시인 정일근 씨의 산문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지나며 삶에 대한 느낌들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여기에 직접 찍은 풍경 사진까지 더해 마치 한 폭의 시화집을 보는 듯하다. 정 시인은 신라 감은사 터에서 우리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랑과 윤회'의 편지를 띄우고, 마당에 핀 꽃 한송이를 통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한다.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동자승 이야기
얼굴



이지엽 · 정성욱 글
올칼라 | 값 9,900원

KBS 인간극장 5부작
MBC 아주특별한 아침 방영!

산사의 샘물처럼 맑은 동승의 얼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천진난만한 얼굴, 찌든 세상의 마음을 훌훌 다 털어 내주는 작은 스님들의 부처 같은 얼굴, 꽃 보다 아름다운 작은 스님들의 산사이야기.
사람은 환생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성철 큰스님과 성철동자의 아름다운 인연. 그 동자가 살고 있는 백화도량 '해인사' 일곱 동자와 무학스님의 살아가는 이야기

♣ 이 책을 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선재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출간즉시 3쇄!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텅빈 산, 붓을 잡아도 한 치 걸림도 없이 묻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법이요 시이다. —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번역 석 영정 | 값 8,500원

마음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 조선일보 〈편집자 레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금언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 스님 外 | 값 9,500원



16세기만 하더라도 한국 가정은 열린 공간이었으며, 여성의 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조선 중기인 이 시기는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이 널리 보급되기 전으로 17세기 중반 이후인 조선 후기에 비해서는 매우 개방적인 사회였다.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정창권 풀어씀

사계절 / 1만2천원

16세기 양반 가정의 삶 엿보기

유희춘 ‘미암일기’ 토대 당시 생활상 담아
왕실 · 이사 · 집수리 · 혼례풍습 등 소개

이 시기 사람들은 가족관계에서 아들과 딸을 따지지 않았고, 친족 관계에서 본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았다. 혼인 풍속과 결혼생활도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리고 그대로 눌러사는 장가와 처가살이 혹은 남귀여가(男歸女家)와 친정살이가 널리 유행했으며, 아들과 딸의 차별 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균분상속이 이뤄졌고, 조상의 제사도 자녀들이 서로 돌려가며 지내는 윤회봉사(輪回奉祀)가 관행이었다. 한마디로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동등하였다.

<홀로 벼슬하여 그대를 생각하노라>는 이러한 16세기 조선시대의 양반가정의 일상생활을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사실대로 재현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강사 및 한국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인 정창권 박사가 썼다.

<미암일기>는 1567년에서 1577년까지 약 11년에 걸쳐 거의 매일같이 한문으로 기록한 미암 유희춘의 개인일기다. 미암은 사헌부 대사헌, 홍문한 부제학 등을 거치며 16세기 후반의 걸출한 인물들인 이이, 허봉, 허준, 정철, 어숙권 등과 교유했던 대표적인 호남사림 가운데 한사람이다. 그의 부인 송덕봉은 다양한 소양을 갖춘 양반여성이자 대단한 시적 감각을 지닌 문인으로, 최근 들어 신사임당의 뒤를 잇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미암일기>를 관직생활, 살림살이, 나들이, 재산증식, 부부갈등, 노후생활의 6개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미암일기>에 기록된 실제 사건과 상황들을 저자가 약간의 상상을 가미하여 이야기로 구성한 것이다. 조정의 정치사에서부터 집안의 대소사 및 개인의 신변잡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한 사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왕실 소식, 정국 동향, 사신 접대 등의 역사적 사실과 미암이 홍문관에서 근무할 당시에 관한 기록, 그리고 이사, 집수리, 건축, 혼례풍습, 집안 잔치 등 집안의 대소사도 꼼꼼히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부인 송덕봉과 자식들의 생활모습, 그들 주변에서 온갖 시중을 드는 노비, 첩, 서녀, 의녀, 기녀의 생활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특히 미암은 살림에도 관심이 많아 집안에 나고 드는 물건들을 매일같이 일기에 기록했는데, 이를 통해서 16세기 양반가의 살림규모를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미암과 미암 주변의 인물들이 주색을 가까이 하거나 첩을 둘 때 벌어지는 부인들의 시기와 질투, 미암의 사위와 손자 등이 마음을 다잡아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산사(山寺)로 들어가는 일 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되는 사람 사는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발견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한국의 야생화’

이유미 지음

다른세상 / 4만원

볼수록 정겹고 따스한 우리 야생화 500여종

입춘(立春)도 지나고, 성미 급한 이라면 벌써 꽃 소식을 기대할 것이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산자락에서, 아지랑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들녘에서, 따가운 햇살이 한창 내리쬐는 물가와 논가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암벽사이에서 때론 수줍은 산골처녀처럼 수수한 모습으로, 때론 정열을 주체하지 못해 화사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우리 꽃 야생화.

<한국의 야생화>는 광릉 국립수목원 이유미 연구관이 우리 꽃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펴낸 것이다. 우리 땅에서 피어나는 야생화 500여 가지를 사진과 더불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다.

봄이 오면 양지바른 풀밭사이에서 옹기종기 모여 피는 제비꽃에서부터, 한여름 줄기 끝마다 진한 분홍빛의 작은 꽃들이 층층이 피어나는 부처꽃, 바닷가 매서운 바람에 맞서며 척박한 돌 틈에서 자라는 바다의 국화 해국, 줄기와 꽃이 모두 자주색인 참당귀 등 산과 들을 지나며 우리가 한번쯤은 보았을 야생화들을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고, 지방에 따라 어떻게 부르는지, 야생화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별하고, 꽃말은 무엇인지, 얽힌 설화와 전설, 영어 표현까지도 소개한다. 또 어떻게 증식해야 하고 일반인이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준다.

야생화를 단순히 보기 좋은 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하고, 보호와 개발의 중요성까지 강조했다는 것 또한 이 책의 특징이다.

이은자 기자

◇우리 야생화는 단순히 보기좋은 꽃이 아니라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뻐꾹채, 새우란, 산자고,복수초.

전문가 서평

‘위대한 아시아’

윤상인 · 이동철 · 이희수 · 임상범 엮음

황금가지 / 2만원



현대 아시아 위인 112명의 소평전

서구 위주 탈피, 우리 잣대로 다방면 평가

아시아는 역사적 전통과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여러 인종들이 사는 복잡다단한 대륙이다. 지구의 3/5을 차지하는 인구와 3/10을 차지하는 광대한 대지는 세계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아시아는 동아시아 · 남아시아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중동)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지역들이 갖는 전통과 문화는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강하다. 또한 아시아에는 세계 유력 종교인 유교 · 불교 · 이슬람교 · 기독교 · 힌두교의 발상지가 집중되어 있고, 각 종교간의 배타성 때문에 항상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한 곳인 데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잡한 국제 분쟁과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지역이다.

아시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기획된 <위대한 아시아>는 한국인을 제외한 아시아 위인들의 소평전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먼저 당혹감부터 느낄 것이다. 그 동안 얼마나 아시아에 대해 무지했고 무관심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인물을 제외하면, 이 책에서 언급된 아시아의 위인 가운데 필자가 아는 인물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몇몇 유명한 문인과 사상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유독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구태여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개화기 이후 우리는 모두 경쟁적으로 서구를 향해 가느라 우리의 고유한 가치조차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까지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리의 학문적 성숙에 힘입고, 서구 문화의 모순을 절감할 때 일어난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에 대한 테러와 연이은 미국과 이라크와의 갈등으로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아시아에 대한 자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아시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의 잣대는 항상 서구가 중심이었고, 동양권내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중시되었다. 이런 우리가 아시아 전역으로 눈을 돌린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는 우리 학계가 아시아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학문적인 역량이 배양되었다는 증거이며 연구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아시아학을 위한 입문서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대한 안내서로서도 그 가치는 자못 크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오쩌둥 · 간디 · 호치민 같은 인물 외에도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인 쿠르드 족의 독립투사 압둘라 외잘란, 이슬람의 급진 세력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아시아 경기대회의 창시자 인도의 구루 두트 손디, 페르시아 문화가 낳은 영상의 마술사라 불리는 이란의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일본 만화계의 영웅인 데즈카 오사무에 이어 불교인에는 위빠사나 수행법을 제창한 미얀마의 마하시 사야도, 인도 근대불교의 선구자인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 등 여러 방면의 인물들까지 두루 다루고 있다.

이 책에 선정된 전체 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숨가쁘게 달려왔던 아시아의 현대 정치 · 문화 상황을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을 맞이한 아시아의 제민족은 개발독재와 민족주의의 와중에서 민족간 · 정파간 갈등과 대립,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사상적인 갈등과 냉전의 상흔, 이슬람 민족과 서구문명의 극한적인 대립이 야기한 혼란과 상처를 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위인들 가운데는 개발독재의 지도자들과 이에 저항했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많다.

필자가 이 책에서 크게 감동한 대표적 인물에는 이집트의 전설적인 여가수 움므 쿨숨과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있다.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면 전 아랍인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녀는 “중동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라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움므 쿨숨이다”라 평가되었다. 또한 건축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혀 받은 바 없는 일본의 젊은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는 콘크리트 건축에서 자연의 숨소리 같은 오감을 느끼게 하는 동양적 현대건축의 가능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많은 집필자가 참여한 관계로 문체와 내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다루는 인물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약점도 갖고 있다. 마땅한 집필진을 구하지 못해 중앙아시아를 다루지 못한 것 또한 우리의 척박한 아시아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움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독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이다.

■강석근/ 동국대 강사

〈위대한 아시아〉는 1945년 이후에 정치 · 사상 · 문화 · 사회 · 예술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의 현대를 이끈 112명 위인의 삶과 업적을 80여명의 필자들이 분담하여 서술한 책이다.

신간

우룡 큰스님 법문집 불자의 살림살이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인가
참된 불자의 살림살이는 무엇인가

I 부처님을 믿는 불자
II 불자의 정 · 부처님의 자비
III 복을 가꾸며 사는 불자
IV 불자의 길 · 불자의 삶
V 평온과 지혜가 깃든 삶

4×6판 / 값 3,500원

‘불자의 살림살이’는 스스로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아울러 행복을 얻는 원리, 가족 사랑의 원리, 기도성취의 원리 등 불자들이 꼭 알고 새겨야 할 삶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참불자가 되고 불성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립해 보았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신간

행복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덕목들에 대한 법문집!

혜인 큰스님 지음

4×6판 / 값 3,500원

부모님의 은혜, 인과법칙과 마음씨, 참회 · 신심 · 구업(口業) · 보시 · 인욕 · 일법수행(一法修行) 등 불자들이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대입시켜 부드러우면서도 명쾌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룡 큰스님 / 값 5,000원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생활 속에서 자주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미리 피하고, 올바른 정진을 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V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바보가 되거라 (경봉큰스님의 일대기와 사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큰스님!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시대 최고의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큰스님의 대표적인 법문집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스님께서는 고된 삶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법의 향기 가득한 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I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III 베풀며 살자
IV 밝은 삶을 여는 계율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VI 화두 드는 법
VII 마하반야바라밀

일타 큰스님 / 값 5,000원

아! 일타 큰스님



일타큰스님의 일대기. 얼굴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태양을!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극적인 큰스님의 수행담을 읽다보면 기도 · 참선 · 경전공부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자비보살 일타큰스님과 함께 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 큰스님의 유고 법문집

모든 불자들이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갖가지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I 원망하지 않는 삶
II 인연따라 복을 지으며
III 구하는바 없는 불사
IV 불법 속에서 사는 불자
V 행복과 해탈을 막는 오개장
VI 참선과 염불
VII 간경과 주력

일타 큰스님 / 값 5,000원

감로법문 (일타 큰스님의 육성법문테이프)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 · 2)
마음 · 마음 · 마음 (테이프3)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4)
참된 회향 (테이프5)

5개1세트 / 값 12,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해설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말씀으로 가득한 야운스님의 《자경문》을 해설한 책. 인간이 방황하고 윤회하는 까닭, 나를 찾는 묘법, 해탈을 이루는 비결 등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6,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무아와 업보의 관계(2)

무아설에 따라 불교는 무신론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을 정의할 때 전지성, 전능성, 창조성 등과 함께 제일원인으로 정의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신이 궁극적 근원자이며, 일체의 제일원인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무아설은 제일원인에 해당하는 궁극적 실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있으므로 무신론이라 말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아설과 업보설은 양립이 가능한가? 피차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전개가 가능한가? 우선 업보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업보란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업이란 용어는 카르마란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며, 카르마란 바로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야기된 일체의 결과를 보(報)라고 말한다.

불교에서 업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몸, 입, 마음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다. 이 세 가지 중 기본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다른 말로 우리들의 의지를 의미하며, 이 의지가 결정적으로 표출되어 입이나 몸으로 구체화되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란 의미의 표업(表業)이라 부른다. 그러나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옮기지 않고 잠복 상태에 두거나 소멸시켜 버린 다면 그것은 겉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기에 무표업(無表業)이라 부른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우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점이다.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건은 자신이 인정하든 아니든 자신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보(報)란 무엇인가? 이것은 과보란 말을 줄인 말이다. 행위의 결과 필연적으로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바로 과보라고 말한다. 예컨대 술에 취해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역시 과보가 된다. 결국 몸, 입, 마음(의지)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일체의 사건을 과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초기불교에서는 작용과 반응으로 해석한다. 즉 업이란 의지적 작용을 표현한 말이며, 보란 이에 상응한 필연적인 반응으로 본다.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지)의 여섯 가지 근본적인 기관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존재의 여섯 가지 대상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서 의식한다는 것은 작용과 그에 따른 필연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용과 반응 사이에는 필연성이 있으므로 작용을 원인(因)으로 반응을 결과(果)로 말할 수 있다. 인과란 필연성을 지닌 두 사건 사이에 붙여지는 말이듯이 업보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업보를 업인과보(業因果報)의 법칙이라 말한다. 바로 인과법칙인 것이다.

상의 업보설 즉 인과법칙은 사회생활에도 적용되는 데 이 경우 사회윤리적으로는 선인선과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누구는 부자 집에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반해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산다. 누구는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비해 누구는 술 마시고 방탕하며 일생을 보내는데도 생활의 궁핍함이 없다. 기타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과법칙에 대해 그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한다.

매우 비참한 사건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인과업보설과 윤회설을 결부해 설명하기엔 문제가 있다. 자신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생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실

의지에 따라 반응한 것이 업과 보

무아설과 대비 설명엔 다소 무리

러난 행위란 의미의 표업(表業)이라 부른다. 그러나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옮기지 않고 잠복 상태에 두거나 소멸시켜 버린 다면 그것은 겉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기에 무표업(無表業)이라 부른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우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점이다.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건은 자신이 인정하든 아니든 자신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보(報)란 무엇인가? 이것은 과보란 말을 줄인 말이다. 행위의 결과 필연적으로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바로 과보라고 말한다. 예컨대 술에 취해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역시 과보가 된다. 결국 몸, 입, 마음(의지)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일체의 사건을 과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초기불교에서는 작용과 반응으로 해석한다. 즉 업이란 의지적 작용을 표현한 말이며, 보란 이에 상응한 필연적인 반응으로 본다.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지)의 여섯 가지 근본적인 기관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존재의 여섯 가지 대상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서 의식한다는 것은 작용과 그에 따른 필연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용과 반응 사이에는 필연성이 있으므로 작용을 원인(因)으로 반응을 결과(果)로 말할 수 있다. 인과란 필연성을 지닌 두 사건 사이에 붙여지는 말이듯이 업보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업보를 업인과보(業因果報)의 법칙이라 말한다. 바로 인과법칙인 것이다.

상의 업보설 즉 인과법칙은 사회생활에도 적용되는 데 이 경우 사회윤리적으로는 선인선과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누구는 부자 집에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반해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산다. 누구는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비해 누구는 술 마시고 방탕하며 일생을 보내는데도 생활의 궁핍함이 없다. 기타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과법칙에 대해 그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한다.

매우 비참한 사건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인과업보설과 윤회설을 결부해 설명하기엔 문제가 있다. 자신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생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실



지상 백고좌

정무 스님

(안성 석남사 주지)

많은 불자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복을 빌고 소원성취하기를 바랄 뿐 정작 부처가 될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불교란 범부의 몸으로 성현이 되는 도리입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생각 돌이켜 깨닫으면 부처가 되는 것임에도 범부들은 우주에 충만한 부처를 보지 못하고 중생구제를 위해 사람의 몸을 빌어 잠시 나투신 눈앞의 부처님만 보고 복과 소원성취만을 빌고 있으니 실로 딱한 노릇입니다.

마음은 본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주변 상황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한 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불성입니다.

물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을 보기만 하면 복을 빌고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것은 욕심이지 수행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기도를 한들 탐욕만 더할 뿐이지 공덕은 쌓아지지 않고, 업장 또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수행을 하려면 복도 버리고 소원성취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얻으려고만 할 뿐 버리지 못하면 병(病)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변비'라고 하는 병도 따지고 보면 먹기만 하고 버리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고, 비는 강물이 되어 마침내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흘륭한 수행자입니다. 집착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탐욕도 모두 버린다면 누구나 흘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조 혜능스님은 나무꾼 시절에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는 뜻으로, 번뇌망상을 버리고 어떤 모양이나 사상에 개의치 말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옹화상의 오도송에도 이 같은 마음이 잘 담겨있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그러나 우리는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깨달음' 조차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는 납자들에게 일러

주는 수행 간 유의사항에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수행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닦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의 본성은 늘 밝게 빛나고 있으며 진실

경기도 안성 서운산 자락에 자리잡은 석남사(石南寺). 신라 문무왕 20년(680) 창건됐다는 이 천년 고찰에 들어서면 왼쪽 요사채의 외벽 기둥에 걸린 한글 주련이 눈길을 끈다.

"우주는 한 집안/중생은 한 몸/서로 원망 말고/은혜만 갚아라."

"주련이란 것도 부처님 말씀인데, 한 눈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써야지, 어려운 한자로 써 놓으

얻으려 말고 버릴줄 알아야



◇정무 스님은 "수행은 얻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속하는 것"이라며 수행을 한다는 그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참 성품 보아야 '걸림없는 실천' 가능

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애써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얻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수행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게 어긋나버립니다. 번뇌와 망상, 탐욕을 비우고 버리는 속에서 분득 본성 광명이 그대로 밝게 비추고 있음을 직시할 때 바로 깨치는 것입니다.

〈달마혈맥론〉에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念)하지 말라. 부처는 경(經)을 읽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戒)를 가지지도 않으며, 부처는 제를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지킴도 없다. 왜냐하면 부처는 지킬도 범함도 없으며, 선과 악을 짓지도 않는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곧 부처일 것이다.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킨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염불은 왕생의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스런 과보를 받거니와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느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수행한다'는 상(相)을 갖게 되고 너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일체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의 목적

기자가 본 정무스님

면 누가 알아먹어야 말이지. 앞으로 법당 현판도 한글로 바꿔나갈 생각이야." 40여 년 신도교육과 포교에 매진해 온 정무(73) 스님다운 말이다.

정무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의 대선사 중 한 분인 전강 스님을 은사로 1958년 사미계를 받았다. 그러나 은사 스님의 선맥을 잇기보다 여러 법회의 지도 법사를 하면서 포교에 힘썼고 특히 신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접 프로그램을 고안하기도 했다. 1968년 영주 포교담에서, 당시로선 이름조차 생소하던 '여름 수련회'를 최초로 개최한 분이 바로 정무 스님이시다.

정무 스님은 신도교육뿐 아니라 행자를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오죽했으면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 하다 행자교육원 가면 호텔은 기본이라는 말도 있다"고 들은 말을 살짝 꺼내자 스님은 정색을 했다. "난 그렇다고 루조건 억지 부리진 않아. 꼭 이치를 떠져 차근차근 납득하게끔 하지. 수행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옳은 것을 따라하는 것이야."

교육·포교 40년…불교계 최초 '여름수련회' 열어

그러면서 조그만 수첩 하나를 꺼내 보이셨다. 겉을 보니 '2000년'이란 표시와 함께 '행자교육'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인성회복이 수행이다'를 시작으로 예배공덕, 청소공덕, 화합, 건강, 은혜, 보시까지 모두 스물두가지가 적혀있다. 평소 생각이 날 때마다 짬짬이 적어 놓으신 것이라고 한다. 엄격하면서도 품넓하고 자상한 행자교육의 비결이 은비무단한 수첩 속에 다 들어있는 셈이다. 주머니에서 다른 수첩 하나를 꺼내 더니 또 새로운 내용을 잔뜩 적어 넣으신다.

사실 스님은 '지독한 메모광'이다. 어딜 가든지 주머니 속에는 조그마한 수첩과 볼펜이 들어있다. 심지어 "목욕탕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메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스님.

스님의 메모벽(?)은 요즘도 직접 논밭을 일구실 정도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백장청규를 실천하고 있는 청렴한 수행자적 삶에서 연유한 듯하다. 방마다 깔아놓은 카펫은, 심야전기로 뜰을 데우고 낮에는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덮어두지 않으면 방이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이다. 문이며 창마다 붙여있는 세계의 불교유적 사진도 지난 답력을 버리기 아까워서 오려 붙여 놓으셨다는 설명이다. 스님의 검소함에 더 이상 할 말을 잊고야 말았다.

"무한한 포용력 갖고도
우쭐대거나 자랑할 줄 모르고
오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 닮길"

자기 마음에 부끄러운 줄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만년(萬年)의 세월도 부족하지만 인생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저 잠깐일 뿐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찰나간이오, 그저 솜 한번 내쉬고 들이 쉬는 호흡지간(呼吸之間)에 불과한 것이 인생입니다. 물은 분별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흘러가다가 막히면 돌아갈 뿐이고, 고이면 그저 머무를 뿐이지 이를 가지고 분별하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고, 늦는다고 조바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이 물에 버려져 악취가 넘쳐나도 깨끗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은 맑고 깨끗함, 그 원대한 포용력을 지니면서도 결코 우쭐대거나 자랑할 줄 모르고 오직 낮은 곳을 찾아 다닐 뿐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하나입니다. 손등은 손바닥을 보지 못하여 서로가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범부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손등과 손바닥이 서로 하나임을 알듯이 미망(迷妄)에 잠들어 있는 우리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참된 수행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pia.com



◇정무 스님의 행자교육은 엄격하지만 꼼꼼하고 자상한 것으로 유명하다.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목주스님 (上)



내가 처음 절과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님 때문이다. 사실 나는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중학교 시절에 일요일엔 거의 교회에서 사는 골수 기독교인이었다. 어머니는 그 당시 대부분의 불자(佛子)들처럼 절에 열심히 다니시면서도 절 집에서 점을 보셨다. 어렸을때 나는 그런 어머니와 또 어머님이 믿는 불교를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왠지 모를 거부감같은 것도 있었고…, 한번은 어머니께서 점을 보고 오시더니 내 명(命)이 짧다고 하시며, 절에 이름을 팔아야 한단다. 며칠을 완강히 버티던 나는 어머님의 성화에 못이겨 결국 서울 강남 삼성동의 봉은사엘 갔다. 거기서 지금 나의 은사 스님을 만났고 이름도 팔았다(그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몰랐지만…. 또 스님과의 약속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절에 오기로 했다. 그때부터 나는 일요일 오전에는 교회에 가고 오후엔 절에 가는 이상한 생활을 한 참 했다. 당시 어린 나에게 교회는 재미 있었지



그림 · 문병성

만 절에 가는 것은 고역이었다. 그렇게 점이 싫다는 생각을 오래 했었으면 나는 출가(出家)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런 나에게 불교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불교에 심취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분이 목주스님이시다.

내 기억으로 스님은 그때 봉은사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스님이었다. 학원 공부에 절 일에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스님은 절에 오면 항상 재미없어 하고 긴장하고 있는 나를 위해 재밌는 얘기며 절 곳곳을 구경도 시켜 주셨다. 또 집에 올 땐 항상 차비도 주셨다. 어린 내게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했었는 지도 모르겠다. (웃음) 그렇게 나는 절에서의 시간을 스님 덕분에 재밌게 보냈다. 스님을 못 뵌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내 마음에는 천진하고 자상한 스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스님은 나를 불교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강력하게 불교 공부를 권했던 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지금 내가 출가하고 수행자가 되고 자 하는 데는 스님 덕분일 것이다. 스님은 내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도(印度)를 알고 공부하는 것은 필수라며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되었다.

스님과 나는 승랍(僧臘)은 은사와 제자뻘이지만 학교는 1년 선후배 사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목주스님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스님이 봉소엔 웃음과 농담으로 얘기하다가 중요한 순간엔 매우 논리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설득하며 토론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것이 그때는 어지도 그렇게 멋있게 보이던지 나도 출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했다.

내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 스님은 봉은사에서 중 · 고등부 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으셨다. 그때 스님의 권유로 나는 지도교사를 했었다. 스님은 기존의 형식적인 법회에서 벗어나자며 대단히 능동적이고 파격적인 법회를 운영하고자 했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학생회 자체의 이름을 '보다상트바의 모임'이라고 지으셨다. 대개 학생회 법회는 절 이름 뒤에 붙여 그냥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 또 지금은 범어(梵語)를 쓰는 것이 많이 보편화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불교와 인연맺게 이끌어준 스님

논리적 · 당당한 자세 내게 영향

낯설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보살'이란 말은 원래 범어로 '보디 샤트바(Boddhisattva)'다. 이것을 중국에서 보리살타(菩提薩陀)로 쓰게 되었고,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살은 수행하는 모든 이를 총칭해서 쓰는 말인데, 사실 그때만 해도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지칭하거나 점 집 주인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스님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불교의 모습을 전해야 한다며 그런 이름을 지으신 것이다. 처음엔 아이들도 그저 웃기만 했지만 나중엔 다들 자부심도 갖고 불교의 바른 모습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것 같았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아이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보디샤트바 라는 이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단다. 나는 그때 스님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지금도 아이들에게 불교 용어부터 바르게 설명하고 법회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아이들에겐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법회를 진행하라는 스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한다. 언제나 자신있고 재미있게 우리를 감동시켰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민이 많았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법회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본다.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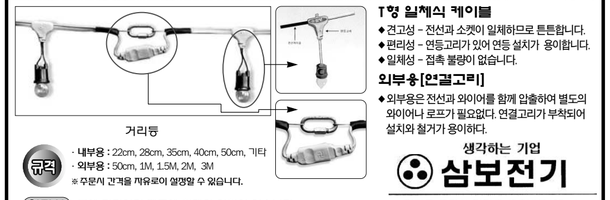
TDP神燈-생명의 빛!!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수퍼원적외선 등 방사파장을 신체에 동시 투사하여 인체의 면역기계와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으로 열에 약한 병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의료기입니다.
모든 "기전이다 TDP기료"를 크게찍...
-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가정상비용 의료기
※ 각종 참고자료 - 4,300여명의 환자별 임상실험 통계
미국 FDA 승인(No.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허 01-506호)
TDP 신등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염 증상으로 허리, 무릎, 팔목 등 관절통증에 시달리는 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성인병에 시달리는 분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이뇨장애가 있는 분
◆고질적인 치질, 치루, 탈항으로 고생하는 분
◆부인병 - 냉증, 세균성 염증, 생리불순, 생리통을 가지신 분
◆자주 재발되는 피부 트러블을 가지신 분
◆전립선 기능장애로 신경이 쓰이는 분
유고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특기에 부합쓸 만국방람회 은상수상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의 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한국-1995년도 보건복지부 수입허가 이후 국내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건강21 02)457-2831~2 (자료책자 무료우송)

삼보전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지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 · 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지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기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채취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물위 9가마니를 달은 뒤 원개에 물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끓숙해 묻어든 뒤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개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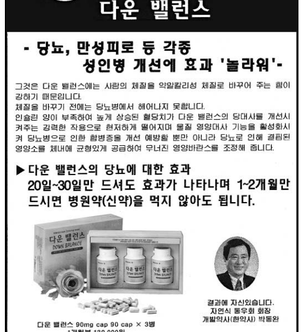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귀신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동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輝'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혼연 탈바 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에선 수상자에게 전 행 원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좋은 부적)
순목소장(에로 들기장 고려한 진품 영품
신기 · 영기 발하는 용자 달마 (당비대사) 그림, 화자그림 (수배하 부산특별보시!
중대비술대학원 졸업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사술관이 전문하시겠습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상히 영험기도도량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수력파 방지 총면화인증 100% 효과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원자하게 떨어지며 놀랄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괴롭힌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50,000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부종, 체액증상
· 갱년기 장애 등
· 갈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각종 신경성질조증
· 피로를 없애고 허를 밝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통우회 원장
개발학사(한양사) 박동원
(C.W.) 초월계메칼라이프 Co.
(주)반도체학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불교유물 볼기회 풍성

국립중앙박물관등 잇달아 특별전



◇전각지붕 추녀끝에 끼우는 용(龍)모양의 장식물인 금동 용두토수.



◇금동 관음보살입상.



◇청자진사채 연화문 표형주자.

박물관들이 올해 잇달아 불교관련 특별 전시회를 예정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불교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호암미술관(관장 홍라희)이 7월 31일까지 상설전으로 '호암미술관 명품전'을 열고 있다.

국보 28점과 '금동 용두토수', '청자진사채 연화문 표형주자'등 보물 26점을 포함해 알짜 소장품 1백60여 점을 내놓은 이 명품전의 불교미술실에 가면 삼국시대 불상부터 고려시대의 불교경전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대표적 불교예술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불교사를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제작된 '금동관음보살 입상(보물 927호)'을 비롯해 1944년 평양시 평천리에서 출토된 높이 17.5㎝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 118호)', <법화경>을 사경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국보 제 234호)'등 교과서에서 낯익은 진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하루 네 차례씩 문화자원봉사자들의 전시안내를 들을 수 있다. (031)320-1801~2.

국립청주박물관(관장 이내옥)도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진작가 관조스님이 전국 사찰을 돌며 찍은 꽃살문 사진을 전시하는 '사찰 꽃살문 展'을 마련한다. 내소사 대웅보전 어칸 꽃문과 실상사 약사전 꽃살문, 통도사 적멸보궁 어칸 꽃문, 불갑사 대웅전 옆칸 꽃문 등을 찍은 40여점의 사진이 선보인다.

5월 10일부터 기획되는 '문화재 특별전'은 의미가 남다르다. 문화재를 개인적으로 수집해 온 수의사 김연호씨가 지난해 기증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시회다. 이 행사에서는 간돌칼, 빗살무늬토기 등 석기시대 유물부터 조선시대 자기에 이르기까지 270여점이 공개된다. 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열리는 10월에는 석재와 나무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만든 동자상을 전시하는 '불교 동자상전'을 연다.(043)252-0710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건길)도 오는 6월 '통일신라문화 특별전'을 연다. 생활용품, 고분, 불교문화 등으로 나눠 전시할 예정인 이 전시에서는 '금동약사여래입상'을 비롯해 '연화문원와당', '흥륜사 석조', '백율사 금동약사여래입상' 등 70~80여점의 불교유물이 선보인다.

9월에는 '박물관 소장 불화 특별전'을 기획한다. '회암사 약사삼존불화', '동화사 아미타 극락회상도', '지장사 지장보살도', 등 50여점의 불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12월에는 티베트, 네팔 등 실크로드 지역에서 가져온 불상과 불화 등을 전시하는 '중앙아시아 불교 특별전'도 볼 수 있다.(02)398-5077

김주일 · 여수령 기자

호암미술관 국보 28점등 불교미술 명품전 열어
청주박물관 내달 23일까지 사찰꽃살문 사진전
국립중앙博 통일신라문화·소장 불화 기획展



◇신흥사 극락보전 왼쪽 측문 꽃문.



◇정수사 대웅보전 어칸 꽃문.

노장·중도사상, 짧은 글·그림으로

이왈종 화백, '도가와 왈종' 단행본 출간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물고기로, 반가사유상을 중도의 마음으로 표현한 이왈종 화백의 작품 '생활속에서-중도'.

선과 악, 사랑과 증오, 쾌락과 고통, 집착과 무관심 등 서로 대립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중도(中道)'라 한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 중도를 화두로 안고 4년전 제주도로 떠난 이왈종 화백(58)이 한 권의 책속에 평상심과 중도를 담아냈다. 그림 한폭에 장자와 노자의 이야기를 한 대목씩 엮은 화문집 <도가와 왈종>(솔과학 刊)이 바로 그것이다.

한 일간지에 연재했던 삽화와 틈틈이 그린 1백편의 그림에 한문학자 이병희 교수(45 · 한서대)가 노자와 장자에서 발췌한 짤막한 교훈적인 글들을 달아 놓았다.

'무릇 도는 복잡함을 원하지 않는다. 복잡하면 많아지고 많아지면 어지러워지며, 어지러워지면 근심이 생겨 구원하지 못한다'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함을 버리며 큰 것을 버리도다' 등 일상속에서 가슴속에 새겨 마음닦기를 하기에 충분한 잠언 형식의 문구들이 빼곡하다. 여기에 증오하는 사람을 '새(鳥)'로, 고통받는 사람을 텔레비전으로, 희망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물고기로 승화시킨 이 화백의 그림은 어느덧 평상심에 가까이 다가서서 중도의 세계를 꿈꾸게 만든다. 값 1만5천원. (02)725-8655

김주일기자

문화소식

오곡밥·묵은 나물 등 사찰 대보름음식 강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13일 오후 2시부터 '사찰 절기음식 배우기' 특별강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절 대보름 유래와 의의'에 대한 강의에 이어 오곡밥과 묵은 나물, 원소병 등 대보름 음식 만드는 법을 이론설명과 함께 실습한다.

적문 스님은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깃든 명절음식을 직접 만들며 우리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의 유래와 의의에 대해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가비 3만원.(02)355-5961



◇윤소희씨의 국악작곡발표회 공연 모습.

윤소희씨, 찬불가등 작곡발표회

국악작곡가인 윤소희(46 · 부산 황정사 합창단 지휘자)씨가 18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네번째 국악작곡발표회를 연다. '방갓에 죽장짚고', '초심(初心)', '산사의 하루', '염화미소', '회향(回向)Ⅱ' 등 발표곡들이 국악이라고 하지만 이번 공연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찬불가들이다.

이중 '방갓에 죽장짚고'와 '그리운 날엔'은 불화가 한승구씨의 개인전에 갔다가 우연히 본 카탈로그의 시가 너무 좋아 곡을 붙였다. 성악가 정률 스님의 글에 곡을 쓴 '초심'은 이번 공연에서 작사가인 스님이 직접 노래를 부른다. 이외에도 '산사의 하루'는 대금과 가야금, '염화미소'는 가야금과 해금, '회향(回向)Ⅱ'는 국악과 신디사이저가 혼합된 합주단의 연주로 선사된다.

윤소희씨는 "곡을 쓸때면 처음부터 찬불가를 작곡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완성해보면 대부분 찬불가"라며 "마음속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음악속에서도 표출이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5:00 아침예불
06:00 뉴스
09:05 차 한잔의 선율
10:05 BBS 신행상담실
16:45 룸비니동산
18:00 저녁예불
23:05 불교문화산책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2일 09:30 차문화산책
13일 12:40 김병조 토크쇼
14일 09:30 구본일의 명상태교, 명상육아
15일 10:00 btn 주간뉴스
16일 14:30 혜거 스님의 신심명 강의
17일 12:40 TV법회
18일 12:40 특집 다큐 오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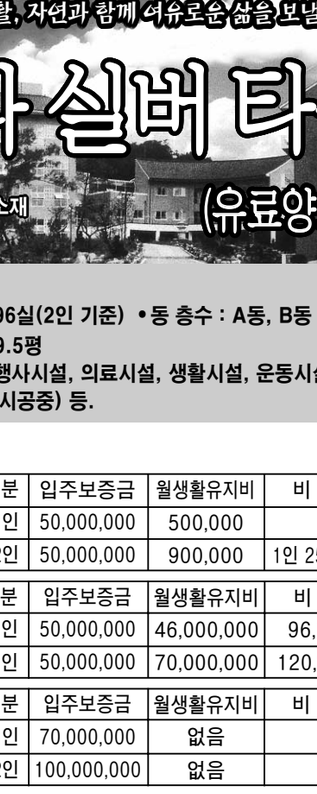
하일라이트

■불교방송: △룸비니동산-중앙승가대 보육교사 교육원장 자용 스님이 진행하는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으로.'우리들 게시판'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가볼만한 전시회와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서는 유익한 동화를 소개한다.

■불교텔레비전: △차문화산책-소설가 정동주 씨가 진행하는 '발우와 차완이야기로', 14~16세기 사이에 탄생한 조선의 막사발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또 사찰에서 찻잔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 등을 재조명한다.

일초스님, 태국서 범패·바라춤 공연

19일 방콕 예백大서



◇바라춤을 시연하고 있는 일초스님.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 10호 보유자인 일초 스님(자원사 주지)과 전수생 20명이 19일 태국 방콕 예백대학에서 공연을 갖는다. 태국한인회와 예백대학의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일초 스님 무용단은 화려하고도 장중한 무게가 느껴지는 법고춤을 비롯해 바라춤, 나비춤, 살품이춤, 태평무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해외 공연투어에 나선지 중국, 필리핀에 이은 세 번째 해외공연이다.

일초 스님은 "바라춤이나 법고춤 등 불교의 전통무용은 영산재 의식을 행하는 사찰에서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며 "춤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어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무용만으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레퍼토리가 자칫 관객들에게 지루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번 공연에서는 회심곡도 들려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초 스님은 4월에는 호암아트홀, 5월에는 호주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2개월과정 ※수시접수
▶강 의: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본 연수원 ▶지도교수: 金哲會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2)747-1567/02)737-1567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식
십년을 하루같이 생식을 주식으로 해온 사람이 직접 주문생산합니다.
곡류(저공해 무공해 유기농)+견과류+채소류(잎, 줄기, 뿌리)+해조류+α=약 60여가지의 순수국산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빈혈, 위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대장질환, 장질환, 심장질환, 비장질환, 신장질환, 비만증, 변비, 숙변제거, 기관지천식, 갑상선질환, 당뇨병, 알레르기성질환, 각종종양질환(암), 신경성스트레스질환, 허약체질, 체질개선 등에 좋음
바쁜 직장인들, 장기 출장중일때 식사대용,
수험생 두뇌개발 등에 좋으며 특히 참선, 단전호흡,
기공수행하는데는 생식이 필수 조건입니다.
※전국배달 가능※
대구 백양기 생식
상담, 주문 : 053)781-0102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경기도 가평소재 (유료양로원)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엄마와 함께하는 '빵' 만들기 봉사

할아버지·할머니 제가 만든 빵 드세요



◇"저희들 솜씨 어때요" 빵만들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쿠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월 28일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4층 제과제빵실에는 앞치마를 두른 초등학교 1학년생 9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다. 아이들이 해야할 일은 제빵사 최호순 선생님의 지도 아래 빵을 만들어 정수주간보호센터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것. 어르신들의 소화를 돕기 위한 호박 케이크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를 만들 예정이다.

복지사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엉덩이

모양 제각각이어도 마음은 하나

'봉사는 즐겁다' 는 생각 갖게돼

가 들썩들썩한다. 얼른 맛있는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봉사활동의 의미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서야 빵 만들기가 시작됐다.

분량의 재료들이 조리대 위에 올려지고, 어머니들이 호박을 써는 동안 아이들은 설탕과 밤, 밀가루 등의 재료를 나른다. 계란을 깨서 그릇에 담아 놓기도 하고 혹시 흘리기라도 할까 조심스레 밀가루를 체에 내린다. 호박과 밤, 계란, 밀가루를 그릇에 담아 거품기로 휘저은 다음 식용유만 넣으면 반죽은 끝. 이제 반죽을 용기에 담아 구워내기만 하면 되는데, 질퍽한 반죽을 떠 담는 일도 아이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오븐에서 호박 케이크가 구워지는 동안 이번에는 초코칩 쿠키를 만든다. 아이들이 반죽기로 버터와 설탕을 녹이는 일을 번갈아 해보고 저민 아몬드와 초코칩을 넣은 반죽을 조금씩 떼어 동글납작하게 빚는다. "난 꽈배기 모양 쿠키 만들거야" "내가 먹은 쿠키는 이렇게 안생겼어" "도너츠 모양이 더 예뻐" 결국 오븐 용기에 담긴 쿠키 모양이 각양각색이다. 쿠키를 오븐에 넣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으며 서로 장기자랑은 무얼 할 건지, 어떤 노래를 부를지 의논을 하느라 조리실 안은 또 한번 시끌벅적해 졌다.

오후 1시 30분. 케이크와 쿠키를 손에 든 아이들이 정수주간보호센터로 향했다.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쑥스러워 하며 빵을 건네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의 장기자랑을 보며, 또 아이들이 만들어온 빵을 먹으며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른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평가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자못 엄숙하다. '느낀점' 란에 '봉사는 즐겁다' 고 쓰기도 하고, 스스로 봉사활동의 점수를 매겨 보며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적어 보기도 한다.



이규진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는 무조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힘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빵만들기 봉사활동을 통해 즐겁게 일하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소보루 빵만들기를 했다는 박종민(11), 아론(8)이 형제의 어머니 송명정(36, 강남구 논현동) 씨는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데 함께 빵을 만들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송이밥

송이 200g, 쌀 3컵, 애호박 1/2개, 집간장 약간

1. 쌀은 30분 전에 미리 씻어 건져 놓는다. 송이는 끝부분만 조금 잘라내고 씻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찢는다. 애호박은 반으로 잘라 은행잎 모양으로 썬다.

2. 솥에 쌀을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호박을 넣고 밥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송이를 넣어 뜸을 들인다. 뜸이 다 들면 그릇에 담아 집간장과 곁들여 낸다.

〈자료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약초안마봉 · 한방향기주머니

약초 효능을 생활 속 가까이에서 느끼세요

약초를 이용한 생활용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천연염색 제품을 만드는 '약초보감' 이 만든 '약초안마봉' 은 황토 천연염색천에 콩을 담았고, 한방향기주머니에는 쑥 등의 한약재를 담아 약초의 효능을 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값 약초안마봉 1만5천원, 한방향기주머니 1만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귀농과 자녀교육

여섯 살짜리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둔 30대 중반의 가장이 찾아 왔습니다. 그 분은 욕망으로 뒤엉켜 있는 이 세상에서 끝없이 욕망을 재생산하면서 살아갈 자신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 할 의미도 발견할 수 없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방황하다가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귀농을 결심하자 가장 먼저 실망한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뼈마디가 부서지도록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대학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대학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웃집 아들과 다를 바 없이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니 부모님 입장에선 몹시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못지않게 실망한 분들이 처가 쪽 가족, 그 중에서도 장인, 장모라고 합니다. 그 분들 역시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을 팔아서 서울로 이주해 온 분들이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일만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해 자식들을 공부시켰는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켜 놓은 자신의 귀한 딸을 도로 농촌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장인 장모 입장에선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양가의 부모 뿐 아니라 자신을 아는 사람들도 대개는 "한창 일해서 생활기반을 닦아야 할 중요한 나이에 무슨 귀농이냐?"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좋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쳐도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밑바닥엔, 서울에 살아도 아이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가 어려운데 시골로 데려가서 무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비하의 감정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의 계획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아내는 "당신 덕분에 시골풍경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양가 부모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겠지만, 아무튼 아내의 위로는 큰 힘이 돼 반년에 걸쳐서 귀농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을 정리하고 귀농을 하려고 하니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이의 교육문제가 마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한테 조기교육을 시키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취학 직전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가도 괜찮은가 해서 말이죠.

"선생님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인생을 수 천, 수 만의 학년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년 미만의 인생을 사는 인간으로서는 수 천, 수 만의 학년을 다 볼 수도 없고 다 마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미완성의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 삶은 수 천, 수 만의 학년 중 하나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금생의 제 삶이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지는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면 불안(佛眼) 법안(法眼)은 갖추지 못하였다 해도 최소한 혜안(慧眼)이나 천안(天眼)은 갖추고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가장 밑바닥 단계인 육안(肉眼) 밖에는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요. 육안밖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 저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이렇게 설명한 후, 뭔가 생각을 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에서 얻는 지혜 무엇보다 커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은 경쟁입니다. 모두들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같은 종교를 믿는 성직자들끼리도 자기들 안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것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귀농을 하고자 하는 것도 부질없는 경쟁에서 탈피하기 위해섭니다. 저는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경쟁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무지와 욕망이 합작해서 빚어내는 산물인데, 거기서 이겼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제가 판단한 것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자식은 저와는 별개의 생명이니까요."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궁리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자란 아이는, 도시에서 독선생 5명한테 교육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한다고 하더군요. 생명 속에서 얻는 지식이 학원을 전전하면서 얻는 지식보다 더 크다는 뜻이겠지요. 주저하지 마시고 계획하신 대로 시골에 가서 아이를 키우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이 터득한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불국토 이룩하는 그날까지

이원규(서울 광진구 자양2동)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은 부처님 가피 아래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 믿으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고 나는 일단 대학공부를 뒤로 미루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해(1999년 5월) 아버지께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양포교원! 그러니까 포교원을 개원하신 것이다.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께선 꾸준히 교리강좌와 불교대학 등을 통해 공부를 하셨고, 포교사자격증은 이미 취득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부처님을 믿고, 불법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고, 또 아버지가 예전부터 언젠가 꼭 포교당을 열어 우리 가족의 몸에 익숙해진 실천불교를 지역사회에도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힘든 시기에 주위엔 십자가로 온통 둘러싸여있는 자양동 한가운데에서 무슨 포교활동을 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오히려 업을 짓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생겼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고하셨고, 현재 운영회장이신 금강심보살님을 비롯한 주위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예전 선교원이 있던 자리를 임대해 포교원을 개원하셨다.

사실 아버지께서 포교원을 개원했다는 것과 포교활동을 하시겠다는 데에 대해 어떤 뿌듯함이나 기대 같은 건 가질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이 힘을 모아 빨리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대학에 진학에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을 뿐이었다.

주위엔 몇 집 건너 교회가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 자양동에서 조그마한 포교원이라는 간판하나가 오히려 불교에 대한 인식을 더 어둡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었다. 그런 걱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지는 금강심보살(운영회장), 무애거사(거사회장), 청진화보살(신도회장)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린이회를 창립하고, 거사회, 자모회를 창립하자 불자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했다. 초하루, 보름기도는 물론 대입입시기도, 영가천도…그리고 분기별 삼사순례와 큰스님 초청법회 등 행사가 이어질수록 척박하던 이곳엔 나날이 불법이 퍼져갔다. 법당에 들어서면, 삼배를 올리면서도 편치 않았던 나의 마음도 어느 샌가 예전 그대로의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녹아있었고, 포교원 옥상에 임의로 만든 2평 남짓한 옥탑방에서 나는 내 미래를 설계하면서 원을 세웠다. 아무리 힘이 들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부처님께 원을 세우고,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가피를 입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확신처럼 말이다. 어쩌면 아버지는 내가 우려했던 대로 업을 짓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업을 소멸해야 하는 불가피한 길을 가시는지도 모르겠다.

포교원 개원, 아버지 확신에 근심사라져

자비·사랑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

그런 확신처럼 올해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에 진학했다. 직장과 학교 생활을 병행한다는 건 수많은 제약과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에 희열과 보람마저 느낀다. 지나간 힘들었던 과거는 아마도 부처님께서 내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지금의 고된 일상은 그 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심이며, 그 결과의 작품은 멀지 않은 훗날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 포교원의 신도는 여기 자양동은 물론 서울, 경기 곳곳에 분포해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엔 거사회 법회가, 또 매월 초하루엔 자모회 법회, 매주 토요일 30~40여명의 아이들이 꾸준히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특히 어린이 법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신다. 아마도 나와 동생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걸 커다란 보람으로 여기시는 게 아닐까?

얼마 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개최했던 '부처님그리기대회' 가 있던 날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기억한다. 더불어 환하게 부서지는 미소도 함께. 이 전에도 '만해백일장' 이나, '연꽃노래잔치' 등 여러 행사에 아이들을 인솔해 참가했고, 그 중 몇 아이들이 상도 받았었지만, 그 날은 모두가 하나가 된 날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에도 참가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 그 결과, 최우수단체상과 응원상마저 휩쓸었다.

내 동생은 아동음악을 전공해 지금 어린이회의 지도교사로 아버지를 도와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피아노는 물론, 플루트, 가야금 등의 악기를 가르치고, 더불어 찬불가도 지도한다. 또 미술을 전공한 자모회의 김용주 선생이 미술공부를, 영어를 전공한 김민정 선생이 영어공부를 지도한다. 모두가 이 나라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에게 부처님 같은 인성과 심성을 심어주기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다. 오히려 직장생활이다 학교생활이다 핑계로 아이들에게 소홀한 나는 항상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뿐이지만, 조만간 나도 아이들에게 글짓기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할 생각이다.

매년 마지막 날엔 자양포교원의 많은 식구들이 법당에 모여 송년법회를 갖는다. 묵은해의 나쁜 기억들은 모두 잊고, 새해에는 부처님의 가피 아래에서 더더욱 정진하겠다고 원을 세운다. 각자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생활해가는 이 나라의 중심임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불교를 실천해 가자고 마음을 모은다.

날로 척박해져 가는 산업사회의 이기심과 차가워져가는 사회의 인심을 불심으로 불밝히는 향과 촛불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끝)

그림 · 김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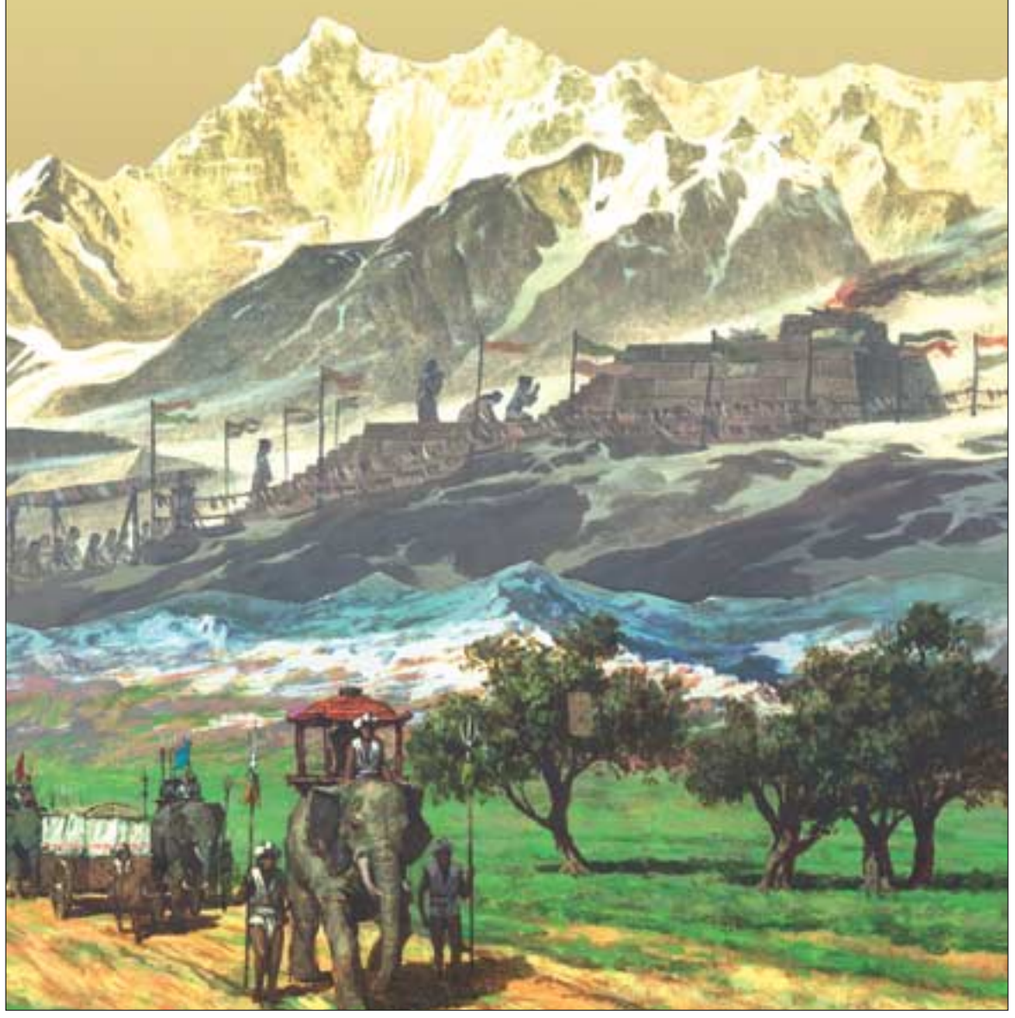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화 룸비니 동산의 기적 ③

아시타 선인의 꿈에 나타난 신들을 이끄는 신은 인드라(Indra)신으로서 사크라(Sakrodevendra-帝釋)신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석제환인다라(釋提桓因陀羅)'인데 '제'는 'Indra'의 번역이고, '석'은 '샤크라(Sakra)'의 뜻이다. 불전이 말하는 세계 최고의 산이라는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4천왕과 32천(天)을 통솔하면서 불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는 신(神)을 말한다.

사크라 신의 계시를 받은 아시타 선인은 급히 설산을 떠나 장차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아기 성인을 만나 보러 카필라바스투성으로 갔다.

불전에 의하면 당시 아시타 선인의 나이는 이미 100세를 넘기고 있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시타 선인의 출현에 숫도다나 라자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았다.



관상과 성전에 정통한 도인이 아기 왕자를 받아들고 아기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니 주위의 사람들은 아연 긴장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돌연 선인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색이 떠올랐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한동안 말없이 아기 왕자를 바라보던 선인의 두 눈에 이슬처럼 반짝이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선인(仙人)의 눈물을 발견한 숫도다나 라자와 마야데비 왕비는 불길한 예감에 어쩔 줄을 몰랐다. 새 왕자의 출생으로 온 국민이 경축하며 그동안 수많은 예언가, 관상가들이 몰려와 모두 아기의 장래가 훌륭하다고 축하하여 주었는데 어찌하여 아시타 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일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야데비 왕비는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선인이시여, 왕지의 장래에 무슨 불길한 징조가 보이길래 선인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올시다, 왕비마마. 이 아기왕자에게 불길한 모습은 없사옵니다. 이 왕자의 발바닥엔 일 천개의 바퀴가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막(膜)이 있사옵니다. 또 눈썹사이엔 흰 털이 감아서고 얼굴빛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어, 범상한 인물이 아니옵니다. 큰 위인의 상(相)으로서 32가지의 길상(吉相)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런 분은 일단 왕위에 오르면 무력을 쓰지 않고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행의 길을 택하신다면 반드시 정각(正覺)을 이루고 붓다(부처님)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것입니다. 32상(三十二相)을 모두 갖추신 분에게는 이 두 길 밖에 다른 길은 없사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100세를 넘겨 살아 이제는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을 다 바쳐 정각을 이루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이제 겨우 붓다가 되실 분을 찾은 것입니다. 다만 이분이 장차 정각을 이루고 붓다로서 법륜을 굴릴 때 나는 이미 생명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인즉 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이옵니까. 내 자신의 입장이 하도 한스럽고 딱하여 저절로 눈물이 흘렀던 것이옵니다."

이 순결한 수행자는 숫도다나 라자와 마야데비 왕비에게 더할 수 없이 기쁜 예언을 마치고 궁전을 나와 설산으로 돌아갔다.

*전륜성왕(轉輪聖王): 인도의 범어로 '차크라 바르틴(Cakra-Vartiraja)'이란 수미4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이다. 인도는 국토가 넓어 예전부터 통일국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전설로만 전륜성왕이 나타나 천하를 다스렸다 전해지며 이상적인 군주를 가리킨다.

*정각(正覺): Sambodi(삼보디)를 말함인데 우주의 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을 말한다. 여래(如來)와 같은 말로서 부처님(Buddha, 붓다)의 깨달음을 일컫는다.

*당시의 인도에는 두개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니, 그 하나는 외래족인 아리아인들의 믿음으로 신과 통하는 브라만(Brahman)에 의하여 희생과 공물(供物)을 바쳐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결과 신들의 은총을 믿는다는 사상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카르마(業, 行爲)와 윤회사상(輪廻思想)을 믿는 인도의 토착종교 였다. 이 윤회사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도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여 왔으니, 즉 사람이 죽은 후 어떤 이는 신의 길을 따라 천상으로 오르고, 어떤 이는 조령(祖靈)의 길을 따라 비에 섞여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식물이나 동물에 먹혀서 정자(精子)가 되었다가 다시 수태되어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상에 오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불행한 생활을 하며 생사윤회(生死輪廻)를 되풀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싯다르타 고타마 왕자가 태어난 지 7일만에 어머니인 마야데비 왕비는 그 명(命)을 다한다. 따라서 어린 왕자의 양육은 마야데비 왕비의 동생이면서 숫도다나 라자의 제 2왕비인 마하파자파티가 맡게 되었다. 유교의 영향권 하에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굳이 새 어머니를 '이모'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언니가 죽자 제 2왕비로부터 정비가 되어 자연스럽게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참고로 마하파자파티 왕비에겐 그녀가 낳은 '난다(難陀)'라는 싯다르타의 배다른 동생이 있다.

마하파자파티왕비는 언니의 아들인 싯다르타 태자를 기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 멀리 설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싯다르타는 마음껏 노닐며 기쁘게 자랐다. 이때의 장면을 <본행경(本行經)>이 전하는데 태자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가 뛰어나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눈물을 흘리거나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한 배고프고 목마르며 춥거나 더운 것을 다 모르는 가운데 항상 밝고 지극히 깨끗하게 자랐다고 하였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짝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내 가정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 내면의 불을 밝히고 정진 또 정진해야

지구촌을 살리려면

문 해가 거듭될수록 오존층의 파괴와 해수면의 상승,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 지구 전체의 문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공부를 해나가는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한생각이 법이 되어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며, 모두가 각자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과 하나가 되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제가끔 논다면 운명팔자를 못 면합니다.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한아름으로 뭉쳐서 한마음이 돼야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따라주며, 그래야 한생각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서 작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열구리가 아프다 하면 열구리를 작용하는 그놈들에게,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소 요소를 진행해 나가면서 모두를 리드하는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 모든 중생들도 다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만이 말 자체가 법이 되고, 행 자체가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생들의 마음이 내 한 생각에 따라서 배우고 나가는 데에 바로 흡수돼서 팔자운명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의식이 없어지고 딴 의식으로 돌려지니까 화해서 보신으로 응신으로 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능히 법신이 되고 응신이 되고, 부처가 되고 다 제도가 돼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야만이 마지막에 내가 천백억화신의 대표로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안팎이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혼련이 되고 계발이 되고 내면에 불을 밝혀서 자동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생길 때, 지구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태양의 수명도 길게 할 수 있고 은하계의 별성들도 다 내 몸속 중생의 별성과 똑같이 이룰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마음도리로서 관해주면 훨씬 나아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만 적응 되는 줄 알고 그러지만 큰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다 같아요. 그러니 올해에는 더욱 더 내 가정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해서 내면의 불을 밝히고 정진 또 정진을 해야 합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자성불을 밝혀서 욕심과 아상을 녹여야 하고 가정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를 무마해야 하고 지구의 문제도 무마해야한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문 죄송하지만 모르는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본래 공한 데서 나왔는데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애당초에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 지수화풍에 의해서, 흙과 물과 바람이 한데 합쳐서 따뜻한 원기(火)를 줌으로써 생명체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기 이전 불(火)이라는 자체의 불성(佛)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한데 합쳐서 수없는 미생물이나 혹성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미생물이 수없이 흘러나와도 묘한 것은 그 미생물은 넷이 동업자가 돼서 태로 낳고 알로 낳고 화해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이래서 네 가지로 화현을 했는데, 물의 성품은 물의 성품대로 물에서 살게 했고, 바람의 성품은 바람의 성품대로 날아서 살게 했고, 습한 데서 난 것은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묘한 것은 불의 성질입니다. 불의 성질은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근본, 나기 이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 자체는 모든 것을 포괄하게 돼 있고 또는 모든 게 같이 이글어 들어가는 한마음의 큽없는 진리! 이것은, 누가 생명이 더하고 덜함도 없는 소중한 불이라는 보배가 우리에게 전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생물에서부터 쭞고 쭞기면서 단계단계,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동물의 세계, 진화된 인간의 바로 밑에 있는 코끼리라든가 소나 말 등이 있고 나서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됐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기까지 먹히고 먹고 쭞고 쭞기면서 부딪치면서 빠아픈 세월을 지나오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기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세 번을 태어나서 살아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금방 된 사람은 가끔 짐승의 짓을 해서 행동이 부드럽지 못하고 악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성의 뿌리를 밝힌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한생각에 돌려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이 시점의 공한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한 그 자체가 얼마나 묘한 도리입니까? 불에서는 불 성질을 띄고 나왔기 때문에 불에서 살고, 습한 흙에서 살고 또는 날라 다니며 살다가 불성을 본래 다 가졌기에,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인연 지은 대로 악업 선업을 지은 대로 인연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고(苦) 덩어리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자체 생명의 의식들은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바로 자기의 몸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 다스리며 나가야 된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대로 들이 아닌 까닭에 놓고 바로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오기 이전의 악업 선업이 담긴 마음의 배낭을 짊어진 채 나왔으니 과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짊어지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고 했지만 미래도 여기 있습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니까 정신계와 물질계의 그 깊은 사연들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실에 극락과 지옥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소로 살다가 소의 습을 놓지 못해서 도로 소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보면은 회향을 잘 못해서 도로 중세계 차원의 삶을 가지고 다시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찝껀적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우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불기둥이 자기를 움쭉거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계의 지름길

문 저는 물질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법우입니다. 그런데 물질계를 공부하다보니까 물질과학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면 마음의 과학이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고 심성과학이 아니고서는 물질과학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물질적인 연구를 생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정신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과학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연구를 하는 것만이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밥 한 끼니 해먹는 것도 과학이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과학입니다. 과학 아닌 것이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설 명절 때가 되면 모든 가정에서 많이들 해 먹는 식혜를 생수를 가지고 만들어 내놓는 것도 바로 발전입니다. 그러고 과학입니다. 적다고 해서 과학이 아닌 게 아닙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심성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심성과학이란 걸 모르고 물질과학으로만 가기 때문에 지금 모두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그 어떠한 연구도 심성(心性)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팡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의 50%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신세계로 치닫는 교차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천체물리학이니 첨학이니 지리학이니 천문학이니 하고 무수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구를 할 때 첫째 이런 게 있죠.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스님!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외계인으로부터 전파를 타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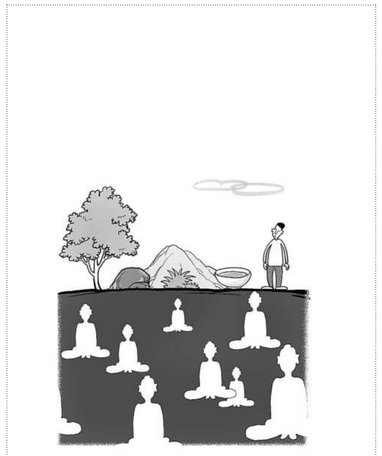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짜 행과 실천을 하지 않고는 생활 속에 부처가 있음을 알 수 없어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내가 내 무전전화를 놓아야 남한테 전화도 하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그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제가끔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바로 틔어주고 모든 게 파악이 된다면 물리가 터지고, 파악이 되면 두루 텀험할 것이고 볼 것이고 또는 두루 들을 것이고 왑나참나 만날 것이고, 내가 결정지을 것이고, 안팎으로 통신하는 소임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라는 이름 없는, 바로 진드기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했고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평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친 분들은 과거 생을, 즉 말하자면 이 사바세계와 무아의 세계를 그저 한 찰나에 들고 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그냥 넘나드니까 모를 리가 있나요? 삼천 년 전도 알고 삼만 년 전도 알고 삼십만 년 전도 알 텐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만 하고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심안으로 볼 줄 알고 마음의 귀로 들을 줄 안다면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너무 넘치게도 하지말고 진실로 자기 자성의 뿌리를 밝힌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허탈한 마음이 드는데…

문 항상 공부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다보면 환희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허탈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러면 안되지 하고 다시 잡아 나가면서 굴려 놓고 그러는데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마음이 여일하지 못하고 허탈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허탈한 마음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생명들만 해도 그 의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한 두 개라야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색깔도 없이 여여하겠지만…. 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악업 선업이 짚이없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지은 바 그대로…. 내가 그러죠, 입력이 돼서 날날이 나온다고요. 날날이 나오는 대로 속고 바깥으로 물질에 속고, 보고 듣는 대로 속고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속고 끄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면 마음이지 왜 한마음이라고 그랬느냐? 우리 몸을 봐도 한마음이요, 바깥에 모두를 봐도 한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뼈와 살을 빌어서 몸 하나를 받았지만, 과거에 살던 인과로 인해서 악업도 뭉치고 선업도 뭉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감이 온다든가 그럴 때에 허탈감도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잔잔하게 만들고, 또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대로 조절을 해서 위로 조금 올리고 하는 그리듬을 맞춰서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다 일임해서 놔 버린다 이거죠.

전자에 선지식들께서는 끓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요즘은, 배우는 사람에게 끓어 버린다 하는 소리가 아주 극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끓는 게 아니라 안으로 넣어서 굴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끓으려고 10년 20년 애써도 끓어집니까? 우리가 수시로 생각나고 수시로 행하게 되는 거를 끓으려고 하니 그게 끓어집니까? 그렇게 끓으라고 하니까 그걸로 안단 말입니다. 우리 생활하는 데 생각나는 거를 망상이라고 해서 그걸 끓으라고 하는 것이 자극적인 말이 돼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안으로 놔 버려라, 안으로 돌려서 놓으라고 하면은 되는데 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는 자극적인 말이요, 하나는 유하게 돌아가는, 리듬을 타고 그냥 놔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끓으려고 해서는 도저히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망상을 끓고, 일일이 생각나는 걸 끓고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여금 공부의 재료로 삼아서 부처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대로 주인공에 놔 버려서 일일해야 하고, 또 아는 거는 아는 것대로 행을 하되 그것도 함이 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주인공이 이날까지 해왔고 이날까지 같이 돌아갔으니 그걸 모르니까 그자리를 발견하라고 일러주는 거 뿐입니다. 길을 일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마음의 요동이 없어지고 그대로가 무심한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침반을 가지고서 리듬을 타고 높은 거는 낮게 하고 아래 거는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다 놔 버리는 상태니까, 빕고 일일하는 상태니까 그대로 무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전체가 다 무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하면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다 왜곡을 해서 '아! 무심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이런다면 그건 이미 무심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가 무심한 상태입니다. 육신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말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움즉거리는 그 모두가 전부 허망한 겁니다. 순간 순간 변하는데 아예 바뀌는 때가 있거든요. 이 몸이 바뀌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 바뀐다 안 바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가 공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서도 함이 없이 그냥 하고 있다 이겁니다. 허탈한 것도 그 자리, 즐거운 것도 그 자리라는 것을 알고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마음에너지 활용하려면…

문 스님, 새해에도 법회가 충만한 자비의 가르침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내려주시길 발원합니다. 스님의

☞ 30면으로 계속

☞ 29면에서 계속

가르침을 등불 삼아 어두운 사바세계에서 하루하루,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 식솔들을 마음법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내 안의 무한광대한 에너지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하는 일에서마저 제대로 꺾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내 안의 충만한 마음의 에너지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부처님 법에 대해서 내가 더 말을 안 해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와 일체 만물이 사는 거와 고정됨이 없이 흠나에 나투면서 돌아가는 그 모두를 봤을 때 일체가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살림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는 까닭에 더 이상 붙법(佛法)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죠.

말을 하는 순간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하면서 붙이 들어오는 거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 일체제불의 마음이 통틀어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아신다면, 그 일심조차도 공(空)해서 이 세상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내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운전수는 중심을 잡고서,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차를 끌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중용이며 중심입니다.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있고, 이 세상 모든 살림살이도 다 내 마음에 가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자 사는 게 아니라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 자체를 알지 못하고는 남의 마음도 모릅니다. 입력이 돼서 자꾸 현실로 나오는 거를 나오는 데다 다시 팔겨놓는 것이 재입력하는 것입니다. 앞서 입력된 거를, 녹음했던 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녹음한다면 앞서의 녹음됐던 것이 무산돼 버리죠.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작용하는 것도.

도둑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난다거나 사기를 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려서 그러지 않도록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놓는 겁니다. 팔겨놓는 겁니다. 선행을 할 때는 선행을 하는 대로 감사하게, '선행하게 해서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에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양면을 다 일임해서 놔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양면을 다 놓으면서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구한다면 아주 진실하게 깨달음의 소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 양면이 작용이 돼야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아무리 물질계의 50%에서 지금,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거를 다 총족시키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0%가 마저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에너지는 충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삼재가 들었다 뭐가 들었다 이거는 혼란이 많이 오는데, 어떠한 애고가 왔든지 이사를 잘못 간다는 문제까지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것은 내 한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주인공에다 맡겨놓고 그저 내 가고 싶은 날 이사 가면 되고, 삼재가 들었다 하면은 삼재가 들었다는 것도 관습입니다. 관습에 의해서 모든 점을 그르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들어오게 되면, '잘못되는 것도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나요 인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가 없다면 부딪칠 것도 없으니까 내가 있는 반면에 오는 거니까, '바로 내 안에서 나온 거니 내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진실을 가지고 맡겨 놓는다면, 나를 발견하고 실험하기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한마음이 돼야 내 한생각이 법이 될 수 있어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양면을 다 일임해서 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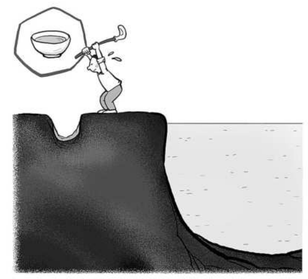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재료로 알고, 내가 괴로운 데서 괴로운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함으로써 체험이 되고, 체험을 함으로써 그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도를 해야 하는 이유?

문 며칠 전에 선원에서 행하는 새해 맞이 촛불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서 해마다 거행하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더욱 더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내가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시고 두 사람을 만나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함이 없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법을 하시고 행으로 보여주셨고, 말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이 조잡이 조잡이 불어가지고는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니깐 한 발짝도 딛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삶아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도리를 몰라서 재산에 집착하던 습이나 자식들에게 가지는 집착이 잔뜩 있으니까 욕심을 내 몸뚱이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천적집으로 자식들 집으로 친구 집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재를 하는 방편이 생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면 자기의 고 덩어리가 인과로서 맺어진 인연들이 전부 화해서 큰 존충으로 변하고 또 인간의 인연을 맺은 인과는 그냥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전부 늘비하게 늘어있으니, 그림자처럼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어찌 한 발짝인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첫째 대목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만날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고 반야심경 독경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오단강 건너가 만나리'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깐 천도가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전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왜 만날 음식을 괴어 놓고 염불하고 잔뜩 벌려놓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납디다. 아, 그걸 눈으로 보고 만날 가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두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요, 살아서 생전에처럼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강에 가서 배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 도리를 잘 모르는 영혼들을 사람에게 가르쳐주시고 두 사람을 만나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함이 없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법을 하시고 행으로 보여주셨고, 말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이 조잡이 조잡이 불어가지고는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니깐 한 발짝도 딛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삶아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도리를 몰라서 재산에 집착하던 습이나 자식들에게 가지는 집착이 잔뜩 있으니까 욕심을 내 몸뚱이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천적집으로 자식들 집으로 친구 집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재를 하는 방편이 생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면 자기의 고 덩어리가 인과로서 맺어진 인연들이 전부 화해서 큰 존충으로 변하고 또 인간의 인연을 맺은 인과는 그냥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전부 늘비하게 늘어있으니, 그림자처럼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어찌 한 발짝인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첫째 대목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만날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고 반야심경 독경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오단강 건너가 만나리'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깐 천도가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전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왜 만날 음식을 괴어 놓고 염불하고 잔뜩 벌려놓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납디다. 아, 그걸 눈으로 보고 만날 가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두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요, 살아서 생전에처럼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강에 가서 배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 도리를 잘 모르는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5백 생을 기다린들 그 배가 오겠습니까? 자기가 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한생각 끄덕이면 한참나에 건너갈 수 있고, 내 마음이 공했는데 강이 어디 있으며 건너갈 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건너간다는 말은 어디 할 게 있습니까마는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혼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자기가 몸이 없다는 것을 알면 빠져 죽을 것도 없고 그럴 텐데 빠져 죽을까봐 건너갈 수도 없죠, 참 묘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자기를 홀랍 벗겨 놓을 수도 있고 홀랍 씌워 놓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고 세번째는,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을까봐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죽을까봐 불바퀴 소용돌이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음은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죽을까봐 애쓰는 그 점을 좀더 생각해 보셔야 합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늘비하게 인과 법칙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 단계와, 또 몸에 빠져 죽을까봐 못 가는 이 단계와 타 죽을까봐 못 넘어가는 삶 단계, 단계 없는 단계가 내 한생각을 돌리면은 그만큼 일 단계도 없고 이 단계도 없고 삼 단계도 없건만 그렇게 해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갈 수 없는,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고달리는 그런 고 덩어리를 짊어진 채 그저 만날 헛바퀴 돌듯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른다면 죽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공부한다고 하면서 진짜 행을 안 하고 실험을 안 하고 체험을 안 한다면 생활 속에 부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만이 한생각에 우주 법계를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것이요 귀가 될 것이요, 한마음으로 전부 두루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백중이나 촛불재를 할 때 마음을 모아서 모두가 한자리하도록 정성스럽게 지낸다면 위로는 육은 빛을 갚고 아래로는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되시는 겁니다.

원효종 승가대학
원효불학원 학인 모집
원효종 승가대학 경주 복원사 원효불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사미 0명
◆수학기간 : 2년(대중생활)
◆수학내용 : 초발심 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도서, 불교학개론, 대승기신론, 소, 별기 불교의식
◆입 학 식 :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원 효 불 학 원
원 장 : 영 운
강 주 : 우 궁
경주복원사 054)745-3646
경주시 현곡면 내태1리 875

동신전통목공
사 찰 문 전 문
대표 백 영 목합장
경북 김천시봉산면 태화동 523번지(직지사검문소 위)
전 화 : (054) 432-1312
공 장 : (054) 432-8121
휴 대 폰 : 011-535-7000
주요 공사 사찰
직 지 사 . 봉 암 사
각 화 사 . 대 승 사
해 인 사 (구광루,선원)
출 서 사 . 윤 필 암
김 용 사 . 법 주 사
운 문 사 . 봉 녕 사
용 문 사 .
서 광 사 (캐 나 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찾아오시는길
↑ 추풍령I.C
통신전통목공
1Km
← 직지사
직지사 검문소
김천시내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미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발걸음 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시지 못한 일들과 자녀의 행복한 사랑의 결실이 보람찬 한해로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大후,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의원오피스텔 202호
※ 식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대결혼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288-2944

불교 이래서 좋다



정인택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스스로 정진하고 깨닫게 해

학창시절 몇몇 종교를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종교는 어딘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졌다. 입교를 강요하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따라가 설교를 들었지만 오히려 반감만 생겼다.

내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다. 나와 친구들은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에 동원돼 나무를 심은 적이 있다. 그날 나무 몇 그루가 남자 나와 친구들은 각자 필요한 곳에 심기로 했다. 한참 심을 곳을 물색하다 우리는 절 근처에다 나무를 심고 그 절을 참배했다. 그 후 나는 친구를 따라 그 절 학생회에 가입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다. 친구는 이미 그 사찰 불교 학생회에 활동하고 있었기에 그곳을 나무 심을 장소를 선택했던 것이다.

법회에 처음 참석하여 법문을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삼법인에 대해 말씀하셨다. 스님의 법문은 가슴에 막혔던 무언가를 확 뚫어 버린 듯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맞다. 그렇구나!"를 마음 속으로 연발하게 되었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나를 반겨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다. 무언가 모르는 힘에 매료된 듯 더욱 열심히 다가갈 수 있었다.

불교는 현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와 자연, 이웃이 하나를 이루고 나 자신이 열심히 해야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다. 어떤 일도 내 의지와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런 사실을 청정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불교가 너무도 좋다. 남에 의지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꿈이 타인의 조정을 받아 조작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그래서 스스로 정진하여 성불하는 불교가 좋다.

나는 앞으로 보리의 마음 내어 불우 이웃을 돕고, 특히 어린 불우 이웃들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

누굴돕는 것보다 큰 행복 있나요

인도서 자원봉사 후 귀국한 정토회 대학생부



◇정토회 대학생부 학생들이 인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 마을 주민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반성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많이 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해보기도 했습니다."

1 월 7일부터 12일까지,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인도에서 두차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온 정토회 대학생부 10명이 귀국했다. 좀 더 나은 취직자리를 위해 영어권 나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대학생부는 1차 봉사활동에선 1월 12일에 열린 '수자타 기술학교' 개원식 실무 준비 활동을 했다. 또 지난해 1월 10일 기술학교 공사를 진행하다 무장강도의 흉탄에 유명을 달리한 故 설성봉 거사 추모비 조성 공사에도 힘을 보탰다. 2차 봉사활동에선 인도 JTS에서 운영하는 지바카 병원 쓰레기 매립지 조성과 의약품 소각장 건립 공사를 했다. 이 외에도 수자타 인근 마을을 찾아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손톱을 깎아주며 상처를 소독해 주는 현지인 대상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의료활동 기술학교 개원준비 등 구슬땀

대학생들은 낮에는 육체적 봉사활동을 했지만 저녁에는 부처님 일생을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했다. 또 '사념처관'을 주제로 명상수련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각자 그날 느낀 것을 편안하게 털어놓는 '마음나누기'도 했다.

이준길(23,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씨는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다 인 줄 알았는데,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길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누굴 돕는 것보다 큰 행복이 있을까란 생각도 해 봤다"고 털어놓았다.

처음 인도를 방문한 1학년 학생 4명은 연료로 쓰이는 쇠똥을 보고 질겁을 하기도 했고, 물을 갈아마셔 설사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100년 만에 들이닥친 한파로 기차역에서 동사한 사람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귀국하기 하루 전 봉사활동을 하며 사귀었던 인도 친구들이 자신도 기회가 닿으면 한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쓴 편지를 보고 보람을 느꼈다는 정토회 대학생부 학생들.

이상환 대학생부 간사는 "올 봄 학기부터 정토회 국제봉사단이 있는 서울대와 동아대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과 인도 아프가니스탄을 돕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명동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2003 '세계 물의 해'

물의 급수와 지표 생물

우리 나라도 물 부족 국가다.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인 973㎜를 훨씬 웃도는 1,274㎜. 대부분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되므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은 제한적이다. 더하여 과도한 인구와 1인당 물 소비량의 과다는 물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날로 악화되는 수질 오염은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더욱 줄여 놓는다.

수자원 관리에서 수질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1급수는 오염이 없는 물,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면 먹을 수 있다. 가재, 버들치 등이 사는 물이 바로 1급수다. 2급수는 화학적 정화 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 물에는 다슬기와 쏘가리가 살 수 있다. 3급수는 정화를 해도 먹을 수는 없는 물로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 3급수에도 붕어나 메기는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붕어와 메기마저 사라진다면 이 물은 죽은 물이다. 단순히 사용할 수 없는 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토양 오염과 같은 2차적 오염을 부른다.

과다 인구·수질오염, 부족현상 악화

효율적 수자원 관리 무엇보다 중요

삼전복지관

'학교 사회사업 서포터즈' 모집

체계적 자원봉사자 교육·양성 예비 복지사 되는 기회 제공

"학교 자원봉사 서포터즈 모여라!"

삼전종합복지관(관장 각우) 학교사업지원센터에서는 2003년 학교 내 자원봉사 등 사회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인 '학교 사회사업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기존의 단기적인 자원봉사활동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예비 사회복지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 3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로 5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한 사람. 18일까지 접수신청서를 삼전복지관 학교사회사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20~23일 총 17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학교사회사업의 이해, 사례관리,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의 강의를 듣고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중학생들과 상담을 하는 삼전복지관 자원봉사자들.

몰운대복지관, 통합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맑은소리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개별 언어치료는 주 2~3회, 그룹 언어치료는 주 5회 실시되고 사회적응 훈련 등도 함께 진행된다.(051)264-9003

양정수련관 15일 '양청페스티벌' 개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15일 오후 3시 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제 6회 '양청페스티발'을 개최한다. 부산 경남 지역 청소년 댄스팀을 대상으로 창작 퍼포먼스, 3:3 대항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람은 무료다.

또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1일 오후 2시에 2월 무료 영화 상영회를 연다. 이번에 준비된 영화는 '트리플 X'.(051)868-0750

부산 용호복지관 독서감상문 공모

부산 용호종합복지관은 28일까지 독서감상문 공모대회인 '내가 독서왕!'을 실시한다. 참가자격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로 복지관이 선정한 2월의 서적 중 한 권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명작 비디오 파일

천공의 성 라퓨타

1986년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한 124분짜리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귀환'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을 맡았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이 영화의 주요 모티브다.

신비한 '비행석'을 지닌 소녀 시타는 고도의 과학 문명을 지녔던 라퓨타 제국의 공주. 그녀는 라퓨타의 비밀을 푸는 주문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비행석을 둘러싸고 이를 빼앗아 세계를 정복하려는 무스카와 시타를 지켜주려는 친구 파즈, 라퓨타의 엄청난 보물을 찾으려는 해적 일당들이 한바탕 승부를 겨룬다.



자연과 하나가 된 완벽한 인공섬이자 인간을 파괴하는 가공할 무기인 라퓨타의 실체는 "마음에 의해 온갖 존재를 만들고 마음에 의해 과(果)를 초래한다"는 부처님 말씀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과학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적도 되는 것이다.

강유신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특허받은 명당육기방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氣란? 현실입니다.

<한차원 앞서가는 명당육氣방>
신비한 氣운을 모아주는 명당육氣방
관세음 보살님의 화현으로 내려주신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氣방은 어느 곳에 두어도 天氣, 地氣, 六氣의 신비한 氣운을 모아주고 육방호법수호신장,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천하대장, 지하여장이 액운과 우환과 재앙등 악귀을 막아주고 업장을 소멸함으로 훈훈한 氣운이 감돌아 가정이 안정되는 좋은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명당육氣방에는 정성과 혼이 담긴 만사형통 12가지의 부적이 세겨져 있고 관운과 재운과 명예운를 얻고 큰인물이 태어나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발하는 발원문, 소원성취문, 사업성취문, 조상발원문, 학업성취 소원문, 부적 등을 넣어 가정에 두고 정성드린 마음을 가지면 영험적 좋은 운으로 바꾸어 주고 사업의 성공과 아울러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있게되며 명당육氣방을 가진 인연공덕으로 근심걱정 사라지고 행운과 소원을 이룰것입니다.



신비의 황금 보물
좋은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좋은 氣운을 모아주면 명당이 됩니다.
명당육氣방은 가정, 점포, 사무실, 공장등에 氣를 모아주고 수호하여 액운을 막아주고 재물이 모이는 명당을 만들어 줍니다. 氣가없고 수호없는 자리는 액운과 불화가 따르고 재산상 손실이 오고 잘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 배(선박)에는 예고없는 대형사고나 재난이 날수 있으므로 총명한 氣운과 지켜주는 氣운이 융합 안전운행이 되도록 합니다.
명당육氣방은 집터, 공장터등에 氣를 모아주고 액운과 풍파가 없는 명당터를 만들어 줍니다. 터에 氣가 없고 액운이 가로막고 악터가 되면 모든 일들이 잘되지 않습니다. 명당육氣방은 묘지, 납골묘지터등에 氣를 모아주고 악귀 없는 명당터로 만들어 줍니다.
氣가 약하고 잡귀와 수맥과 자기 결핍증에 시달린 영가들이 힘들고 괴롭고 편안하지 못하면 직계가족 또는 후손에게 악성적 좋지않는 파장이 올수 있습니다. 氣가 모인 명당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불러오고 氣가 약하면 악터가 되여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고 잘되는 일이 없으며 불화가 따릅니다. 옛부터 조상이 도와야 잘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집, 점포, 사무실, 집터, 공장터, 묘지터에 氣가 약하면 근심과 불화로 변해가고 氣를 모아주면 모든 일들이 잘되어 갑니다. 불화가 오고 안될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1. 모든 일들이 불행으로 변해가시는 분
2. 사업이나 장사가 잘안되시는 분
3. 돈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있으신 분
5. 하라는 데로 다해보아도 안되시는 분
6. 큰꿈을 품고 할려고 하시는 분

불교용품점,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명당육氣방 : 051-865-9933
홈페이지주소 : 명당육기방 www.6kibang.co.kr

불행과 행복은 氣의 원리하에 좌우하고 氣가 약하면 불행이 올 수 있으며 氣가 강하면 부귀로 변해갑니다.

종류: (골드 1호, 2호 : 가정집, 점포(상가), 사무실 전용) (홍, 은, 흑 : 묘지, 집터, 공장터, 상가터 전용) (1호 : 모든 자동차, 배(선박) 전용)

부처님 땅, 참배자 물결로 북적



인도여행 지금이 적기, 부처님 4대 성지인기

험난하고 다소 여행하기 불편하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인도. 지금 인도는 겨울철이지만 우리나라의 초여름과 비슷한 날씨라 전 세계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둘러보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로 북적인다. 인도 전문가인 석채언 사장(혜초여행사)은 "부처님의 성지들은 대부분 장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오지마을에 있어 여행하기엔 다소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가 향훈을 직접 느끼며 기도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방문자들에게는 4대성지 순례 코스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최초로 설법한 녹야원(사르나트), 열반에 든 쿠시나가라 등 부처님의 4대 성지를 소개한다.

■룸비니-부처님이 태어난 곳으로 네팔 지역에 있다. 룸비니의 유적지로는 중앙에 흰색으로 아담하게 단장한 마야 부인당이 있다. 사당 내부에는 침식으로 표정조차 확실치 않은 마야 부인이 시녀와 함께 나무 밑에 서 있는 상이 안치돼 있다. 마야 부인당 남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에 마야 부인이 목욕을 했다고 전하는 네모난 연못이 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승원터가 묻혀 있다.

아쇼카 왕이 건립한 석주는 마야 부인당 서쪽에 있는데 높이는 약 7.2m이다. 마야 부인당 주변에는 벽돌로 만든 크고 작은 봉헌 스투파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주요 볼거리〉 마르지 않는 연못, 보리수, 마야사원, 아쇼카석주와 사원들.

■부다가야-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부처님 당시에 신성한 땅으로 알려져 수많은 수행자들이 운집했던 곳이다. 이 일대는 예전에는 모래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 계단을 내려가면 정비된 유적이 펼쳐지고 중앙에는 대탑, 서쪽에는 금강보좌와 보리수가 서로 인접해 있다. 대탑 북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직후 7일 동안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즐기면서 머물렀다는 장소가 있다. 그곳에는 높이와 폭이 1m 정도 되는 콘크리트로 덮인 돌 축대가 18m에 걸쳐 이어져 있고, 부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피었다고 하는 열여덟 개의 연꽃이 상징적으로 조각돼 있다.

성도의 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금강보좌다. 금강보좌는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좌석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던 순간 대지가 진동했는데, 이 자리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주요 볼거리〉 마하보디 사원의 대탑과 보리수, 금강보좌, 무칠란다 연못, 전정각산과 유영굴, 니련선하, 수자타 마을.

■녹야원(사르나트)-부처님이 최초로 불법을 전한 땅으로 보리수나무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같이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과 처음으로 불법을 이야기했던 곳이다. 예전에는 왕이 이곳에다가 사슴을 풀어놓고 살도록 했다고 해서 녹야원(鹿野園)으로 전해진다. 현재 녹야원에서는 아쇼카 왕의 석주와 다르마라지카 스투파의 유적, 무라간다 쿠티의 건물터 등이 남아 있다.

아쇼카 왕의 석주의 기둥 머리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네마리의 사자상이 있다. 석주 남쪽에는 아쇼카 왕에 의해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르마라지카 스투파의 터가 있다. 기벽의 직경이 약 28m, 밑바닥에서부터 높이는 약 43m이며 주위에는 여덟 개의 감실이 있고 그 하나하나에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주요 볼거리〉 디메크 불탑, 차우칸디 불탑, 다르마라지까 불탑, 아쇼카 돌기둥과 부처님의 거처 및 많은 불탑, 고고학박물관.

■쿠시나가라=부처님이 열반에 든 땅이다. 경내의 열반당은 1876년에 발굴되어 복구되었고, 1956년, 부처님 열반 2500년을 기념해 새로이 단장했다. 흰 벽 열반당 안에는 두 그루의 사라(沙羅)나무를 비롯해 1876년에 발굴된 길이 6m 가량의 대 열반상이 있다. 유적지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가면, 라마바르라는 곳에 커다란 탑지가 있다. 이곳에서 부처님 유체의 다비(茶毘)식이 봉행되었다고 한다.

〈주요 볼거리〉 열반당의 열반상, 부처님 다비터인 라마바르 불탑.

〈도움말 · 사진 제공=석채언 혜초여행사 사장〉 글=김주일 기자


◇세계 불교도들이 건립한 수많은 스투파(탑)로 둘러싸인 부다가야 대탑. 높이는 약 50m, 한 변의 길이는 약 15m다.


◇쿠시나가라 열반당의 부처님 열반상.

인도 전문 여행사와 패키지 상품

▲혜초여행사(www.indowa.com)=12년 인도여행 전문 노하우를 통해 인도 상품을 내놓고 있다. 성지순례 11일, 인도알기 20일 등의 상품이 있다. (02)733-3900

▲실크로드여행사(www.silkroadtour.co.kr)=인도 여행중 성지순례만 전문으로 한다. 인도 7대성지 9일, 인도 8대성지 10일, 인도성지순례 15일 등의 상품이 있다. (02)720-9600

▲일광여행사(www.ilkwangtour.co.kr)=부처님 6대성지 8박9일, 8대성지 10박11일, 8대성지와 인도 주요성지 14박 15일 등의 패키지상품이 있다. (02)736-6272016

▲인도로 가는길(www.india.co.kr)=인도안내서 '우리는 지금 인도로 간다'의 저자 정창권씨가 설립한 인도전문 여행사. 불교성지배낭여행 30일, 인도문화탐방 8박9일, 인도 핵심기행 5박6일 등의 상품이 나와 있다. (02)723-0333

▲인도로 소풍가기(www. indiadream.net)=4대성지 16박17일 배낭여행, 4대성지 골든투어 '니르바나'. (032)427-7624

인도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긴 옷과 침낭을 꼭 챙기자

현재 인도는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4계절 무더운 나라여서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할지라도 난방장치가 없다.

■환전은 현지에서

인도에서 기차를 타려면 환전 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인도에서는 귀퉁이나 가운데가 찢어진 돈은 사용하지 못하므로 환전시 돈을 잘 체크해야 한다.

■길을 물을 때는 몇 번씩 확인해야

특히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자청하는 여행사 직원에게 문의 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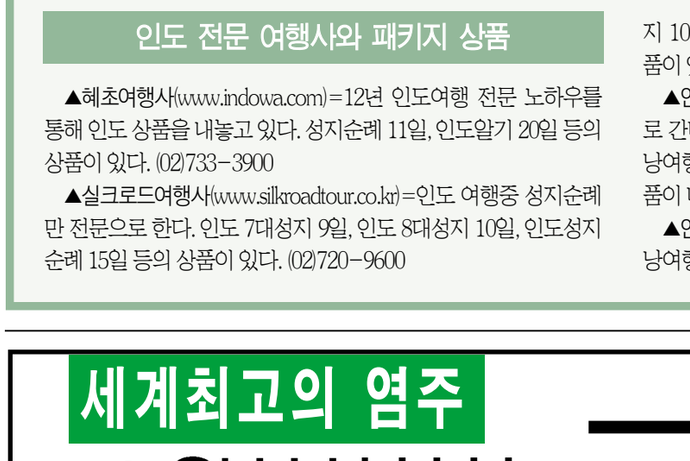
■음식물을 함부로 받아먹지 말자

인도에서 여행객을 노리는 가장 악랄한 사람들은 음식물이나 마실 것을 권한 후, 모든 것을 강탈해 가는 강도들이다.

■장거리 버스 이용시 개인 행동은 금물

버스를 이용해 장시간 이동할 경우 식사시간이나 티타임(Tea time)이 항상 있는데, 운전사의 용무가 끝나거나 마음이 내키면 승객의 탑승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버린다.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주소성명을알려주시면우체국등기소포로전국어디나받아점안식을하고사용하실수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만든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과 같이 사용하고 3일만 사용하면 입 냄새는 없어지고 7일만 사용하면 치통, 충치,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미백 효과도 있어요.
1set면 1년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스님 저도 남는것이 없어요.
※농협 : 360-12-046446 최 능 우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70-12-056037 정애영